

다음 아고라
미네르바 글 모음
3권

미네르바 글 모음 카페
<http://cafe.daum.net/iomine>

소 개 하 기

이 책은 ‘다음 아고라 경제방’에서 ‘미네르바님’이 쓰신 글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 현재의 경제 상황 2. 앞으로의 경제전망, 3. 이에 대한 대비책 에 대한 글입니다.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쓴 글들은 1권에,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쓴 글들을 2권, 10월에 쓴 글들은 3권에 담았습니다.

미네르바 님의 글을 인터넷으로 보고자 하시면, ‘미네르바 글 모음 카페 <http://cafe.daum.net/iomine>’에 가입하시면 전문으로 보실 수 있고, 이에 대한 인쇄용 PDF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가능한 많은 지인들에게 이 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올 미래를 준비하며, 억울하게 당하지 말고 슬기롭게 준비합시다.!!

이 글을 쓴 미네르바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미네르바 글 모음 카페 주인장 - 일심 -

미네르바 글 모음 3권 목록표

01. 작전명 : 여우 사냥 (1997년 당시 헤지펀드의 작전명 은어) 1쪽
02. 10월 달러 위기설의 파급 효과 10쪽
03. 공급주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21쪽
04. 내일 장 초반부터 달러 환율이 폭등 할 것입니다. 33쪽
05. 순환 사이클... 35쪽

06.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시면 안 됩니다.. 38쪽
07. 자산 구조 변동의 시대적 압박 요구 39쪽
08. 미국에서는 1400원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다. 42쪽
09. 한나라당의 "달러 통장 만들기"는 뭐냐!!! 46쪽
10. 유인촌이 뭘로 돈을 벌었지? 47쪽

11. 최근에 들은 가장 황당했던 소리 48쪽
12. 이젠 사실상 제 2차 IMF에 돌입한 상태다. 49쪽
13. 한국은 1345원이 넘어가면 환율 통제력을 상실한다. 53쪽
14. 모델 김지후 또 자살 충격 파문 확산. 56쪽
15. 미국 국내 보험사 파산 위기 직면. 58쪽

16. 솔직히 충격적이다. 60쪽
17. 이젠 마지막 3개월이구나.. 신이 부여한 마지막 찬스 62쪽
18. 천재들의 실패 - 로저 로웬스타인. 65쪽
19. 캐피탈리즘 2 : 일반인들의 경제 접근성을 높이는 유도성 71쪽
20. [긴급속보] 일본 다이와 생명 전격 파산 결정. 73쪽

21. 아니.. 이것들이 정신을 아직도 못차렸네.. 74쪽
22. ING 지금 박살나기 직전인건 다들 잘 알고 있겠지! 80쪽
23. 1천억 달러 지급 보증을 시장은 어떻게 보는가. 84쪽

24. 김정일 사망 이후가 전혀 준비 안 된 나라. 90쪽
25. 더 이상 펀드환매를 하고 안하고는 이제 의미가 없는 상황. 92쪽
26. 솔직히 뇌 구조가 의심스러운 상황. 96쪽
27. 어제 마트 가서 나도 놀랐다.. 97쪽
28. 살인적인 한국 물가... 이젠 알고 당하자 99쪽
29. 일본도 충격받은 한국의 살인적인 물가. 103쪽
30. 2009년 경제 성장률 2.7%의 의미. 106쪽
31. 워싱턴 포스트를 보고난 후.... 108쪽
32. 한국의 신생 귀족 계급 탄생과 몰락의 명암. 111쪽
33. 이명박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발언. 113쪽
34. 일본계 달러자금에 굴복한 한국경제 2008년 완결 115쪽
35. 이제 일본 경제 종속은 기정사실인데 문제는.. 117쪽
36. 사람 죽이는 살인 연탄 값 -대국민 초토화 작전 1호- 120쪽
37. 사채업의 진실 121쪽
38. 오만이 파멸을 불렀다. 126쪽
39. 이제 남은건 오로지 일본 달러 공수뿐이다. 128쪽
40. 난 도저히 이명박을 이해 할 수가 없구나. 129쪽
41. 날이 갈수록 달러 해외 차입이 중요해지고 있다. 131쪽
42. 집에 있으면 증권사에서 전화 온다. 133쪽
43. 100엔이 붕괴되었다. 135쪽
44. 드디어 한국은행이 원화 유통기를 돌리기 시작했군. 136쪽
45. 전략게임 - 2008년도에 필요한건 만슈타인의 게임이론. 140쪽
46. 이제 한국의 IMF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인다. 145쪽
47. 한국 CDS ..605.. 150쪽
48. 이젠 더 이상 신선놀음이나 할 시간이 없다. 151쪽

49. 이젠 97년 IMF를 극복했던 사례분석이 중요한 시점이다. 155쪽
50. 재경부가 괴담이라고 지껄인게 하루만에 현실화 되는 현실 157쪽
51. 미자. 159쪽
52. 정말 고구마 파는 노인네라니깐.. 171쪽
53. 자꾸 뭔가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173쪽
54. 너무 시간을 끌었다. 175쪽
55. 삼신할매 177쪽
56.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다. 188쪽
57. 노란토끼 190쪽
58. 내일 환율 1500원 찍는다. 193쪽
59. 내일 환율 1500원 안 찍어도 은퇴는 영원히 안 할 것이다. 194쪽
60. 오늘을 상당히 의미심장한 날이다. 195쪽
61. 도대체 환율 오른다고 좋아하는 애들은 뭐야? 196쪽
62. 언제까지 대책 타령 할래... 197쪽
63. 선제공격 타이밍을 못 쳤다.. 198쪽
64. 4차원 세계에 사는 대통령. 199쪽
65. 이젠 막 얘기 해야지... 대안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202쪽
66. 그 놈의 뉴딜... 오래 참았구나. 204쪽
67. 내 그렇게 말했건만 참 안타깝군요. 206쪽
68.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다.. 209쪽
69. 소주 빨다가 갑자기 생각 난건데.. 211쪽
70. 지금 은행은 완전 개 삽질을 하는구나. 213쪽
71. IMF 달러 스왑은 곤란하다. 215쪽
72. 내일 손자가 컴퓨터를 가지러 온다. 217쪽

01. 작전명 : 여우 사냥 (1997년 당시 헤지펀드의 작전명 은어)

바야흐로 2008년 한국 경제의 상황이라는 건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사람이라는건 누구나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의 시점이라는 것이 찾아온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의 시점이라는건 수능이나 대학 나부랭이 따위를 말하는게 아니다.. 좀 살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보다 보면 그런 고민을 하던 어렸을 때의 철 모르는 고민이 얼마나 비루한 것이었는가 하는 걸 깨닫는 시점이 온다.

이건 한 나라의 경제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자본 시스템 메카니즘이라는 것은 주식 시장이 아니다... 외환>>채권>>주식시장 순이다... 그래서 외국 애들이 한국 주식 시장에서 자금을 배팅할 때는 절대로 보는 것이 외환 시장 동향이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즉 환율 = 주가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일반 자금력이 풍부한 외국인이나 기관 거래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가장 각별하게 봐야 할 것이 외환시장 동향과 환율이다..

한국 시장 자체는 결국 외환 시장에 의해서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이 핸들링 되는 구조기 때문에 거래시 모니터를 여러개 켜 두고 모니터하는게 환율 변동상황인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과도한 이상 환율 변동폭으로 등락시에는 설사 단기 수익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들은 설치면 100% 돈을 까인다는게 바로 그런 이유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설사 일주일 동안 벌었다 치더라도 그 중 8할 이상은 마지막에 거의 까이고 후회하는게 다반사인 이유가 그것이다.

지금 환율 상황상 1차 저항선은 1155원~1175원, 2차 저항선은 1205원 ~ 1225원에 맥시멈=1310원이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의 올 하반기의 예상 환율이며 지금 실제로 현장 중소 기업체에서는 다들 1300원대의 환율을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사업플랜을 재설정 하고 있다.

미국에서 구제 금융 7천억 달러로는 지금 미국발 신용 쇼크를 잠재우기에는 어렵 반푼어치도 없으며 사실상 7천억 전액을 퍼 부을 경우에 파급 효력 = 17% 밖에 안 나온다... 결국 이걸 심리적인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 진짜 내막이며 그 중에서도 일부만 지원????..

이래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은 미국발 서브 프라임 + 신용 쇼크 사태의 유럽으로의 전이가 되느냐가 가장 키 포인트인 상황에서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실제로 이미 -25% 이상 폭락세를 보이는 등의 가시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유로존에 대한 미국의 구제 금융 7천억 달러 지원과 같은 대응 구조적인 장치가 없다... 그로 인해서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압박에 따른 달러화는 강세로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거기에 7천억 달러 지원에 대한 신용 쇼크 해결에 회의적인 부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이치 뱅크의 목표 주가와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라 GE가 한때 -8%까지 폭락세가 나오는걸 버텨이 우선주 30억+ 보통주 120억 달러 추가 조달한다는 걸로 때려 막아서 간신히 최소 낙폭으로 끝냈다.

지금 상황에서 GM + GE가 동시에 빠끄덕 거렸다가는 완전 10년 아마켓돈이 될 지도 모른다는 패닉 상황에서 4번 구원타자가 직접 나서서 때려 막기는 막았지만 이걸 임시 방책일 뿐이고 차후 미국 금융시장 경색은 최소 1년 6개월 ~ 최대 3년 이상까지 보는 상황이며 달러 강세는 결국 유로에 대한 반사 작용 때문에 기인한 단기 현상일 뿐이며.. 미국 기본 경제 팬더멘털에 대한 기본적인 달러 강세를 다지는게 아니다.

환율은 지속적으로 올라 갈 수밖에 없다.. 미국 구제 금융 7천억 달러라는 것도 사실상 알만한 놈들이 보기에는 단기 약발 히로뽕 투여에 의한 임시 봉합책일 뿐이다.. 한 마디로 뺑카 치는 거라는 것이지..

1. 외국인 주식의 순매도 지속세 가속화
2. 앤 캐리의 단계적인 청산에 따른 cross 거래

3. 투신의 dynamic hedge (: 쉽게 말해서 현재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의 자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변동 장세에서 현물 자산 가치 감소를 선물 시장에서 헷징 하는 전략) + 제1금융권의 달러 자금 확보 + 기업체의 달러 매수세에 따른 달러 유동성 부족.

4. 수출 업체의 리딩/래깅 거래 전략의 구사. (: 그러니까.. 리딩=달러 외환 결제시기를 앞당기는 전략 + 래깅 = 달러결제시기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서 환차손을 줄일 때 쓰는 환리스크 전략).

그래서 월말에도 달러를 안 내놓는 이유가 그거지.. 뻔히 오를거 다 아는데 지금 결제 내다파는 놈이 미친놈들이니까...

지금 현장에서 달러가 씨가 달랐다는게 잔인하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금액이 100만 달러만 넘어가도 외상(Usance)은 물론이고 일람불까지 힘들어 졌다.. 환가료 따위가 문제가 아니다.. 신용과 상관없이 네고가 어려워져 대기업조차 은행에 직접 찾아 가야지 네고를 해 줄 정도다.. 거기에 대기업에 밀리는 신용장 거래 비율이 높은 중소기업들은 수출 어음의 현금화는 현재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나마 신용장 비율이 20%대 미만인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인 상황에 선물환 매도도 힘들다..

그 이유는 외국계 은행에서 다시 되돌려 보낸다.. 선물환 환변동 보험 같은 경우는 9월 중반 이후에 인수가 올스톱 된 상태다. 수출 보험 공사의 환변동 보험 인수 여력에도 문제가 생겼다는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금 정부에서 닥치고 수출 보험 기금을 최소 60억에서 70억 달러 이상 대폭 증액이 없이는 10월을 장담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 장장 퍼부어야 할 금액이 최소 이정도 수준이다.

1주일/30일/100일짜리 외화 단기 차입금 = 2200억 달러

수입 결제 대금 3개월 분 = 800억 달러

합산 = 3000억 달러 -->> 현재 외환 보유하고 2400억 달러 = 차익 : -600억 달러

키 포인트 = 총 외환 보유하고 2400억 달러중 미국 채권 투자 금액 =

1070억 달러 규모(사실상 현금 유동성의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

결론 : 최소 단기 채권 중 65% 이상은 현재 무조건 연장 시켜 줘야만 국내 달러 유동성의 현 수준을 유지.. 그나마.....

이런 상황에서 정부 외환 보유고를 100억 달러를 스왑 시장에 풀어서 진정 시킨다는건 한 마디로 스머프와 가가멜의 체력 싸움....

당연히 상쇄가 될 수밖에... 그래서 나오는 말이 현물 시장에 달러를 쏟아 붓겠다는 소린데 이걸 현재 운용 달러 자금 여력 상황상 사실상 땡카 수준... 이미 그럴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게 정확하다.

따라서 파급 효과는 소규모 수입 업체들과 관련 내수 업체들은 최소 -70% 이상이 이미 부도 가시권이다.. 솔직하게 이런 판국까지 와서 새삼 꿀 바른 소리를 할 수는 없고..

안타깝지만 이게 잔인한 현실이다.. 국내 경기 침체 + 환율 동시 상승 + 수입 대금 결제 봉쇄에 따른 매출 타격과 기타 환 리스크 헷징 상품의 금융 비용 상승에 따른 연쇄 도산은 이미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답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로 돌파구를 찾는 길 뿐인데.. 문제는 그나마 공략이 쉽다는 동남아 시장 또한 태국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경기 전망이 어두운 마당에.... 쉽지가 않지..

그나마 수출 업체들의 경우 바이어 자금 경색이나 부도 리스크가 높다고 볼 경우에 수출 보험에 가입해서 막아 내는 정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환율 변동이 거시 경제에 파급 여력이라는걸 보면

원/달러 환율이 100원 상승시 -->> 소비자 물가는 4개월 후에 1.3% / 금리 (3개월 기준) = +3% 상승한다고 보는게 통상 룰이다... 물론 여기에 외생 변수가 합산이 될 경우에는 변동폭이 틀려지지만 기본 모델링은 이렇다는거지.

엔/달러는 10엔 상승시 -->> 수출은 3개월 후에 - 6억 달러.. 수입은

-5억 달러 감소로 무역 수지에 파급 반사 이력이 나오게 된다.. 이 경우 국내 주가는 통상 4개월 후에 평균 -65포인트가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국내 주가 변동 추세는 단기 소스 뿐만이 아닌 엔/달러의 반사 이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원/엔 상관 관계는 엔/달러 : +10엔 상승시 -->> 원/달러 : +65원 상승한다.(4개월 후 = 120일 기준)

원래 오늘 환율의 정상 박스권 등락상으로 볼 때 정상 맥시멈 환율은 1203원 아래로 마감이 되었어야 정상이었다.. 뉴욕 역외 NDF 시장 증가 거래 가격상..

그런데 1230원대라면 이건 분명 100% 역외 헤지 펀드성 자금이 개입되어 원화 공략이 이미 가시화 되었다는 절대 반증이다..

이런 현상이 국내 가수요 + 역외 NDF 원화 공략에 따라 이상 급등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계속 올라갈 것이 이젠 거의 확실하다.

원래 아시아 시장에서 영미계 헤지 펀드 자금이 공략 하는 그룹군은 한국 원화+대만 달러 NT다. 그 중에서 현재 왜 한국이 가장 문제가 되느냐 하면 3개월 월/달러 변동률이 이건 기본 상식을 뛰어 넘는 이상 급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환율이 얼마인가 하는 것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급등락을인데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더불어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이래 가지고서는 내가 외국 양키 애들이라도 완전 밥이다.....

원래 역외 NDF에서 공략하는 곳은 런던, 뉴욕, 싱가포르의 대형 NDF시장이다.. 바로 지금 2008년 한국 원화를 공략 하는 것이 모델펀드라고 하는 헤지 펀드다.. 이런 헤지 펀드가 뉴욕 NDF 시장을 중심으로 뛰어들 펀드 수만 현재 11개다.

그런데도 환율이 저 지경이 안 되면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지..

이러니 스왑시장에 100억 달러가 아니라 200억 달러를 풀어도 모조리 다 상쇄가 되어버리지..

거기에 역외 헤지펀드의 원화 공격이 이미 가시화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런 애시 당초 빌미를 제공한 이 빌어먹을 나라 놈들이 이미 원-달러 환율 폭등이라는 추세라는걸 형성하게 만들어 버렸으니 국내 시중 은행들과 회사들은 불안하니까 닥치고 달러를 마구잡이로 사 들일 수밖에.. 왜냐고??.. 일단 살아야 하니까..

그게 절대 명제니까.

거기에 이제는 미국 애들이 모기지 때문에 금리 인하 어찌고 하니까 또 10월달에 금리 인하를 경기 때문에 한다고 냄새를 피워???...

만약 지금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치자..

그럴 경우에는 12월 달에는 살인적인 그냥 인플레이션도 아닌 하이퍼 인플레이션 체제로 접어들어서 09년 1/4 분기 4월달 넘어 갈 때는 이제 그나마 정부가 가지고 있던 물가 통제력마저 상실할 것이다..

지금 이 나라는 미친거지.. 자기들이 부동산에서 빠져 나올 구멍을 일시적으로 만들자고 금리 인하 냄새피우면서 발광을 하는데 이 경우 내년엔 한국 물가는...

아무도 장담 못한다.....

정부가 MB50 같은 개빠다귀 같은 물가통제 한다느니 어찌니 하는건 고정 환율제였던 IMF 전이었을 때나 먹히던거지.

지금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

만약 금리 인하를 해 버린다면... 무조건 이민 가라...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다... 그 때는 내년 물가는 잠바브웨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일본 물가의 1.4배~1.7배 이상은 중장기적으로 폭등할 것이다..

현재 생필품 가격 147가지 기준 대비로 필수 생필품 물가 비율 우위로는 한국 : 일본 = 1.08 : 1 이다..

이미 물가가 일본 대비로 역전이 된 상황이다.. 교통비 + 주거비를 제

외한 나머지 물가는 이미 역전 된지 오래다..

그 때는 애국심이고 나발이고... 살기 위해서라도 나가야 해... 생존의 문제라는거지... 막말로 스타킹 쓰고 편의점 가서 라면이나 빵 같은걸 털 자신 있어???

그건 아니란 거지..

국제 유가 안정 되니까 물가안정 될꺼라는 개소리는 믿으면 안 된다.. 이미 이 나라는 물가가 국제 유가로 핸들링 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건 예전에 말해 줬던 사실이야..

그건 80년대 ~ 90년대 초반에나 먹히던 얘가지.. 물가 반사 이력 = 국제 유가 : 환율 = 3 : 7... 달러인덱스 등락 + 유가 변동폭까지 고려시 3.7 : 6.3.... 수준 정도야.....

그런데도 아직도 유가 = 물가라는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물가는 끄떡 없다는 헛소리를 하는 나라지..

앞으로 보수적으로 봤을때 올해 맥시멈 환율 = 1310원... 엔/달러 변동시 1345원 내에서 조정을 받을 것이고 또 일선 회사들은 이미 다 그렇게 알고 있다..

보수적 관점에서 이 정도 박스권 수준이라는 것이며 원화 공격이 보다 더 외생 변수 요건에 의해 공격적으로 가시화 되서 탈 박스권 현상으로까지 보일 경우에는....

한국의 미래는 파멸이다... 진짜 이 말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 이젠 그걸 10년 전처럼 극복을 할 여력이 없다.. 97년 IMF를 극복한 것은 절대로 한국 경제의 팬더멘털 때문이 아니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미국경제 호황 + 달러 외화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이클상 변곡점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만약 그 상태가 한 번 더 올 경우.. 지금과 같은 국제적인 자금 유동성 경색인 현재의 조건하에서... 그건 진정한 파멸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건 정신력이나 금 모으기 같은 그 판 나부랭이 문제가 아니다.. 글로벌 경제 시스템상 구조적으로 한국 경제가 그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상황 상으로는 그런 위기를 극복할 여력 자체가 이젠 없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3개월... 이 3개월이 10년을 넘어 20, 30년 이후의 한국 경제 미래의 모든걸 판가름할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돌아가는 걸 잘 상황 판단을 해서 미래를 각자 점치기 바란다...

왜냐면 이 나라는 언제나 위기가 올 시에 언제나 제일 밑바닥으로 부터의 희생을 요구한 기형적인 나라라는걸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말을 하는 것이다.

이젠... 두 번의 희생이라는건... 없다...

지금 정부 애들은 심각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두 번 다시 알고 속아줄꺼라는 기대는 이제 무리라는걸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야...

이미 심각한 수준의 달러 수급 빨간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 지금 10월 2일의 현재의 한국 경제다...

이런 비정한 현실을 설사 현실이 잔인하다고 할지라도 각자 알고는 있어야 한다... 그게 이 땅에 사는 죄값이라면 죄값이다.....

외면하려고도... 피하려고도 하지 마라... 비가 내리면 다 맞으라는 각하의 말대로...

100% 리얼하게 다 까 발려야 한다...

강만수의 거짓말을 따지고 들자면 한이 없기에 그냥 일단 넘어 간다... 상당 수준의 거짓말로 지금 기만책을 쓰고 있는게 이 나라라는건 알고 있어야 한다... 그게 현실이 아니니까 문제라는거지..

그냥 술 한잔 빨고 워드 연습 한번 해 봤어...

한국은... 그림이 너무나 뻔하게 보여... 농담이나 비꼬려는게 아니라 내가 외국인이라면 한국 시장만큼 털어 먹기 쉬운 시장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없다고 봐야 정답이지..

문제는 환율 변동에 따른 물가 인플레이 폭등과 자산 디플레이션 충격을 얼마만큼 일반 국민들이 감내해 줄 수 있는 인내력이라는게 남아 있느냐가 지금 현재로는 핵심인 것이겠지..

- 고구마 파는 늙은이가-

<2008년10월02일>

02. 10월 달러 위기설의 파급 효과

지금 나오는 말이 이른바 10월 달러 위기설이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 10월달 안에만 한국 국내 시중 제1금융권 내에서 단기 외화 차입금 + 채권으로 갚아야 할 돈이 -32억 달러가 넘어 간다.

그래서 10월이 시작되자마자 미친 듯이 달러를 거의 사재기에 가깝게 사 모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앞으로 11월... 12월에도 마찬가지다..

9월 외환 보유액은 -225억 달러가 줄어들었다... 거기에 8월까지 경상수지가 -125억 달러가 넘어 간다...

거기에 이미 미국 실물 경기 지표는 어제 봐서 알겠지만 최악의 도소매 판매 감소와 실업 여파에 지금 미국 본토에서도 신용 경색으로 은행 대출이 전면 모조리 다 중단 되었다..

그걸 한국에 있는 은행들도 다 모니터 하고 보고 있다.. 외국인 애들은 셀 코리아로 달러 유출을 가속화 시키면서 거기에 이제는 역외 헤지펀드까지 원화를 공격 하면서 물어뜯고 있다..

사자를 한 마리 잡기 위해서는 똑똑한 사냥개 10 마리면 충분하다.. 처음에는 지속적으로 덤벼들면서 진을 뺀다.. 그러다 나중에 주저 않으면 총공세 한 방으로 사자를 해치우는 것이다..

지금 또 다시 그 짝으로 몰리고 있다... 벌써 부터 민간 해외 송금 확대 제한 얘기를 떠들며 대면서 티비에 나와서는 꼬떡없다는 소리다..

9월 26일에서 10월인 지금까지 100억 달러 이상을 스왑 시장에 미친 듯이 풀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상황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은행 지점들조차도 미국 본토에서 달러를 공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효과는 단 3일도 못 갔다.. 모조리 다 상쇄 되었다..

미국 구제 금융 7천억 달러를 지원하니까 곧 국내 달러 유동성이 풀릴거라는 소리만 이명박 각하와 강만수는 앵무새 떠들듯이 떠들고 있다.. 그런데도 환율은 30원~40원씩 널뛰기를 하고 있다..

그건 그만한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비상시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미 달러 스왑 국가 그룹이라는게 있다. 미 FRB가 전 세계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 시스템에 한국은 제외되어 있다..

EU = 2400억 달러.. 영국 = 600억.. 일본 = 1200억.. 호주 = 300억.. 심지어는 이제 덴마크 + 노르웨이 + 스웨덴 = 600억 달러로 때려 막을 예정이다..

그런데 한국은 제외란다.. 그 이유가 한국에서는 외환 보유고가 2400억 달러나 있으니 끄떡없단다.. 정부 애들도 안 될꺼 같다고 한다..

그럼.. 일본은???.. 영국은???..

아무리 봐도 도저히 시중 은행 애들 대가리로는 이해불가능이다... 일본만 보더라도 외환 보유국 = 9967억 달러 수준이다.

그런데도 유동성이 1200억 달러 이상 퍼 부었다.. 한국은 쇠고기 협상할 때부터 1급 동맹이라며???

거기에 말이 빗 좋은 개살구 2400억 달러지 이미 단기 외채 수준은 이미 위험 수위로 우려할 만한 수준에 근접해 있다..

이번 10월에 11일~15일까지 워싱턴에서 IMF + 세계은행이 합동연차회의라는걸 각국 중앙은행총재와 재무부 장관이 참가를 하게 된다.. 강만수와 한은 총재도 간다..

이 때... 만약 이 달러 스왑이 거부당할 경우에는... 한국은 10월 하순부터 대대적인 역외 헤지펀드의 추가공격을 감수해내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애비라도 미국에 가서 이 긴급 달러 유동성 스왑 거래가 가능하게 로비해야 한다.

이미 한국은행에서는 사실상 국유화 되어 있는 패니매 + 프레디 맥에 거의 380억 달러의 채권이 있다.. 이 채권을 담보로 원/달러 스왑 요청이 만약 이번 달에 불가능할 경우 심리적 시장 패닉은 배로 증가할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런 남은 날짜가 불과 이번 10월... 보름도 안 남았다..

그래서 지금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한미일 재무 장관 회담이란다... 문제는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의 거의 10배에서 15 배 이상의 미국 서브프라임 손실 타격을 받은 상황에 지원 여력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 달러 스왑으로 달러 유동성까지 지원 받은 마당에 지원 여력도 없을 뿐더러 남은건 중국 통화 스왑인데 이걸 한-미 간 정치적 고려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

그럼 과연 미국 본토에서는 근원적인 핵심은 주택 가격 추세는 어떠한가...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다..

이미 서브프라임 연체율이 24%가 넘어가는 판국에 그 부실은 월 스트리트 투자 IB들인 3,4,5위를 모조리 다 간판 내리게 하고 이젠 미국 지방 은행으로 확산 일로에 있다..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이젠 앞으로 2009년~2010년까지 추가로 -25%의 추가 하락이 되고 나서야 진정 국면의 정상 거래가가 형성될 것이다.. 지금 현재 장부상 서브프라임 손실액 = -5000억 달러..

잠재 추가 부실 = -1조 5천억 달러 수준...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산층을 중심으로 소비를 줄이고 미국 저축률이 상승하면서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일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실물 경제 타격을 받게 된다..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제 경기 변동에 지금과 같이 잘못 대응했을 경우의 파급 효과라는건 살인적인 내수 경기 타격으로 돌아오게 된다..

더구나 한국 경제의 현재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가구당 부채... 660조...

이제 97년과 다른 이유는 97년의 경우에는 기업 부채가 문제가 되었지만 그 10년 후인 지금 상황은 가계별 부채가 시한폭탄이 되었다.

그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현재 총 가구 수중에 28%~30%가 빚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 5분위 격차는 이미 7배가 넘게

벌어진 상황에서 1분위 상위 계층부터 최하위 5분위 계층까지 중에서 하위 40%는 매월 적자 수준이 평균 -45만원이 넘어 가고 있다...

한 마디로 돈을 벌어도 현재 인플레이션 + 금융 부채 비용으로 모조리 다 상쇄가 되서 생계형 대출이나 신용 카드 같은 외상 거래 위주로 가게가 현상 유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중 은행의 달러 유동성 위기와 PF 대출의 추가 부실 압력은 추가적인 대출 금리 인상 압박 요인으로 소비를 더더욱 제한한다..

지금 동네마다 음식점, 목욕탕, 카센터, 옷가게, 전자제품 대리점.. 심지어는 이제 동네 병원들까지도 임시 휴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2008년 2/4분기까지 총 자영업자수는 594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지금 말 그대로 제 2차 자영업 구조 조정 단계다.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들 중에서 샘플링으로 보고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게 4대 생계형 자영업자라고 해서 도매 + 소매 + 숙박 +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금융권 대출 분석을 해 보면 3년으로 끊었을 때 56조 4천억 --> 83조로 47%가 폭등한 상황이다...

가계 대출 660조 중에서 36%가 주택 담보 대출이다.. 이 경우 현재의 자산 디플레이션의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킨다.. 한 마디로 자산 담보 가치 감소에 따른 리스크 비용의 증가로 추가 담보 요구가 생긴다는 사실이다... 아직까지는 일단 감내할 수준이지만 이런 상태가 내년 6월을 넘기면 문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미 한국은 1990년대에 비해서 중산층의 비율이 -18% 이상이 줄어들고 여기에 IMF를 거치면서 서민+극빈층 비율이 총 인구 대비 10% 이상 계층 변동이 생겼다..

그럼... 문제는 뭐냐... 초 양극화 현상의 도래... 이미 한계 계층이라고 할 만한 비율이 5.6%를 넘어 가고 있다.. 5% 하면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숫자로만 따져도 엄청난 숫자지.. 그렇다고... 다 국외 추방으로 저기 만주 같은 데로 보낼건 아니잖아???

주택 담보 비율은 높고.. 대출 금리는 추가로 계속 올라간다.. 소득은

감소하고 인플레이션이 이미 소득 수준을 증가해서 사실상 일을 해도... 마이너스... 적자 가구 숫자의 폭발적 증가..

거기에 문제는 중소기업... 미국발 쇼크가 실물 경제로 전이 될 경우 대기업들의 중소기업 쥐어짜기로 대기업들의 영업 이익 보존을 할려는건 안 봐도 비디오.. 정부에서 중소기업 2천개를 선별 지원 하네 마네 떠들어도 본격적인 쥐어짜기가 시작되면... 그 회사 운전비용 + 원자재비용 + 대기업 납품 단가 압박으로 중소기업 애들이 대기업 손실을 보존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빚 좋은 개살구로 중소기업 지원 어찌내 떠들어도... 정부 ==>> 중소기업 지원 ==>>> 대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는 구조란 거지... 이런 식이라면?... 3년내 과연 절반이나 남아날까???

기본적으로 MB 노믹스라는 것은 기존에 신자유주의 모델에 근거한 감세 효과 + 규제 완화 + 민영화 + 개방주의 + 박정희식 경제 모델...

그런데 문제는 이미 미국+유럽.. 심지어는 일본조차 U턴... 정부 규제 강화와 금융산업 규제로 정책 선화를 한 마당에 지금 말 그대로 국제화를 역행 할 경우?... 핫 머니의 표적이 되는거지..

그나마 마지막 남은 유동성 시장 뜯어 먹으려고 하이에나처럼 다 달려들텐데...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부 규모가 OECD 회원국들 중에 제일 작은 수준이며 사회 안전망과 복지비 지출은 그야 말로 최하위권 수준에 종부세 감세를 통한 세수 부족분 2조 가량이 구멍이 난 것은 이미 복지비 예산 삭감과 지방 자치제 재원 조달 축소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곳 중 한 군데가... 광주, 대구, 부산, 강릉..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노인 복지 예산 축소로... 말 그대로 올 겨울 나가 죽어야 할 판국.. 거기에 부산은 전국 최하위의 예산 자립도를 가진 지역....

한 마디로 자기 목에 칼을 겨눈 셈이지...

아마 이걸 아니라고는 말 못할 것이다... 내일 구청만 가보더라도 내 등에 비수를 박았다는 자료들이 산더미 같이 많이 보여줄테니까..

거기에 자립형 사립고에 특수 목적고.. 기숙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국제 중학교.. 참 많기도 많구나.. 이젠 헛갈리기까지 하네.. 2010년부터는 고교선택제 시행...

이런 고교가 10%를 넘어 가면 말 그대로 일반 서민들의 경우는 선택권은 이제 없다...

말 그대로 완벽한 사회 계급화의 완성 단계가 2010년~2012년 사이에 그 구조적 틀이 확립 될 것이다..

말 그대로 사회적 선택권의 박탈이라는 기회비용이 한국에서는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아직 실감이 안나겠지.. 한 마디로 돈 없으면 아무리 공부하고 노력해도 영원히 밑바닥이라는 소리지... 잔인하게 말해서.....

이런 식이라면... 만약 내거 지금 고등학생이라면... 난 수능이나 대학을 포기 한다... 그 대신에 실전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같은 실전 외국어를 그 3년 동안 입시와는 전혀 다르게 언어 + 기술을 배워서 이민을 갈 준비를 할 것이다..

젊을수록 유리하다... 지금 앞으로 이 나라는 선택의 기회라는걸 더욱더 철저하게 봉쇄당할 것이다.

이 경우의 남은 선택은... 결국 국외 탈출인 것이다... 말 그대로 밑바닥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 거기에 어설프게 공부할 바에는 차라리 학교 입시를 포기하고 그 3년간 돌파구를 찾을 길을 미리 뚫어 나가는게 차별화 경쟁력에서 우위조건이라는 거지..

줄 세워서 상위 10% 커트라인으로 짜르겠다는데... 뭘 더 공부하나고... 말 그대로 지금 왕 + 귀족 + 평민 + 노예로 짜르겠다는건데..

서민가정의 자녀들은 이 서열구조에서 어디쯤 위치할까. 학교 문을 나서면 죽집게 과외는커녕 어려운 집안을 돕기 위해 일터로 향해야 하는 학생들이 사교육의 광풍 속에서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미 10대 애들은 음식점이나 주유소에서 중요한 노동력이 된지 오래

다.. 5명에 1명 가까이 성희롱을 경험했고, 밤새 일한 임금조차 못 받은 경우도 4명에 1명이었다. 2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

설사 드라마틱하게 우여곡절 끝에 대학에 입학한다고 해도 그들은 누구처럼 어학연수를 위해 자발적으로 학교를 쉴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등록금이 없어 강제로 휴학하고 일하러 가야 한다.

어렵게 대학을 나와 취직은 물론이고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솔직하게 극사실주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그 상태로는 솔직히 미래가 없다.

올 1~3월 중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10만4000원으로 1년간 6% 증가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0.1% 감소한 127만2000원이었다.. 이 정도면 그나마도 다행이다.

학력이 고졸이면 신분상승의 꿈은 일찌감치 접어야 한다. 제조업 부문에서 대졸 이상 근로자와 고졸 근로자 간 임금격차는 1995년 38%에서 2005년 51%로 벌어졌고, 비생산직/생산직 근로자 간 임금격차도 29%에서 42%로 확대됐다.

결국 빚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1/4분기 중 가계대출과 신용카드를 합한 가계신용 잔액은 640조472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 5534억원 늘었다. 1997년 4/4분기보다 11배 이상 많다.

가계 빚이 늘면서 파산도 급증하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올 1~7월 현재 7만1654건이었다. 2004년 이래 매년 급증, 2007년에는 15만4039건으로 사상 최고치다.

이 와중에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정부지원을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국적으로 150만 명을 넘어섰다.

오늘을 사는 한국사회의 서민들은 자녀들에게 정상적인 한국 표준의 부모노릇을 하려면 그야말로 신체 장기라도 내다 팔아도 모자를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가 고등학생이라면???... 농담 하나도 안치고... 일본어든 중국어든 하나라도... 시간이 되면 2개를 수업시간이고

화장실이고 안 가리고 가지고 다니면서 완벽하게 배울 것이다..

그 다음에 써 먹을 기술 이민이나 밥벌이 가능한 기술을 배우고 현지 정착금을 한 6개월 ~ 1년 정도 버틸 돈 마련해서 탈출할 것이다..

내가 한국을 싫어해서냐고?... 아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구조상 그 방법뿐이기 때문이야... 군대를 갔다 와야 한다면... 군대 가서도 일반 사병이 하사관 지원해서 돈 모으는 방법도 있더구만..

그렇게 4년 단기 하사라도 일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튀지...

지금 이정도라는거지... 근거 없는 장미빛 미래 설계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차갑고 비정한 현실 문제 인식이 우선이다.....

학생들... 알겠지???

지금 내 학교 수준이나 내 성적이 탑 클래스 수준도 아니다..할 정도면... 앓싸리... 빨리 핸들 돌려라..

그게 니들이 살아남는 길이다... 나중에 떡 사들고 고맙다고 절을 할 꺼다...

학교에만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

지금 아마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실물 경제로 가시적인 파급 현상이 눈에 띄게 보일꺼야..

다른 애한테 말해 봐야... 미쳤다는 소리 밖에 안 들으니까... 아는 놈들만 가족들끼리 쥐도 새도 모르게 각자 준비해서 살길 찾으려 한다..

이젠 그 방법뿐이야... 애써 나가서 이런 말 떠들 필요도 없어.... 그런 말 하는 자기 스스로만 또라이 되는 거니까..

10월 중순에 미국 가서 달러 차입해 왔다는 소식 없거든... 때가 왔음을 알고 차분히 준비 하는 자세를 가지면 되는 것이야.

괜히 오버할 필요도 없고... 설치면서 남 설득할 생각일랑 자기 가족

아니면 아예 할 생각도 하지 말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

과연 나는 애국심이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따지기 이전에.. 과연 나는 이 사회 매트릭스 체제 안에서 이 상태로 저가의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일개미로 이런 틀 안에서 살다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빠져 나와서 생존을 모색할 것인가..

잘 생각해 볼 문제야... 이걸 이민을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는 이런 틀에서 빠져 나오면 당연히 자갈밭이지...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아니니까.

그건 각오 해야지.. 하지만 누가 내 치즈를 먹었는가?..였나??? (갑자기.. 치매가..)를 보면... 처음은 두렵더라도 그게 정답이라는걸 느끼는 단계가 올 것이야..

만약 두려움에 그런 행동조차 포기 한다면야.. 뭐... 평생 일개미로 사는 수 밖에... 어찌 보면 그것도 나름대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보람찬 일일수도 있겠지...

국가라는건... 국민 개개인이 살고 나서 국가가 있는 것이다...

국가가 먼저가 아니라 개인이 먼저라는 소리지... 개인이 살고 난 다음에야 애국심이고 나발이고가 있는거야..

내가 당장 망하기 직전인데 국가가 등 돌리면 그냥 노숙자로 나가 뒤흔어야지..

엘리트 조직이라는건 그 구성원 개개인이 훌륭한 자질을 갖추었을 때야 비로소 그 조직체의 잠재력을 발휘해서 엘리트 조직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개개인이 당장 위기로... 노예로 사회에서 그 구조적인 틀에 짜 맞춰진 삶을 살도록 요구 받는 이 현실 상황에서 국가가 어찌고 애국심 타령 하는것 자체가 한심하다는 거다..

거기에 또 완벽하게 이용당하는 것하며....

이런 말을 하면 또 반 매국노라고 하겠지만... 이게 진짜 비정한 현실이야....

"애국은 사악한 자의 미덕이다" -오스카 와일드-

이 말은 근현대 한국사를 보면 극적으로 이 한국이라는 사회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해 주는 핵심이지...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이젠 여태까지 학교에서 세뇌 교육을 받아 오면서 애국심에 찼어 있는 그런 경직된 사고방식에서 각성을 하고 살길이라는걸 찾아나설 때라는 것이지..

항상 이 나라는 케네디 들먹거리면서 국가가 내게 뭘 해 줄 건가를 생각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 뭘 해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 하라고 하던 그 말로 애들 세뇌 시켜서 희생만 강요한 나라니까.

지금 단계는... 각성이라는걸 할 단계야... 이런 의식적인 각성 단계를 거친 후에야 그 다음에 살길이 보이는 거니까....

내가 잘 먹고 살 살아야만 애국이고 국가에 대한 봉사고 나발이고 할 여력이라는게 생기는 것이다.. 이 점...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야..

이 이율배반적인 이중적인 나라에서 그나마 사람으로서 살려면 말이지.....

-고구마 파는 늙은이가-

셋!!... 이제 부터는 쥐도 새도 모르게.....

침묵은 금이다...

뭘 말인지 알겠지??????????????

항상... 입 조심... 진짜 침묵은 돈인 세상이다... 이젠 세상이 변한거

지...

요즘은 알아도 모른다고 하고, 몰라도 모른다고 하고... 술 사줄테니까
얘기하자고 꼬시면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집으로 도망치고..

셔터.. 마우스... 입에 지퍼 채우고 차분히... 각자 빨리 10년 플랜을
짜야 할 시간이 왔다..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은 일종의 과도기적인 변혁기인 싸이클에 살고
있으니까..

<2008년10월03일>

03. 공급주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미국은 신(GOD)보다 달러의 힘을 더 믿는다.."

세계 최초의 근대 화폐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이 나온 것은 1609년 암스테르담 은행에서 금으로 태환을 보증하는 증서인 지폐를 최초로 발행하고 부터였다... 그 1600~1700년에 걸친 상업 무역 패권을 네덜란드가 손아귀에 거머쥔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 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세계 최초로 화폐라는 걸 대량 유통시킴으로써 가능했으며 유가증권과 주식 거래라는 근대 개념과 세계 최초의 은행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낸 것 또한 네덜란드 상인 그룹이었다..

흔히 말하는 세계 3대 상인이라 함은.. 유태인.. 화교도들과 더불어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렇기에 그 쥐꼬리만한 나라가 그 당시 전세계 상업 무역 거래량의 50% 이상을 독점 거래 하면서 막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마치 현대판 팩스 아메리카의 글로벌 리더 경제의 핵심 국가였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이 지폐로 말미암아 네덜란드에서만큼은 통화량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해줄 수 있었다...

존 로는 이 점에 착안하여서 과리에서 당시만 하여도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미시시피의 서쪽 루이지애나 지방의 땅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금으로 바꾸어줄 수 있는 태환 가능할 수 있는 증서를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유럽세계에서 최초로 발행된 불환지폐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당시 루이 14세는 엄청난 재정적자도 간신히 매울 수 있었다. 그 당시 프랑스 루이 14세는 유럽 패권 장악을 위해서 재임 기간에만 50여 차례가 넘는 전쟁을 치뤄내야 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에는 반드시 막대한 전비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바로 정부 재정 적자로 나타났다... 이 때 나온 놈이 존 로가 쓴 방법이 미국 중서부 루이지애나 프랑스령 식민지에 묻혀 있는 일종의 "가상의 금"이라는 걸 기반으로 불태환 지폐라는걸 만들어서 그 엄청난 전비를 때려 막고 그 당시 프랑스 경제 기반을 유지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화폐 발행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세계 최초의 투기적인 자본 투기라는 것이 처음 발생한 것도 네덜란드의 튜립 상품 투기였으며 화폐 유통에 의한 인플레이션 유발이라는 현상이 세계 최초로 나타난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지폐의 발행고가 지나치게 늘어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고, 사람들은 루이지애나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금으로 지폐를 바꾸어달라고 쇠도하게 되었다.. 당연히 존은 국외 탈출..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폭발적 증가는 차후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세계최초의 불환지폐발행과 화폐 발행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발 현상... 자본에 의한 투기적인 상품 거래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게 되면서 자본주의 400년의 시스템적인 순환 카테고리의 구조적 틀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후... 제 1차 세계 대전을 거쳐서..

1929년의 뉴욕 주식시장 붕괴로 촉발된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가 뉴딜정책을 추진한 이래 꽤 오랜 시간동안 서구 경제학의 주된 흐름은 케인즈 경제학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고 꾸준한 호황을 구가하도록 뒷받침하여준 이 이론은 경제적 과정을 잠재생산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보는 18세기 후반 이후의 고전 경제학과는 달리, 상품에 대한 총수요를 강조 하였다. 그러면서 민간부문 못지않

게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여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한 개입을 정당화 시켜주었다.

하지만 1차 오일쇼크의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를 거치면서 이에 대한 문제인식이라는게 생겼다..

즉,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만이 주장한 통화주의, 루카스 학파의 합리적 기대이론, 신고전주의 경제학등 수요측면과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였던 케인즈 경제학에 대비되는 공급측면과 민간부문의 자율을 강조하는 이론들이 나오게 되었다...

1960년대 박정희의 주도로 제1차 5개년 계획이라는게 나오면서 한국은 정부 주도하의 산업화 플랜을 가속화 시키게 된다... 그런 이런 기본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것이다..

이런 공급주의 경제학 이론들은 1970년대 후반부터 2008년 현재까지 특히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미국 공화당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어 왔다.

이 때 한국은 1970년대 후반... 바야흐로 박정희가 암살로 죽고 80년대를 거치면서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으로 가면서 우루과이라운드를 시작으로 개방과 이 시기에 결정적으로 대기업 주도의 공급자 우선주의 정책으로 국내 대기업들은 폭발적인 산업자본의 확장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부문에 많은 자율을 주어서 공급자들과 생산자들에게 유리한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공급주의 경제학이라고도 한다. 실제로 지미 카터 시절의 폴 볼커 FRB 의장으로 총대를 맨 그 때부터 그린스펀.. 현재의 버냉키까지 197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미국 금융계의 핵심 선도 이론이라는 것은 모두 공급주의 경제학에 기반을 둔 것들이다..

그래서 97년 IMF 체제에 편입이 되면서부터 그 당시에 그렇게 귀에 못 대가리 박히게 들었던 신자유주의 +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경제 시스템 체제의 편입... 그 기본 백그라운드의 시스템적인 기본 메커니즘 골격이 바로 이것이다..

한국이라도 절대로 독립 시장이라고 보면 그건 오산이다... 무역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글로벌 실물 경제 사이클도 이젠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시스템이 지금 2008년 한국이라는 나라다..

이들이 미국 경제를 주도하는 동안 정부는 감세가 투자를 활성화해서 결국에는 세입도 증가할 거라는 이른바 래퍼효과(Laffer Effect)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감세를 감행하게 된다. 그런 조치들이 당시 경제상태에 있던 경제에 약간의 간접 효과로 나타난 것은 일부 있다.... 하지만 뒤에 엄청난 재정적자와 20세기 초반수준으로 떨어진 미국사회의 심한 빈부차를 남기면서 막대한 후유증을 유발 시키게 된다..

심지어는 올해 부시가 1320억 달러 이상을 감세로 집집마다 수표로 보내 준다고 하면서까지 때려 박아도 그 효과가 한 달도 안가서 히로 뽕 약발이 안 먹혀드는.. 말 그대로 이미 폐기 처리된 쓰레기 이론이 한국에선 버젓하게 벌어지는 희대의 개 사기극을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구조적 모순이 누적되어 폭발한 것이 2007년 5월에 표면화되기 시작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문제가 다. 최근의 미국 금융시장을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게 만든 이 문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정부와 학계를 지배해왔던 공급주의 경제학과 이에 바탕을 두고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미국식 자본주의의 한계 상황의 끝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 주는 극단적인 사실상 완결편이 지금 미국 상황이다...

애시당초 수요 = 공급이 일치하여 균형을 이루는 시장이라는 것은 이론 경제학에서나... 학교 실험실에서나 시뮬레이션으로만 존재하는 신기루다... 실물 경제 파급 현상은 전혀 외생 변수 요인에 의해 180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는 어느 쪽이 되었건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할 때에만 사회적인 비용이라는걸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쌍방간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는게 증명이 되었다..

즉.. 한 쪽이 기울면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해서 쌍방간 밸런스를 조절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월가의 투자은행들

이 첨단금융기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험을 분산하였다는 자산유동화 증권(ABS), 부채담보부채권(CDO), 신용 디폴트 스왑(CDS) 같은 파생금융상품들은 단지 위험을 전가하고 자산가치의 하락을 감추기 위해서 복잡한 수식과 도표로 포장한 ‘개사기’일 뿐이었다.

마치 18세기 초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던 가상의 금을 담보로 지폐를 발행하였듯이, 갚을 능력도 없는 이들에게 함부로 돈을 빌려준 다음 그 빚을 잘게 나누어서 여러 사람들과 세계 여러 나라에 마치 안전한 자산인 양 태연히 수수료를 챙기면서 판매를 한 것이다. 이런 파생금융상품들의 문제점은, 만약 돈을 떼인다 하더라도 자신이 손해날 것이 없으니, 당연히 돈을 빌려줄 때에도 엄격하게 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고, 채권의 회수를 위해서도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실화하기 쉽다는 점에 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감추면서 열심히 돈장사를 하여서 제3세계의 투자자들을 등친 투자은행들의 모럴해저드가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부실사태를 가져오고, 중국에 가서는 월 스트리트 투자 IB 3위, 4위, 5위가 모조리 다 박살이 나고 상업 은행들이 빼끄덕거리며 AIG가 정부 지분 매입 75%로 국유화 되는 개 막장의 붕괴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공급주의 경제학자들이 그렇게도 외쳤던 '규제의 철폐'가 시장 참가자들의 도덕적인 해이를 불러왔고 마지막에 가서는 시장을 패닉적 붕괴에 몰아넣었다..

지금 그 한국판 월스트리트 몰락 시즌 2의 예비 전주곡인 자통법 시행이 내년 2월인가 3월부터 한단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공단이나 각종 금융기관들도 그런 말도 안되는 사기 종이쪽지를 안전하다고 믿고 수백억달러씩 국민이 맡긴 돈을 들여서 사들여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며칠전에 들었던 가장 황당한 말 중 하나가.. 정부의 미국 채권을 99% 이상 단 2틀 안에 전액 현금화가 가능하니까 걱정 말라는 별 희안한 소리였다.. 지금 한국은행이 투자한 380억 달러 미국 국채

가... 과연 단기간에... 그것도 단 이틀 만에 전액 현금화 되는걸...

미국 애들이 가만 놔 둘꺼 같아?... 중국 + 일본 애들은 눈 뜬 장님들이라서 아직 손에 쥐고 있는게 아니란 거지... 한 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희롱한다..

말처럼 현금 회수가 그렇게 되는게 절대로 아니다.. 한 쪽이 그런 식으로 자금 회수에 들어가면 안 그래도 지금 눈치 서로 보면서 못 팔아 치우고 찢찢 매는 판국에 그런 빌미를 주는 한국 대통령실로 장난이 아니라 새벽에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금융자본애들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강요하였는지 잊어서는 안된다. 고작 수백억 달러를 빌려주면서,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이 망하는 것을 전혀 정부가 나서서 구제하지 못하게 강제하였다.

공적자금의 투입도 성업공사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만 가능하였지, 정부가 직접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하는 것은 시장의 질서에 어긋난다고 하여서 엄격하게 제한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고, 가정이 붕괴되고, 재산을 잃고 길거리 노숙자로 내몰렸다..

그러던 미국이 이제 2008년에 와서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망하게 된 데 대해서는 정부에게 태연히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서 구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그런 파렴치한 짓을 당당하게 하는데도 세계 어떤 나라도,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제는 스티글리츠나 폴 그루그만 같은 애들은 이번 미국 월가의 공황상태를 가리켜서 공급주의 경제학의 종말이라면서 지금 정부 규제 법안을 바닥부터 모조리 다 뜯어 고쳐야 한다고 들고 일어났다..

시장에서의 실패가 드러났으니, 더 이상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에 맡기는 식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미 실패한 이론이라는 것이다..

시장이 건전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에 공적인 정부의 개입과 적당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 시장기능으로 적절히 공급을 할 수 없거나 독과점의 위험이 큰 이른바 공공재인 철도, 교통, 항만, 전력, 우

편, 수도 같은 대상들은 과감히 국유화 혹은 공적 생산을 통해서 적절한 통제하에 생산해야만 한다고 미국에서부터 지금 쏟아져 나오는 논문에 보고서들이 수십톤에 폭발 일보 직전이다..

세금도 적절한 정도까지는 올려야하고, 부의 적절한 재분배와 세습의 차단을 위해서 정부가 과감하게 개입해야만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서 당연한 일이라고 허구헌날 떠들던 그 미국식 자본주의 본토인 미국에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

레이건과 대척로 대표되는 지난 30년간의 공급주의 경제학 시대는 끝났다..

하지만 대부분 미국의 공급주의 경제학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큰소리를 치고 있는 강만수 이하 지금 한국 정부 경제 고위 공무원 애들은 아직 이런 세계적인 변화의 조류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고위 공무원 애들치고 80년대 국비로 미국 유학 안 다녀온 애들이 없다... 한국처럼 법대 출신을 경제 장관으로 앉히는 이런 희안한 기형적인 나라에서 조차 강만수도 미국에 가서 어찌 되었건 간에 이런 공급주의 경제 이론을 배워 온 교과서 이론 주의자의 선두 주자 중 한 명이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최소 3년~5년 이상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다. 싸이클상 분명히 이제 수정주의 시스템의 재정립 현상이라는 것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극복은 시장 논리대로 이루어질 것은 당연하겠지..

지구가 망하지 않는 이상 경제는 굴러 가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줄여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제는 세계화 추세에 역주행 이론이 되 버린 이런 황당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게임의 룰이 바뀌는데 새로 바뀐 포커판에서 예전 방식으로 포커를 치면....

말 그대로 쟁통되는건 한순간인 것이지.. 말 그대로 호구.....

지금은 민영화나 자통법을 최소한 3년 이상 보류 시키고 감세안이 아

닌 다른 방식으로 경기 부양을 하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전혀 반 세계화 노선으로 가고있는게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다.

잘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적인 변화기에는 이런 돌아가는 판떼기를 잘 봐야지 정부한테 대 놓고 사기를 안 당하는 거니까..

미국+유럽+일본부터 심지어는 대만까지 지금 대대적인 금융 규제 개혁안에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 민영화의 샘플링 대상인 1980년대 일본 민영화 플랜이 지금 일본 현지에서조차도 잘못되었다는 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 웃기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을 방치 했다가는 3~5년 후에 세계 경제 침체기에서 회복이 되는 그 때 가서... 한국의 경제 침체는 그 때부터 가속화 될 수도 있다..

지금 한국의 경제 위기는 미국과 똑같은 현상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금융권에서의 위기 ==>> 메인 스트리트(=실물 경제)로 전염확산일로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마지막에는 끝장인게야..

당연히 한국 경제가 망하기를 바라는 놈은 단 한명도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경제 망해서 실물 자산 폭락으로 손해 보고 싶어 하는 미친놈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

아무리 이명박이 싫다고... 그런 개인 정치적 성향 문제 나부랭이 때문에 나 자신의 자산 손실을 감수하면서 까지는 아니잖아???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는 그게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이라면 빠져 나올 타이밍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거야..

아니면 그에 대한 방어 전략을 세우든가... 말 그대로... 상위 10%만 다 먹고 나가 떨어지겠다는게.. 90%가 그 폭탄 다 맞아 죽으라고는 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

이런 생존 플랜이 다른 애들인 제 3자가 보기에는 마치 나라 망하라고 고사라도 지내는 반 역적들처럼 보이는거지... 실제로는 전혀 아닌

데도 말이지..

살 놈들은 살아야지... 이젠 뭐 한 배에 타고서 다 같이 돼지는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허구헌날 좌빨 타령으로 싸그리 몰아세우려고나 하니 원..

난... 죽기 싫다 이거야... 세상 천지에 뻔히 아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죽은 놈이 어딴냐.

돈은 돈이고 애국은 애국이야... 돈 = 애국이라는 공식으로 예전 97년 처럼 또 손해보는게 정당하다는 식으로 고통분담 어찌고 하는 개소리 는 이젠 굿 바이란 애기지..

이젠 10원도 손해 못 보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거야..

"숯... 침묵은 금이다... 절대 잊지 마시기를..."

이젠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나만 미친 놈 되니까...

술 마시고 와서 쏠려니까 이젠 안 디겠다... 그냥 소설 한번 써 봤어... 고구마에 소주 마시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고구마 캐는 늙은이가 -

중부세 세수 2조8000억원 중 1조1000억원은 지방세수 감소분 명목으로, 1조7000억원은 균형재원 명목으로 전액 교부됐다. 이 돈은 대부분 복지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다.

지방에 노인복지 여성 장애인 아동 복지 예산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지방 복지 예산 모자란 예산 어떡하냐 할 때 만수 대답이 복지 예산이 감축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결국은 중부세 없어지면 혜택이 가장 큰 지방에 노인들 복지 예산부터 없어진다.

정부 예산도 어려운 사람 복지 예산부터 없애는데 지방 예산에도 복

지 예산마저 없어진다면 정말 없는 서민층은 다 죽어 나가는 것이다.

결국은 노인들이 1% 부자 많을 위한 정책을 가진 곳에 올인하여 투표한 것이 자기 목에 칼을 찌른 형국이다.

물론 곳곳에 많다 돈도 없고 지방에 살며 우리가 남이야 하면서 수도권에 살면서 1억짜리 집도 없는 사람들도 모두가 1% 부자에 개가 되어 쫓으면서 결국은 자기 목에 칼을 찌른거지..

그 염병할 놈의 "우리가 남이가~"하는 그 말에 지금 나라 전체가 부도 직전이구나....

얼마 전에는 달러 수급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니까 어떤 또라이 같은 새끼 하나가 한국 경제 팬더멘탈 어찌고 떠들어 대는거야..

그래서 넌 한국 경제 팬더멘탈이 구체적으로 뭘 줄이나 알고 말끝마다 팬더멘탈 이라고 하나니까 뭘 귀신 시나라 까먹는 경제 기초 체력 어찌고 산업 기반 시설에 GDP 들먹이면서 교과서에서 본 거 들먹거리는데.. ..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 세뇌 정도 수준이 그 정도란 거지.. 신문 뉴스에서 허구헌날 한국 경제 팬더멘탈 꼬덕 없데..

핵심은 그 정도로 주류 언론에 이미 세뇌가 될 만큼 된 상태라는거지....

하야간... 지금은 무조건 입 다물고 살아야 해... 무조건 앞으로는 쥐도 새도 모르게... 비밀주의로...

핵심은 그거지... 추세와 시스템적인 변화기인데 한국 경제만 이런 역추세라면 반드시 그 괴리라는게 생기거든..

문제는 그 괴리적인 실물 쇼크 파급 현상이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4~5년 후에 가시화 되는데 이때의 개인적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잘 관찰해야 한다는 거야..

안 그러면 막대한 재산적인 자산 손실 피해를 입을 수 있거든...

지금 난 돈 없으니까 상관없다고??? 과연... 그럴까???... 지금 시스템적인 매트릭스에서 누가 지금 돈 없다고 난 자유로울 꺼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너무 순진하고 천진난만하다는 생각뿐이구나...

돈 안 벌꺼야???... 아니면 영원히 거지로 살꺼야???... 그것도 아니면 학교를 한 20년 다니나???..

각자 잘 관찰해 보자... 이젠 바야흐로 예전 초당시절 탐구 생활 방학 숙제 시즌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판떼기가 돌아가는지 비정하고 잔인할 정도로 난도질해서 잘 파악해 나가야 한다.

왜 지금 MMF에서 현금 유출로 난리 부르스가 나고 안전 자산으로 자산 이동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이미 다 눈치를 간겨지... 이런 과도기에 무리한 투자 배팅 = 자산 몰락을 의미 하는거거든...

각별한 관찰... 그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야... 이민 가지 말고 한국에서 살래메... 죽을 때 까지... 그럼 현찰 있어야지 깡통 안차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있을꺼 아니냐고..

그리고 뭘 놔의 비정규직... 그냥 아르바이트지... 솔직히 이젠 솔직해지자... 알바 아니냐.. 알바.. 심지어는 알바보다도 못하더구만..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회비용 차원에서 외국 나가서 생활권 넓혀서 살라니까 반 매국노라는데 한국에서 그럼 지금과 같은 저임금 노동자로 말 그대로 봉사 활동 수준의 돈 받고 살인 인플레이션 속에서 살라면..

눈치라도 빨라야지... 사태 파악 빨리 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안 돼지고 살아가지... 내 말이 틀렸어??

이젠 이민 이라는 개념이 아니지... 이민 ==>> 생활권 확대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라는 거였는데... 이걸 그냥... 싸잡아서 나라를 버리네마네.. 가서 깡통이나 찰팔짜라느니..

아이쿠... 허리 된다... 진짜.. 그럼 영원히 이런 식으로 썩 저임금 노동력이나 공급해 주면서 신 노예 계층으로 살라는 건지 뭘 어찌라는건지.. 말이 반도국가지...

38선 때려 막아서 유럽이나 미국처럼 어디 국경 넘어서 일을 하러 다른 나라로 차 끌고 가기를 할 수 있나.. 이걸 완전 사실상 섬나라지.. 섬나라... 완전 봉쇄...

이젠 좀 각성들을 하자... 진심이다... 허구헌날 가능성에 제한을 두면 이젠 될 일도 안 된다.. 언제는 긍정의 힘을 믿으라매... 이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니.. 원... 헛갈려서 못살겠네...

나 같은 늙은이들은 그런 말 들으면 논리적으로 괴리가 생겨서 황당하다니까 그러네.. 그런데 젊은 애들은 말 다한거지..

왜 괴롭냐고???.. 당연히 괴로울 수밖에.. 이런 괴리감이 생기니까 헛갈려서 괴로운거야... 뭔가 알듯 모를 듯 희미하지만 헛갈리거든... 교묘하게...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역논리적 오류에 빠져서 혼란스러운거지..

이게 결국 핵심이라는거지...

<2008년10월05일>

04. 내일 장 초반부터 달러 환율이 폭등 할 것입니다.

지금 나가 봐야 해서 길게는 못 쓰겠고 내일 월요일 오전 12시나 오후까지 특별한 대책 안 나오시면 외국에 유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나 소규모 수입상 하시는 분들은 한 두 달치 달러 물량을 미리 빨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50원 이상 급반등할 것입니다.

그렇게 1차 급등 장세가 이반 주 수요일 이후까지.

2차는 15일 전후로 2차 폭등을 할 소지가 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중 은행들의 달러 외부 수급은 전부 모조리 다 중단된 상태이며 심지어는 국책 은행에서조차 제1금융권 내의 시중 은행에 달러 회수 조치에 들어갈거라는게 파다합니다..

내일은 국내 가수요 때문에 급상승할 가능성이 크니까 제발 몸조심하세요.

셋.... 침묵은 금이다....

아무것도 누르지 마세요....

살 떨리는 월요일이 될 겁니다..

되도록이면 다소 무리를 좀 하시더라도.. 되도록이면 월요일날 오전 중으로 송금 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세요..

환율이 1050원대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미국에서 달러 통화 스압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건 현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젠... 무섭네요..

내일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닥치는데로 달러를 빨아들일 겁니다.. 이걸 이미 외국에서 제일 먼저 알고 역외에서는 지금 준비 중입니다..

국내에서는 삼성,SK. GS, 포스코를 중심으로 달러 매수세로 나설 예정이며 기업 수출입 달러 보유 물량은 당분간 동결되면서 이번 달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외환 수급 헷징 전략 차원에서 달러 매수세 혹은 물량 동결로 나갈 것입니다.

진공청소기 스위치가 내일부터 올라 갈 겁니다..
-늬은이가-

쥐도 새도 모르게 준비하세요..

저도 제발 안 올라가기를 간절히 기도 하지만 만약을 모르니까 준비하시라는 거고요.. 월요일말 정부 비상 대책 발표 없거든 외국에 자녀 두신 분들은 미리 송금할 분량의 달러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게 환차손 손실을 최소한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송금은 뒤로 미루더라도 최소한 물량 확보만이라도 해 놓으시던가요.

무조건.. 침묵...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지금은 무조건 입 다물고 살아야 합니다..

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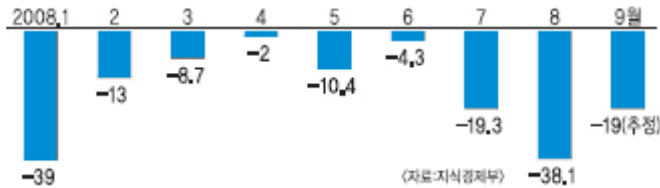
절대로 아무 것도 누르지 마시고 쥐도 새도 모르게 ...

침묵 일관..

<2008년10월05일>

05. 순환 사이클...

1. 2008년 무역수지 추이 (단위: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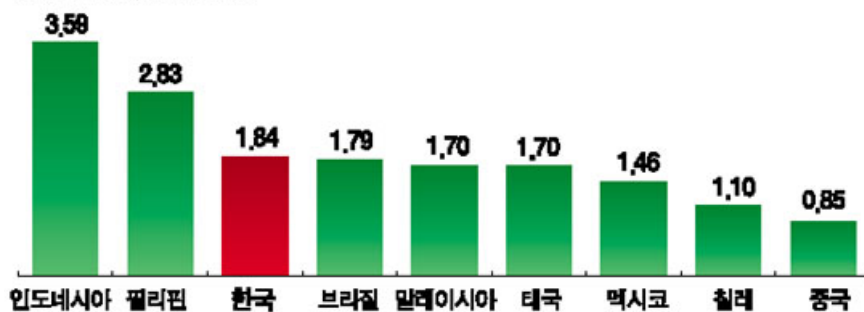
2. 1997년 외환위기와 최근 아시아 주요 통화 가치 변화 (단위:%)

	1997년 11월	2008년 8월
한국 원화(KRW)	-24.55%	-20.35%
중국 위안화(CNY)	0.22%	9.11%
인도네시아 루피아화(IDR)	-47.74%	-0.51%
인도 루피아화(INR)	-4.23%	-10.19%
일본 엔화(JPY)	-11.62%	6.24%
말레이시아 링기트화(MYR)	-34.05%	1.09%
필리핀 페소화(PHP)	-31.26%	-1.19%
싱가포르 달러화(SGD)	-12.84%	5.15%
태국 바트화(THB)	-53.23%	-8.06%
대만 달러화(TWD)	-14.32%	3.64%

※전년 동기 대비 통화 가치 변화율

〈자료:국제금융센터〉

3. 주요 신흥국 국제 5년물 CDS프리미엄 비교 (단위:%포인트,10월1일 현재)



*CDS(신용디폴트스왑)프리미엄이란: 국가 신용리스크가 커질수록 프리미엄이 높음

*자료: 국제금융센터

4. 은행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

신한은행	연9.86%	↑ 0.47%P
국민은행	연9.61%	↑ 0.25%P
우리은행	연9.53%	↑ 0.40%P
기업은행	연9.41%	↑ 0.24%P
외환은행	연9.09%	↑ 0.21%P

*↑은 최근 1주일간 상승폭

위기의 확산: 1 -- >2 --> 3--> 4...

지금 현재 상황은 하루짜리 초단기 달러 차입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에 1유로 = 1700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긴 말도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순서대로 보면 답이 나오니까.

특히 2번... 10년전과 완벽하게 똑같군요...

시대의 비극이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달러 유동성이 지금처럼 극도로 제한을 받으면 원화 유동성도 동시에 유동성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금 현재 외환 기업 어음 CP 발행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며..

그로 인해서 원화 유동성이 제한을 받으면 은행채 금리 상승에 따른 CD 금리의 동반 상승으로 결국...

대출 이자는 수직 상승 하는 그 피폭 효과를 결국 일반인들이 받게 되는 폭탄 돌리기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달러 유동성 제한 --> 원화 유동성 제한 --> 시중 채권 금리 상승
--> 대출 이자 폭등 --> 구매력 감소로 인한 실물 소비 시장 냉각...

초 간단하게 말해서... 이 정도입니다... 달러 얘기가... 별나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상황입니다..

바로 나 자신의 내 얘기이고 시장바구니 물가 얘기입니다..

이제 어금니 짹... 깨주세요...

미국 구제 금융으로 인한 달러 유동성 공급이라는 소스에서... 한국은 제외입니다.. 이제 믿을 건.... 중국과 일본 애들 손아귀에 우리들의 운명이 달린 상황이라고... 그렇게 현재 상황을 보시면 될 겁니다..

TTTTTTTTTTTTTTTT ..

각자 차분하게 준비하세요.

<2008년10월05일>

06.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침묵...

만약 지금 상황에서 1320원~1345원 박스권을 돌파시 한국은 말 그대로 진짜 IMF 가 터지고 경제가 붕괴 됩니다..

세상 천지에 자국 경제가 그렇게 붕괴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일반인들은 이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이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90% 이상입니다..

지금 당장 대통령이 미국 FRB나 일본 중앙은행에 직접 기어가는 한 이 있더라도 최소 달러를 500억 정도를 통화 스압 형식에 + 프리미엄을 주고서라도 차입을 안 해오면.

이젠 상황은 건잡을 수가 없는 사태가 옵니다..

환율 통제력 상실 = 파산입니다..

절대로 나가서는 입도 뵙긋하지 마십시오..

그런게 심리적 패닉과 공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건... 극도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췌!!!... 침묵은 금이다... 절대로 명심하시고 각자 준비하십시오..

밖에 나가서는 공포감을 조성하는건 절대로 삼가해야 합니다... 각자 알고 쥐도새도 모르게 각자 준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패닉이 이상 돌발 변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극도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누르지 마세요...

<2008년10월05일>

07. 자산 구조 변동의 시대적 압박 요구

절대 침묵!!!... 절대로 아무것도 누르지 마시오!!!

셋!!!...

미국	일본	한국
GDP : 13조 달러	GDP : 5조 달러	GDP : 1조 달러
주식 : 18~20조 달러	주식 : 6조 달러	주식 : 1조1천억 달러
채권 : 23조 달러	채권 : 10조 달러	채권 : 7천억 달러
부동산 : 23조 달러	부동산 : 12조 달러	부동산 : 5조 달러

GDP 대비 부동산

미국 --- 13조 달러 : 23조 달러 (1.8배)

일본 --- 5조 달러 : 12조 달러 (2.4배)

한국 --- 1조 달러 : 5조 달러 (5배)

GDP 대비 총자산

13조 달러 GDP 미국의 총자산 규모가 66조 달러 (5.0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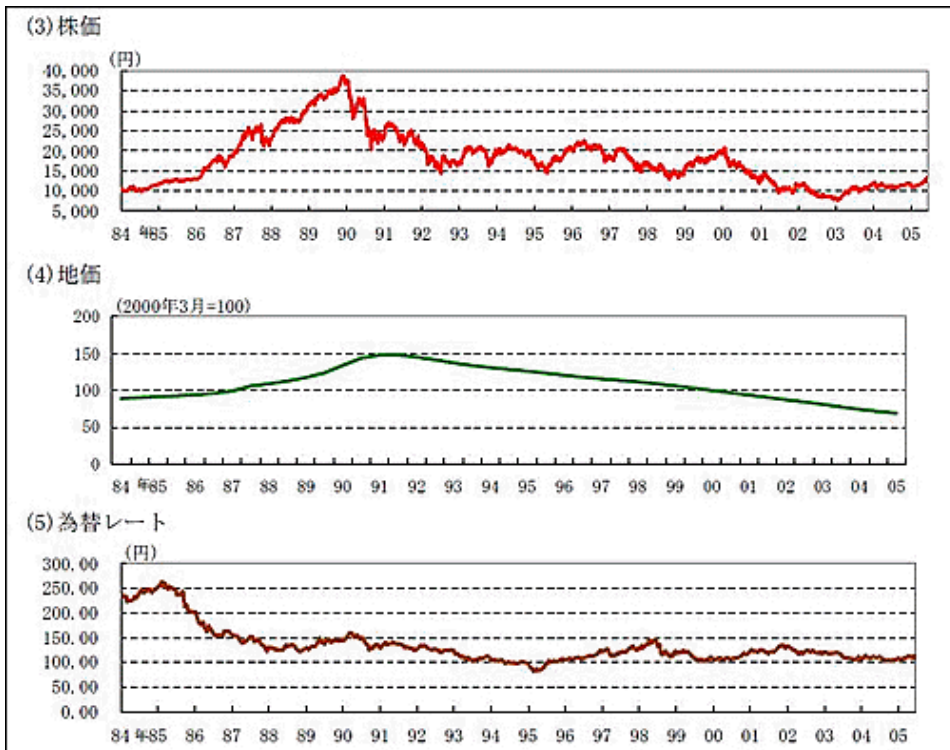
5조 달러 GDP 일본의 총자산 규모가 28조 달러 (5.6배)

1조 달러 GDP 한국이 총 자산규모가 6.8조 달러 (6.8배)

한국의 총 지가 총액 3,800조원 = 아파트 1130조, 단독 연립주택 438조, 토지 2000조, 건물 222조

공시지가 (시가 대비 80% 적용시) = 약 5,000조원 = 약 5조달러

1990년도의 일본 부동산 버블때의 부동산이 GDP의 6배, 지금도 여전히 부동산은 GDP의 2배이상



-일본의 버블시기 전후 경제 물가 동향 보고서- 주가, 지가, 외환율

문제는 일본의 경우는 기업형 부동산 위주였다지만 한국의 경우는 완전 정 반대..

가계 부분 부실일 경우에는 이걸 뭐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거지... 말이 일본형 부동산 버블 어찌고 하지만 그 성격은 전혀 틀리거든.

지금 올해 안에 환율을 1200원대에 고착화 될 경우....

2009년 1/4 분기부터 인플레이션 압박에 따른 심각한 자산 버블의 감소는 각오를 해야 한다..

2009년 이후 최소 2년간 -27% ~ -32% 이상... 환율1200원 이상에 물가 상승률 5.5~6%내의 인플레 압박시.. 하락 추세 형성이 가시화 될 경우에는 7% ~ 9%정도 더 추가 되겠지..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의 89%가 부동산인 한국 개인 가구들의 경우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할 공산이 현재 다분하다..

살고 있는 집이라면 당연히 팔면 안되겠지만... 투자나 자산 증식 목적이라면... 이건..

거기에 대출까지 차입금으로 구매 보유 중이라면 자칫... 엄청난 지뢰밭 한 복판에 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지..

지금 방법은 무조건 해외 달러 차입으로 달러 외환 유동성을 한 번에 해소 시켜줄 수 있어야 원화 유동성의 순환으로 환율 떨어지고 물가 상승 압력이 떨어지면서 실물 자산 폭락의 낙폭 축소를 통한 살길이 모색 되는데..

제발... 꼭 달러를 뭘 수를 쓰든지 끌어 들여와야 할텐데.. 과연 그만한 능력이 있는건지..

현재 시중 제1금융권의 국책 은행 10월달 달러 만기가 -27억 달러에... 지금 국내 달러 유동성을 해결하려면 최소 500~600억 달러는 차입해야 하는데...

올해 안에 해결이 안되고 계속 지연된다면 내년에는 자의든 타의든 간에 개인 가계 자산 구조 조정 단계에 어쩔수 없이 들어가야 한다...

뭘 수를 쓰든 떨어 뜨려야 하는데... 참.. 어찌다가 이 지경까지 온 건지.

셋!!!... 침묵은 금이다... 항상 명심하시고.. 지금은 무조건 입 다물고 살아야 해... 알아도 모른다고 하고 몰라도 모른다고 하고..

술 다 준다고 꼬시면서 유도심문 하면 도망치고.. 그게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5천년간 내려오는 정공법적인 생존 처세술인게지... 암만...

-늪은이가-

<2008년10월06일>

08. 미국에서는 1400원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다.

오늘자 블룸버그에 아가씨 나와서 홍콩 CFC 그 개 양아치 놈들이 한국은 6개월 안에 환율이 1400원 100% 갈꺼라고 호언장담을 하는게 나왔다.

무역 적자의 증가폭 확대와 단기 외채 상환 압박 요인에 따라서 여태까지의 환율 변동폭 거들먹거리면서 난장판을 치고 역외 환율은 이미 1280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지금 역외 NDF에 개입을 하네마네 하는 판국이다..

예쁘장한 아가씨가 티비 나와서 코리아 환율이 1400원 될꺼라고 떠들면 그걸 보는 미국애들은 뭐라고 생각 하겠어???

뻔한거 아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달러 유동성 중단으로 시중 원화 유동성이 울스 톱 된 상황이라면 이건 올해를 장담 못하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에는 강제 순환을 시키는 수밖에 없다..

일단 현재 예금자 보호법이 5천만원이라는건 상식적으로 너무 액수가 적다. 이 정도라면 현찰을 분산시켜서 예치하거나 다른 금융 상품으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은행의 중장기 자금 운용에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된다..

앗싸리 독일이나 영국 그리스처럼 무제한 지급 보증으로 해 주거나 아니면 예금자 보호 액수를 대폭 늘려 주던가...

현재 일반 정기 예금 비율이 총 운용액 중에 2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러니까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고 CD 금리가 동반 상승 하니까 대출 이자만 올라가게 된다..

거기에 이미 1180원이면 일반 중소기업 부도 임계점으로 피크 찍고... 1200원이면 총 중소기업 중에 72%가 부도 위험군... 레드 라인에 들어가는 판국인데.

이거 어쩔꺼야..

현재 한국이 통화 스왑으로 조달 가능한 액수가 일본 = 13억 달러에..
중국 = 4억 5천만 달러 정도 수준인데..

그래 봐야 17억 ~ 18억 달러...

왜 지금 AMF 거들먹거리면서... 하필이면 타이밍도 죽여주는 이 상황에서 재무 장관 회담 해 달라고 매달리겠냐..

이미 심각한 달러 유동성이라는 것이지..

아시아에서 현재 조달 가능한 달러 자금이 모조리 끌어모아 봐야 20억 달러 수준에..

지금 시중에 필요한 수준은 지금 당장 그 25배 이상...

그런데 은행 자산 매각을 이 어려운 시기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그렇다고 중국이나 일본에 달러 달라고 하면... 이걸 굉장히 민감한 것이... 정치적 거래라는걸 해줘야 한다는 것이지....

안 그래도 독도에 중국은 미국의 동아시아 1급 우방국가인 한국, 일본인 상황에서 통화 스왑을 대폭 늘린다는건 사실상 불가능.....

그럼 결국 미국 밖에 없다는거야....

최대한 빨리 보름 안에 미국 FRB에 기어가서 한국도 통화 스왑으로 달러를 최소 300억이라도 한국은행 국채 보증으로라도 안 가져 오면..

진짜 중국애들 말대로 1400원 가는건 이제 시간문제다...

그 때는 이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방법은... FRB 원/달러 통화 스왑... 그것 뿐이다...

안 그러면 일본 밖에 없는데... 정치적 옵션 + 달러 차입금 = 결과는 뭐라고 생각하냐...

앞으로 보름... 이 보름 안에 추세가 반전이나... 폭등이나...

그래... 결정 했어... 슬라이딩 도어즈... 영화 하나 찍는거야....

달러 차입이 되야지 CD 금리가 내려가고 물가 진정 국면으로 다 살아 남는거지.....

안 그럼...

핵겨울...

진짜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솔직히 이제 늙은이가 그런 핵겨울 맞이 해서 사는게 얼마나 버거운지 알아???

늙었다고 괘시하지 마라... 적당히 좀 갈귀라... 노인네 불쌍하지도 않냐..

에이쿠..... 빨리 뛴져야 하는데... 살아생전 별의별꼴을 다 보겠구나..

어여 빨리 FRB에 기어가서 달러나 구해 와라... 10월달에 그 잘난 무역 수지.. 흑자가 되건 적자가 되건 이제 올해 다 갔다.

눈 내리는데 그럼 물가 폭등 시켜서 다 죽일래???

고구마 씻으러 빨간 고무 다라 꺼내와야 해서 이제 가 봐야겠어...

5천만원이 뭐냐.. 5천만원이...

일본에서는 이미 실패한 감세 정책... 돈에 환장을 해도 그렇게....

일본에서 94~99년까지 감세해서 남은 결과가 뭔지 알아???

자산 디플레이션 + 실업률 폭등 이었다... 대기업 투자?... 염병 그 동안 법인세를 22%를 깎아 줬는데도 투자는 안 했지....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기업 놈들이 거기서 거기 그 바닥이 그 바닥이지.. 뭘 놈의 얼어 죽을 투자 확대야..

입장 바뀌어서 내가 회장이라도 이런 판Ep기에 투자하면 그게 미친 놈이지...

빨리 때려 쳐라... 나 같은 천한 늙은이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인생... 허리 좀 펴고 살아 보자.. 이것들아..

정책 수립 어찌고 하는 단계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한중일 AMF 얘기 꺼내려거든 8월이나 9월에 말을 하든지..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코 앞에 바로 닥쳐서..

니들 백날 모여서 대가리 짜내 봐야 이젠 다 끝났고... 답은 이제 오로지 달러 해외 차입... 그 방법뿐이다..

안 그럼 올 12월에는 완전 그야말로 영미계 헤지 펀드 밥으로 조지 소르스가 청와대 계약서 찾아 들고 오는 일 뿐이다..

에이그... 헛소리 말고 어여 빨리 뉴욕행 비행기 표나 끊어... 어여..

이젠 그것 뿐이여..

<2008년10월06일>

09. 한나라당의 "달러 통장 만들기"는 뭐냐!!!

내 차마 이 말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한나라당의 김영선이라는 애가 외화 통장 만들기 운동을 정부 주도로 해겠다고 설레 바리 치면서 벌써 부터 97년 금 모으기 ==>> 이젠 달러 모으기 운동을 하겠다고 한다..

이건 그럼 도대체 뭐하자는 액션이냐.. 강만수는 민간 주도로 일단 시작하는게 순서라는데.. 아니... 지금 장난해???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내가 틀린 말 했다면 지금 당장 이 늙은이가 나가서 벼락 맞아 돼질 것이다.. 이 썩어 먹을 놈의 나라.

이젠 집에 있는 달러 싹쓸이 해서 이번 위기 극복하자고 떠드는 판국이다.. 그럼 애기 다 끝난거 아니니??? 지들은 은행 대여 금고에 달러/엔화/골드바에 귀금속 쳐 넣고 비상 상황 대비 하면서....

장난해???

나 같은 늙은이야 이젠 고구마나 팔다가 좀 살고 돼지면 되는데.. 지금 팔팔한 20, 30대 애들은.. 진짜 암담하다는 생각만 든다..

이제 니들 어쩔래.. 에이그... 이것들아..

이젠 달러벌이 하러 예전 70년대처럼 중동이나 가야겠구나... 산업 역군 소리나 들으면서..

지금이라도 빨리 예전 유인촌이 나온 야망의 세월이나 보고 빨리 벤치마킹이나 하렴.. 그나저나 그 웃기는 코메디 야망의 세월을 다운 받으려고 하니까 아예 구할수가 없네..

한 번 더 지금 상황에서 봐 줘야 하는데... 완전 베트맨 앤 로빈 이었지..

<2008년10월07일>

10. 유인촌이 뭘로 돈을 벌었지?

바로 환 투기 + 부동산...

특히 엔화 투기...

이러면서 달러 모으기 운동하자는 개소리는 한 마디로 설득력 떨어지는 개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고구마 간판 가격도 +500원 더 주고 팔아야 해..

그런데 미쳤니???

노인네라고 무시하지 마라... 아무리 상무식 노인네라지만 니들은 환투기로 돈 쳐 번 주제에 이제 와서 달러 유동성 떨어지니까 달러 모으기 운동하자니..

전여옥이 주식 투자로 노무현 때 15억 돈 쳐 번거나 뺏어 내고 시작하지 그러냐???

이 사탄들아.

은행별 대여 금고 사용자 내역 모조리 다 뒤져 보면 한나라 애들하고 그 집구석 아들래미 애새끼들이 사용하고 있는 은행 개인 금고가 수 천개는 넘어 갈 것이다..

보통 쓰는게 2~3개는 보통이라지???.. 그 안에 과연 뭐가 들어 있을 것 같니???

진짜 궁금하구나... 이젠 좀 솔직해 지자.. 언제까지 니들 그런 가식적으로 살래... 뻔뻔스럽기는.

<2008년10월07일>

11. 최근에 들은 가장 황당했던 소리

최근에 들었던 가장 황당했던 소리...

"아고라 보고 주식투자 결정하고 외환투자해서 주가 내려가고 환율 폭등 한다는 소리.."

진짜 주식 투자하고 외환투자 하는 사람들은 아고라 보고 투자 안하죠...

무슨 양떼 몰이를 하네 마네 할 정도로 그렇게 투자 부분에서 파워 그룹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건 굉장한 과대망상이죠..

다만 나 같은 늙은이들이나 추세보고 살 길 찾는거지..

아고라 보고 달러 사재기가 몰려서 환율이 폭등한다???

나가서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건 굉장한 오버죠..

항상 추세를 확인 하는 시각을 기르시고요... 제발... 그게 살길 찾는 겁니다..

눈 내리는 겨울... 살아남으시고 고구마 좀 많이 팔아 주세요...

고구마 많이 팔아도 반찬값 마련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포털 사이트 보고 주식이나 외환 투자를 결정할 정도면 시장 주변에서 푼 돈 먹으려고 기웃거리는 정도의 개인 썬 초보들 이외에는 없습니다..

에이쿠....

-늙은이가-

<2008년10월07일>

12. 이젠 사실상 제 2차 IMF에 돌입한 상태다.

드디어 1345원 돌파로 사실상 최후의 박스권 저지선을 돌파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젠 더 이상 대정부 환율 통제력 상실을 의미한다.. 한국의 현재 문제는 달러 인덱스의 변동 요인에 의한 시스템적 급등락의 요인이 아니라 철저한 국내 달러 수급 물량 + 역외 NDF 달러 급등락에 따라서 무조건 하루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젠 무조건 100% 현금이다..

엔 캐리 청산이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엔/달러 = 100엔대로 하락했고 유로/달러 = 1.3이다..

이 상태에서 엔/달러가 더 떨어지고 유로/달러가 1.17로 떨어질 경우 한국의 환율은 최대 1455원~1470원으로 폭등하며 이 상태에서 국내 파급 여력이라는 것은 초 간단하게 말해서 1998년 년도 기준으로

70% 정도의 파괴적인 경제적 타격을 감수해야 하는 말 그대로 Small IMF로 전면 돌입 하게 된다.

만약...

이 상태로 외부로부터의 대규모로 최소 300억 달러 이상 달러 차입이 안 되고 지금 이 상황이 1주~9일 정도 방치될 경우...

정부의 환율 통제력 = 0 다...

그 때는 돈을 바깥으로 통채로 들이 부어도 죽었다 깨어나도 손을 못 쓸 것이다... 그 때는 경제 이론이고 나발이고 다 없는거야.....

핵폭풍... 원자탄 터지는데... 스텔스가 뭘 소용이냐... 한 마디로 그 애기란 거지..

당장... 당장 미국에 달러 차입을 콜 해라.. 지금 은행 자산 매각으로 알아서 극복하라는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한 마디로 헛소리지... 이젠 방법은 100% 외부 달러 차입... 그게 아니면 한국은... 이제 아무도 장담 못해...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야.. 농담이 아니라... 다 죽이기 싫으면 이명박이 직접 미국 쳐 기어가서 달러 구해와라... 그게 아니면 이젠 끝이다.. 끝.

지금 일반 사람들은 아직 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걸 90%는 모르니까... 일 터지기 전에 각자 최대한 빨리 쥐도 새도 모르게 준비해...

돌발 사태로 패닉 사태가 터지면 그 땐 손도 못 쓰는 수가 오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괜히 공포감을 조장하는건 지금 단계에서는 절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건 불난데다가 휘발류 뿌리는거야.. 안 그래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서서히 느끼는 단계에 공포감 조장하면 결론은 ==>> 대혼란

이야..

그건 무조건 막아야지..

한국은 절대로 선진국이 아니다... 정신들 차리고 이젠 그 개꿀 뜯어 먹는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적으로 살길 찾아야 한다.

그 빌어먹을 선진국 타령에 한국 경제 팬더멘탈 어찌고 하는 귀신 시나라 까 쳐 먹는 그 탄 개소리에 지금 다 끝장나기 직전이다.....

한국 경제 팬더멘탈은.. 없어... 그건 신기루야... 정신 좀 차려라.. 국제 금융 시장에서 한국 경제 팬더멘탈이라는게 얼마나 약해 빠지고 비루한 것인지 진짜 몰라서 그 탄 환상 심어주는거냐..

지금 최소 2~30년간 이상은 썩빠지게 일하고 난 다음에 그 때 가서 따져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이젠 좀 그 탄 개꿈에서 깨어나라... 그게 현 상황의 글로벌 이코노미로 볼때의 잔인할 정도의 극사실주의라는거야.....

아닌건 아니다!... 맞는 건 맞다... 틀린건 틀리다..라고 확실하게 현실 주제 파악은 하게 해 줘야지.

허구헌날 버터에 꿀 쳐 바른 소리만 하면 나중에 그 뒷감당을 다 어떻게 하라고 그 탄 동화책 신데렐라 신드롬만 쳐 심어주는거냐고..

현실은 현실 그 자체로 잔인하게 비정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설사 그게 난도질 당하는 기분 들어도 앓싸리 그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봤을때 훨씬 나은 거란 거야..

- 늙은이가-

추가 : 아무리 주식에 미쳤어도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서 사람들 거짓으로 선동질하는 애들!!!!!!

니들 같은 애들 때문에 과거 10년 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서 피눈물 흘리며 죽어 갔다..

그래서 이제 와서 또 그 개꼬라지 당하기 싫다는 건데 아무리 돈에 환장을 해도 그러는게 아니다..

각자 반성해라.. 어차피 하란다고 할 애들도 아니겠지만.....

악마 같은 놈들... 그 때 노인네들이 자식한테 짐 된다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줄 알아??

이젠 늙은이가 갈 날 얼마 안 남아서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뻔뻔스럽구나..

니들부터 주식 사고 펀드 들고 집 사려무나..이 사탄들아....

<2008년10월07일>

13. 한국은 1345원이 넘어가면 환율 통제력을 상실한다.

지금 오전 10시에 벌써 1366원이야.

이런 식이라면 이제는 정부 환율 통제력은 상실되고 파괴적인 핵폭풍이 밀려온다.

난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란 거지.

니들 다니는 직장이 걸린 문제야.. 물가와 실물 자산 디플레이션 폭락과도 연결된 문제고.

디플레이션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블랙홀인지 일반인들은 죽어도 모를 것이다.

그 때가 되면 암흑의 30년이라는 말이 된 말인지 알게 될 것이야..

무조건 막아라..

1340원대로 안 틀어 막으면 다 죽는다..

이건 농담이 아냐.

이젠 고구마를 파는게 아니라 집에서 비상식량으로 써야 하겠네.. 이이그..

-늙은이가-

이제 1차 충격을 각오할 시점이다.. 11월 물가 폭탄만은 안 벌어지기를 바랬는데..

이 상태라면 11월에 1차로 물가는...

오~ 주여... 젠장..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가서는 절대로 떠들면서 공포감 조장 하지 말고..

가급적 최대한 물가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아파트 부녀회 같은데 가서 현지 직송으로 농산물 조달해 먹는 방법 아니면 주변에 시골 농가하시는 분들한테 옆집 같은데서 돈 모아서 일괄 구매.. 그런 식으로 안 살면 이젠 방법이 없는 시절까지 온 것 같다.

독립 가구로 이 모든 물가와 경제적 압박을 감당하기에는 이젠 한계 상황이다..

이젠 정부에서 일반 기업체들 보고 달러 내놓으라고 협박질을 할 정도까지 왔다.. 지금 신용장 개설도 안 될 정도의 개막장인데..

그럼 사업 접으라는 소리지..

빨리... 시골에 연락해.. 아니면 옆집에 가서 연락해서 현지 가격에 조달해 먹든가..

이제 한국은 내일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까지 온 거야..

그리고 거둬 말하지만 나가서는 공포감 조성은 지금 상황에서는 극도로 위험한 거라는걸 반드시 명심하고..

취 죽은 듯이 살아야지.

이미 자산 디플레이션은 기정사실이고.... 나 같은 고구마나 파는 늙은 이들은 물가 영향력을 거의 안 받는 식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뜯어 고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는게 핵심이라는거지.

이미 감당할만한 수준을 능가했다.....

여기서 물가 영향력을 안 받게 어떻게 더 뜯어 고치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줄이는데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구매 방식이나 패턴을 바꿔 버리면 그 상위 개념이 가능하다는거지..

줄이지 말고... 물가 영향력이 거의 0가 되도록 구매 패턴을 바꿔라... 이젠... 그게 마지막 생존 전략 같다...

모건 스탠리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3% 대라고 할 정도면 이젠 신규 채용은 둘째 치고 회사 구조 조정을 해야 할 판국이야.

이게 농담이 아니란 거지..

그러니 먹고 입는거라도 물가 영향력 = 0가 되도록 다 뜯어고치는 수밖에..

이젠 좀 살자.. 응???...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국 안에서 언제는 살래 매...

그럼 좀비 같이 살아도 일단 살아남아야 할꺼 아니냐고... 안 그러냐???..

근거 없는 낙관이 얼마나 치명적인 위험천만한 건지 10년 전에 그렇게 당해보고도 아직도 괴담 타령에 선동 어찌고 하는 말이 지금 나오니???

그럴 바에는 앗사리 안전장치 준비된 비관론이 차라리 내 가족 지키는 길이라는데 왜 몰라..

지금 도시락들은 싸 가지고 다니니?... 내가 몇 달 전에 미리 이런 상황이 올 지도 모르니까 도시락 싸 가지고 다니라고 했어 안했어..

진짜 이젠 눈에 뻔히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하는 말이지..

나야 고구마나 팔다 좀 살고 뒤통수면 그만이지만.. 젊은이들은... 살아야 할꺼 아녀...

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

<2008년10월08일>

14. 모텔 김지후 또 자살 충격 파문 확산.

진짜 점점 더 가관이다..

어제는 하루 저녁에만 7명이 한꺼번에 생활고로 비관 자살.

참 나...

방풍 비닐 준비 안 했으면 빨리 준비해라.. 겨울에는 가장 큰 문제가 난방비.

시스템 창호가 아닌 집이라면 방풍 비닐 미리 준비해서 온/오프 지퍼식으로 된 거라도 준비 빨리들 하고.

이젠 이 모든 사태를 한 방에 해결할 올인 전략은..

오로지...

미국 FRB 원/ 달러 통화 스왑...

이게 아니면 올 겨울은... 빙하기에 돌입하는거야..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시 파급 여력은.....

10월~12월까지 외국인 자본 유출 추가 -85억 달러의 추가 자본 이탈을 감수 할 자신이 있으면 하든가.

지금도 어려운데 불난 집에 휘발류 뿌리고 부동산에 환장하지 않은 이상..

거기에 지금 리보 금리 폭등으로 금리를 내려 봐야... 은행 대출 이자는 죽어도 안 내려 간다..

진짜 정신 차리자.

판나라하고 한국은 그 상황이 180도 틀린 나라지.. 암만..

거기에 CDS 프리미엄 270이면 이젠 이젠 더 이상 괴담 수준이 아니란 거야..

지금 상황에서 정부에서 긴급 달러 유동성 공급 안해 주면 CD 금리 폭등에 이젠 S&P 국가 신용 등급 조정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다 끝장이다.

회사채가 11%라는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찌라고... 문 닫을까???..

그리고 이젠 무슨 빨갱이들도 아니고 왜 달러 내 놓으라고 협박질인데..

나가면 이젠 공산 국가 아니냐고 금융 사회주의로 책 쓴다는 놈까지 나오는 판국에 진짜 늑은이 돌아 버린다.

여긴 빨갱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다.. 웬 관치 금융 부활이란 말이냐..

누가 먼저 시작한 건데 이젠 책임 떠 넘기로 아주 웃기고 자빠졌네..

이젠 고구마 씻으러 고무 다라에 물 받아야 하니까 가 봐야겠어..

방풍 비니루..... 잊지 말고 준비 하고... 잘 붙이면 내년에 또 쓸 수 있 으니까.

-늑은이가-

<2008년10월08일>

15. 미국 국내 보험사 파산 위기 직면.

자산 레버리지 규모 - (자산/자기 자본 비율)

Leverage ratios	ASSETS : EQUITY
U.S. companies	(June 2008)
Barclays Bank	61:1
Deutsche Bank*	53:1
UBS	47:1
ING Group	49:1
BNP Paribas	36:1
Fortis	33:1
Lehman Brothers*	31:1
Goldman Sachs*	26:1
HSBC Holdings	20:1
RBS	19:1
Bank of America	11:1
	*2007

리먼 브러더스 = 31배.

버클레이즈 = 61배

도이치 뱅크 = 53배

UBS = 47배

ING = 49배

BNP 파라바 = 36배

자산/자기 자본 비율이 높을 경우 과대 부채로 인해서 대출 부분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자본 유동성 함정에 빠질 공산이 크다는 걸 의미.

유럽 은행들이 타격을 상대적으로 서브 프라임 핵폭풍에서 덜 받은 이유는 예금 보호 기반이라는 차이가 결정적 요소로 작용.

왜냐면 투자 IB = 상업 은행은 자본 구조가 전혀 틀리거든.

AIG : CDS 포트 폴리오 4410억 달러 ==>> 3070억 달러가 AIG가 지급 보증을 해주는 보증 계약 액수.

따라서 내년 2009년 3/4 분기 전까지 국내 유럽계 은행의 외환 달러 유동성은 전년 대비 15% 내외로 극도로 제한될 소지가 강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아이슬랜드 국가 디폴트로 신용 경색 유동성 제한..

미국내 대형 보험사 메트라이프가 심각한 자금 유동성 제한으로 인해 파산 위험성 여파로 미즈호 미쓰비씨 파이낸셜의 금융주 동반 폭락으로 인해 일본 내 주가가 -9% 이상 대 폭락 장세 연출.

(아직 정확히 어떤 보험사인지 안 나와서 다 숨기고 있는데 현재 메트라이프일 확률이 거의 70% 이상이야..)

현재 신용 거래액이 두 파이낸스 합계로 -3천억 달러 규모.... 최소 규모로 잡아도 -1천7백억 달러 내외.

오늘 엔/달러 = 100.65 엔으로 만약 내일 엔/달러가 95엔 ~ 99엔 박스권 등락시 원/달러 환율 = +35원 이상 추가 단기 하락을 감수해 내야하는 상황 직면.

* (정부 개입을 제외한 외생 변수 = 0 산정시)

현재 원/엔=1384원 수준으로 현재 국내 엔 캐리 청산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국내 엔 캐리 자금 투자 구성 중 68% 이상이 부동산 실물 부분에 투자된 현재 거래 조건 악화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상황.

이이그~~~...

- 늙은이가-

이젠 쑈세미로 청소하러 가 봐야 해서 그만 나가 봐야겠어.. 늙으면 벌 어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말이지.

췌!!!!!!!!!!

(진짜 국민성 대단들 하다.. 누르지 말라면 좀 누르지 말어... 그리고 고구마나 파는 늙은이가 알면 얼마나 알겠냐.. 그냥 백설 공주 동화책 보는 셈 치면 되는거여.. 시방... 사투리 나오게 만드네...

앞 집 늙은이가 말해 준 거여... 신춘문예나 한 번 내볼려고..

정 불쌍하거든 동네 노인정에 설레임이나 하나 사 가지고 노인네들한테 하나씩 돌리든가..

췌!!!... 이제 장사 준비해야 허..)

<2008년10월09일>

16. 솔직히 충격적이다.

진짜 놀랍군..

현재 10월 8일 종가 1395원을 30일 구간 환율 변동폭 12.7%의 기술적 박스권으로 볼 때 최대 맥시멈 = 1573원...

최소 맥시멈 미니멈 = 1213원.....

이 상황에서 역외 NDF = 1422원에 가장 충격적인건 엔/달러 100엔 붕괴 = 99엔.

이래 버리면 +30원 이상의 추가 상승 압박으로 1445원~1465원대 박스권 환율 형성..

이건 오전만... 오후는... 가 봐야 아는 수준...

진짜... 오전부터 이걸 다 틀어막을 달러가 있기는 한 걸까???

진짜 경악스럽다... 역외가 99엔이라니..

아까 술 한잔 빨리 갔는데 난리가 났더라고... 새벽에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니 술이 확 깨는게..

에이그... 환율 변동폭이 세상에 30일 기준으로 13%라니... 이런 나라가 어딴냐고.. 이것만 아니면 어떻게 손을 써 볼 여지도 있을텐데..

이건 말 그대로 달팽이를 이봉주로 만들어 버릴 꼬라지라니.. 안 그래도 금리 인하에 엔 캐리 청산으로 지금 부동산 실물 자산 폭락에 엄청난 추가 변수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아주 저주의 고통을 벌이는 구나.

아이고...

늙은이들끼리 단체 회식이라고 싸그리 장사 일찍 끝내고 갔더니 새벽에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이냐..

지금 1422원 역외에 99엔으로 100엔대 붕괴면 내일은 진짜 1460원에서 1470원에서 끝날수도 있다..

젠장 이러면 진짜 이젠 끝인데..... 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ㅍ.. 어찌려고.

정말 살 떨리네.. 술이 술이 아녀...

소주 한 병 더 까고 자야겠다.. 맨 정신에 도저히 잠이 안 오네....

-늬은이가-

늬은이들 회식하는데 딜링딜링... 술집 티비에 나와서 충격 받아서 적어 봤어..

만수는 지금 이 시간에 자나???...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이고...

박스 좁는 김씨.. 철물점 하는 노인네에 고구마 장사 하는 나하고 노인네들 모여서 블룸버그 보면서 병맥 까다가 소주 한 두 병 마시니까 갑자기 떡 하고 나오데.....

그 순간 가게 전체가 침묵.... 초토화..

옆집 최씨 노인네가 조직원들 비상소집 하더라고..

난 바로 문자 오데?... 그래서 뭘 어.찌.라.고... 씨 보내니까... 바로 전화 와서 뭐라고 막 씨부려 싸고.

요즘 고구마 파는 노인네들도 블룸버그는 필수라서... 아이고...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그저 늬으면 빨리 뛴져야 하는 건데...

이젠 별 거지 같은 꼴을 또 보게 생겼네.... ㅍㅍㅍㅍ.

<2008년10월09일>

17. 이제 마지막 3개월이구나.. 신이 부여한 마지막 찬스

앤 캐리의 급속한 청산으로 부동산은 앞으로 3개월이다.. 사실상 빠져나올 마지막 기회를 준 거라고 본다.

진짜 대단하다... 당연히 동결일 줄 알았는데.. 지금외국인 직접 투자가 벌써 -110억 달러가 넘어 가는 판국에 금리 인하라니....

어차피 금리를 인하해도 지금 리보 금리상 CD 금리의 추가 인하는 거의 안 된다.. 왜냐면 애시당초 은행권의 자금 경색에 따른 은행채의 동반 상승에 따른 CD 금리 인상요인이 강했기 때문에 ..

결론적으로는 금리만 내리고 일반 가계는 대출 이자 압박은 현 상태 그대로 유지 되는 선에서 외국인 자본 이탈과 앤 캐리 국내 추산 235억 달러의 자금 중 점진적으로 08년 4/4 분기 ~ 09년 1/4 분기 내에 48% 이상 급격하게 청산 될 것이며 만약 11월에 일본 BOJ에서 금리 추가 인하를 실시 할 경우에 그 비율은 30% 대로 떨어지겠지만 어차피 청산 압박에 따른 내년 09년 1/4 분기 이후 부동산 실물 자산의 추가 하락 압력은 현재 -27%에서 -34%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이 파급 효과는 이제 09년 3/4 분기에 파괴적인 영향력으로 가시화 될 공산이 더욱 커졌다.

자... 이제 뭘로 부동산 부양 할래...

금리를 인하해서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 일반 가계별 금융비용 압박을 줄일 수 있으면 천만 다행이겠지만... 현재 상황상... 그 효과는 거의 상쇄되어 버리는 상황....

진짜 대단한 나라네.. 국제 원유가 하락하고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 요인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하에 베팅했구나...

이제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국제 원자재 시장 동향상 국내 환율이 1150원 ~ 1230원대에서 조정을 받을 경우에 완만한 상승세로 충격 효과가 떨어지겠지만 그 대신....

이제 문제는 핵심적인 자산 디플레이션의 가속화로 그 파급 효과가 내년경에 나타날 것이다..

남은 기간은 3개월... 마지막 기회를 하늘이 내려 주셨다..

솔직히 말해서 이걸 상상도 못할 빠져 나올 타이밍이다... 이런 기회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역시 기대를 저 버리지 않네.

단기 부양 ==>> 실물 자산 폭락..

결론은 매도 타이밍 인센티브 부여.... 그 피폭 효과는 현재 환율 통제력이 무력화 되는 상황상 물가 폭등에 준 하이퍼 인플레이션 감수.

대단하다... 이젠 놀랍다는 말 밖에... 에이쿠... 너무 오래 살았어.... 이젠 내년에는 못 볼 꼴을 보겠구나... ㅋㅋㅋㅋㅋㅋ

-늪은이가-

소주 마시고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이 뒤집어 쳐서 말이지... 킁... ㅋㅋ

살아남을 마지막 신의 손길이 내려진 거라고 보면 정답이다...

이건 어찌면 악재가 아니라 단기 호재일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자산 손실을 최소화 하면서 빠져 나올 찬스 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기회지..

자산 보존의 차원에서 보자면 말이지... 역시.. 마지막 한 번 정도는 이런 기회를 분명히 줄 께로 알았어..

이명박 정부는 고위 공무원 랭킹 1위~ 100위까지 부동산에만 묶인 돈이 지금 8350억이야..

그런데 그 미친놈들이 그걸 다 포기할리가 없지... 자산 포트폴리오 조

정 시간을 벌어줄려면 이 시나리오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든... ㅋㅋ
ㅋㅋ 암... 암만... 그렇고말고..

결국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구나....ㅋ..

진짜 누르지 말라는데 약착 같이 누르네...

정말 대단한 국민성이라는건 이제 인정.....

짱!!!! 고구마나 파는 노인네라고 증말 괘시하는 거냐????

<2008년10월09일>

18. 천재들의 실패 - 로저 로웬스타인.

지금 이 책이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이 현 상황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 및 흥미 유발에 좋은 소스가 될 책이 천재들의 실패라는 로저 로웬스타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로저 로웬스타인인지 로웬인지는 이제 치매라서 헛갈리고..

이 책에 나온 98년 그 당시 LTCM의 존 메리 웨더가 남긴 유산은 금융의 수학적 모델링 기법...

개인이건 기업이건 은행이건 뭐건 간에 돈.. 즉, 자본이라는건 마구잡이로 투자를 하는건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투자 모델이라는건 굳이 고도의 금융 산술 수학이 아니더라도 기본 룰이라는걸 만들어서 얼마든지 구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헤지펀드가 뭔지.. 파생이 뭔지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돕는데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줄 좋은 소설 같은 책입니다..

왜 10년 전과 똑같은 사태가 지금 또 똑같이 반복 되는가....

인간은...

탐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돈이기 이전에 인간이라고 한 것이며 이런 인간 심리를 아는게 중요하다는걸 단기간에 굉장한 이해력을 보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시면 NHK의 글로벌 마켓이라는 6부작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NHK에서는 굉장히 양질의 이런 다큐가 많은데... 처음 시작을 하시려는 분에게 동기 유발 소스로는 좋은 양질의 다큐입니다...

소비의 심리학이라는 책은 반드시 보셔야 하는 책으로써 왜 소비의 함정에 빠지게 되며 현재 어떤 식으로 돈을 알게 모르게 뜯기는가 하는 핵심 키워드가 나와 있으며 그런 소비 키워드를 일단 알고는 있어야 소비자인 개인의 입장에서 방어 전략이라는게 나오는 것이며 더

골은 너무나 유명하고 마케팅 도서로는 기본인 포지셔닝과 토네이도 마케팅을 보시면 굳이 마케팅과 상관이 없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이걸 알고 있는 이상 개인별로 무궁무진한 기본적인 차별화 전략과 대응 논리라는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복합적 사고 논리가 요구 되는 시대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이젠 시대적 요구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난 공대생이니까 공과 엔지니어링만 알면 끝나는게 아니라 공대 + 경영 이수시 진급과 그에 따른 경제적 보상비용은 다른 이의 평균 미국 기준 2.7배 ~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게 현실이며 이미 한국도 마찬가지 추세고..

더구나 하다못해 동네 슈퍼를 해도 그냥 장사만 하는게 아니라 소매점 관리 기법 + 기본 마케팅이라는게 결합되어 차별화 전략이 나오는 것이며 이걸 결국 그에 다른 경제적 보상으로 그 최종 수혜자는 본인인 나 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한 가지만 파면 만사 땡..이다라는건 구시대적인... 이제는 사고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닥치는 대로 배워서 이젠 하루 빨리 은퇴하십쇼... 언제까지 나이 4,50 먹고 계속 일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건 꿈이라고요?... 이미 나이 40대에 은퇴 하고 직업은 취미라는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다는 그런 사고... 그런 생각들이 나 자신의 미래를 미리 단정 짓는 치명적인 함정인 것입니다...

자... 이젠 머리를 세탁하십쇼... 머리를.. 기존 가치관을 과감하게 다 털어내고 각성이라는걸 할 시간입니다..

나이 불문... 성별 불문... 나가면 하는 말이 나쁜 년이 성공한다.. 농담 삼아하는 말이 기존 가치관에 이질적인 행동 패턴으로 성공한 케이스에 대한 거부 반응 때문에 나온 말이죠..

하지만 뒤집어 보면 이런 애들은 일찍 각성을 하고 각자의 대응 논리

를 만들어 낸 경우죠.

난 다르다고요?... 아닙니다... 엄청난 아이큐 140 이상의 천재가 아닌
이상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젠 이것저것 분야를 가리지 말고 닥치는대로 이질적이라고 느껴져
도 접해보면서 머리를 세탁하고 각성하는 그 때...

죽이 되든 밥이 되는... 아니면.. 그냥 똑같은 레파토리에 기계처럼 살
든가... 시스템형 인간이냐... 아니면 주체적인 인간이냐는 바로 이런
기존의 틀 밖으로 나오려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젠... 시스템의 함정에서 헤어 나오십시오...

남은 길은 각성... 아니면 자포자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낀다고
잘 먹고 잘사는 시대는 이젠 그 종말의 끝을 보고 살인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미 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뛰어 넘은 시대라 이겁니다.

그럼 이런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밖으로 생활권 확대를 하든가... 그게
매국이라면 안에서 사는 삶의 패턴이나 물을 바꾸지 않는 이상..

멸종... 입니다...

동물만 멸종당하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인간도 멸종을 당할 수
있습니다..

멸종 그러면 웃지요... 암요... 인간이 멸종이라니... 지금 밥 먹고 숨
쉬고.. 섹스하고... 손잡고 짹짹..하며 살고 있는데..

그건 사는게 아니죠... 살아도 사는게 아닌 인간... 그게 사회적 멸종
위기에 처한 나 자신의 모습이라는 건 생각해 본적이 없으십니까?

혹시 단 한 번도 이런 생각조차 해 준 적이 없습니까?.. 의심은???

근데 그건 시스템적인 인간의 기계적인 생활양식이죠.. 그래 가지고서

야 과연.. 10년 후에.. 20년 후에 뭐가 남을까요.. 답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더군요.. 난 아줌마라서.. 난 노인네라서... 난 장애가 있어서..

나이키 광고가 있습니다... 저스트 두 잇....

플랜-두-체크...

이제 시작하십시오.....

우리 옆집 노인네 최씨도 이젠 그 나이 먹고 새로 장사 시작 한다고 아이템 찾아 삼만리입니다..

날 구할수 있는건... 나... 뿐입니다... 마누라도 부모님도... 3대 고조 할아버지도.. 백마탄 공주나 왕자도 아니라.. 나... 입니다... 각성하십시오... 그런건 솔직히 연속극에나 있는 겁니다...

이젠 티비를 끄고 현실로 나와야죠... 커피를 다 마셨으면 일을 할 시간이라고 빌 게이즈가 말했다잖습니까?...

-늙은이가-

그냥 워드 연습 해 봤어... 그리고 노인네 좀 그만 갈 귀라... 고구마나 파는 노인네... 불쌍하지도 않냐..????

이젠 워드 200타 됐다..이젠 300타 목표로 최종 노인네도 500타를 칠 수 있다는걸 도전 해야지.. 예전 타자 1200타 치는 중학생 애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는 줄 알아???

세상 다 그런거여..

추가 : 탐욕이라고 하는데... 자본주의 400년의 역사상 자본주의의 기본 철학적 배경=인간의 기본적인 내면적 탐욕 이라는 것에서 시작 한 겁니다....

이런 탐욕이 경제 성장의 동기라는걸 유발시키는 것이고 이젠 비난을 하기 이전에 이해를 하는게 중요하고 핵심적이라는 것이죠...

무조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절대로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마십시오요..

그건 나 스스로의 발전 가능성을 극도로 제약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나 행동 패턴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이런 다양한 관점을 보는 눈을 가지실 때... 가능성은 무한대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젠... 가치관 파괴의 시대에 직면한 세상입니다... 애초의 개인적인 원칙적 도덕관을 뺀 나머지는... 모조리 다 고치고 재구성을 할 시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십시오...

박스 좁는 이씨도 이젠 영역 확대를 모색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극도의 과도기적 시기입니다... 이런 과도기적 시기가 지나고 2015년 경 이후부터는 그야말로 새로운 기회 창출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오로지....

준비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날 밤을 새서라도 박차에 박차를 가할 때입니다..

그 때가 되면 이 노인네는 이제 없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리고 혹시라도 13세 미만의 아이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영어 나 부랭이가 아닙니다...

막강한 동기 부여와 굶주린 듯한 야생 늑대와 같은 스트리트 실전 인간... 사람이라는건 모든 기본적인 정서와 도덕관념의 80%는 만 13세 이전에 다 형성이 됩니다..

배부른 돼지로 키울 것인가... 굶주린 늑대로 키울 것인가... 정글로 나가면... 누가 살아남는지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BBC 다큐.... 야생 늑대의 삶이라는 다큐를 한 번 구해서 그 실감 나는 야생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지금 사회 밖에 나가면... 그와 전혀 안 틀린게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니까....

다 함께 힘차게 울어 보십시오

아~~~~~우.....

이젠 야생 늑대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난 아줌마라고 우는 소리 마시고... 나를 구원하는건 나 자신 뿐입니다...

예수 나부랭이가 아니라..

예수도 자기 자신을 볼 보는 인간에게만 구원의 손길을 내 비추십니다..

나를 구원하는건 철저한 나 자신... 신은 스스로를 돌보는 자에게만 미소를...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늙었다고 괘시 말고!!!!.. 살면 얼마나 살겠냐...

금방 웨질 날만 남았는데!!!

안 불쌍하냐!!!!!!

<2008년10월10일>

19. 캐피탈리즘 2 : 일반인들의 경제 접근성을 높이는 유도성

예전에 캐피탈리즘 2 라는걸 한 적이 있었다..

난 늙은이라서 원래 이런 게임 같은건 안하는데 이 캐피탈리즘이라는 게임은 외국 전문 경영 대학원에서 애들이 가지고 노는 말 그대로 현재 일반 회사 운영 경영 시스템을 거의 90% 이상 실사로 반영시킨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이 게임의 특징은 주식 투자는 물론 소매 도매업을 통한 월마트 같은 회사 설립부터 석유 유통 전문 회사에 지역 상권 분석..

한 마디로 상품 거래에 관련된건 거의 모조리 다 된다.. 마케팅에 회사 내에 이사 고용부분까지.

완벽하게 실제 회사를 직접 운용해 보는 것으로써 이걸 단순 애들 놀이가 아닌 완전 100% 경영 트레이닝 실사 게임이다..

노인네가 이걸 그 자리에서 24시간 풀로 하는데... 애들이 하는거 강제로 뺏어다가 하는데 진짜 머리에 쥐가 날 뻔했다.

이건 어디서 구할 수 있는건진 모르겠는데... 구할 수 있으면 직접 당장 하면서 말 그대로 학생이라도 이런걸 하면서 경제 이론의 적용이나 미래에 경영 트레이닝에 굉장히 좋은 흥미 유발용 소스일 뿐만 아니라 고도의 경제 시뮬레이션 게임이다..

아줌마!!!!.. 아줌마라고 해서 못할꺼 없으니까 쫓지 말고....

술 한잔 빨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적어 봤다... 무슨 거창하게 책 보는게 부담스러우면 접근성을 처음에 높이는데 좋을꺼야..

흥미 유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처음부터 3,400페이지 넘어 가는 거 보라고 주면... 질려 버리지...

-늙은이가-

어여 이런 거라도 구해서라도 틈나는데로 트레이닝 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회사 짚리거나 독립을 해도 최소한 귀찮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편책지라도 생기지..

어쩌겠어...

일반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시스템을 모르면 투자나 돈 지르면 안 돼... 그건 내 돈 그냥 주워 먹으라고 뱀의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는 꼴이지..

일단은 이런 걸로라도 뭘 알고 난 다음에 동네 구멍 가게라도 차리는 거지..

게임하다가 책 본건 진짜 머리털 나고 늙은이가 처음이었다.. 팁 모르면 카페도 있다니까 알아보든가.

싫으면 관두든가... 자유니까.

이건 게임이 게임이 아녀... 게임이라고 애들만 한다는 사고방식은 버리고 아줌마...

그런 편견을 버려야만이 위로 올라가는 문이 열리는거여..

안 그래도 지금 나라가 지하 2층 지하실 문 열고 내려가지 직전인데 빨리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닥치는데로 해 보면서 정신 수습 해야지..

이런거 해 보고 100승 중에 90승 넘어가면서 부도 안내면 그 때가서 회사를 차려도 안 망하는거여...

개나 소나 다 사업하고 가게 차리는게 아니라..

왔사리 그럴 바에는 그냥 골프나 치러 다니는게 돈 버는거니께..

<2008년10월10일>

20. [긴급속보] 일본 다이와 생명 전격 파산 결정.

이걸로 지금 신용 지급보증 리스크가 07년 전년 대비로 -17% 수직 상승하게 되었다..

일단은 모든 포지션의 최대한 빠른 청산이 요구되는 시기임..

지금 시간이 없어도 길게는 못쓰겠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서 이젠 신용이야... 경제 펀더멘털 어찌고 개 뺨 다귀 같은 개소리는 이젠 집어 쳐라!!!!..

한국 경제는 펀더멘털 가지고 논의하는 그 따위 나라가 아니니까!

리보는 초단기물이 지금 1.41% 급상승해서 널뛰기를 하는 판국에..

미친... 국제 공조로 금리 인하라니..

이젠 똥 치우는 일만 남았구나... 이 씨 팔 ...

지금 일본은 오전 -10%다.... 각자 어금니 깨물어!!!!!!

젠장 술 퍼 마시고 엎어져 있다가 이게 웬 날벼락이냐... 으이그.. 그 놈의 술 때문에... 돌아버리겠네..

내가 예전에 말한대로 제2금융권 자산 포트폴리오는 모조리 다 정리했겠지... 지금은 그 파급 여력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주의 깊게 관찰해.

일본이고 미국이고 우리랑 뭘 상관이냐는 황당한 미친 소리나 하려거든 아예 귀 틀어막고 살고.

<2008년10월10일>

21. 아니.. 이것들이 정신을 아직도 못차렸네..

아니 이것들이.

내가 분명히 일요일에 뭐라고 그랬어.. 월요일에 낮 12시 넘어 가지 전에 특별한 싸인 없으면 환율 폭등 조짐이 보이니까 오전 중으로 1200원대일 때 미리미리 무리 좀 해서라도 보낼 달러나 결제 달러 있으면 빨리 손쓰고 피해를 줄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리고.. 하루 변동폭이 하루에 세상 천지에 16%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200원이 넘게 변동폭이 급등락을 하는 상황에서..

내가 개인들 보고 환투기를 하라고 했어~~ 안하라고 했어..

내 비록 늙은이지만 난 개미 주제에 이런 장에서는 위험하니까 분명 손대지 말라 그랬지..

그리고...

가만 보면 여기에서 나라 망하라고 부추기는 놈들..

이건 진짜 문제야..

내가 말한 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사회적 기회 비용이라는게 줄어드는 나라니까... 해외로 생활권 확대를 해서 살 궁리를 하거나 국내에서 살려면 경제를 잘 알아야 살아남는다는걸 말하고 대출 금리나 자기 재산 지키는거나 물가 방어하는 생활 태도..

그런게 중요하다고 몇~~ 번을 그렇게 얘기 했는데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로 몇 개월 허송세월하고 아무 준비 안 하다가 단 몇일 환율 폭등 하니까 그나마.. 여기서 까지 환율 폭등해서 나라 다 망하자고 부채질 하는 애들..

진짜 추적해야 해..

내가 몇 번을 말했지..

해외에서 달러 차입을 해 와서 빨리 1200원대로 안정 시켜야지 중소기업 다 안 망하고 이런 지옥 같은 나라에서 그나마 깡통 안차고 밥이나 벌어먹고 산다고..

세상 천지에 환율 1200원이 한달 넘어가면 내년 1/4 분기에는 전체 70%가 줄도산인데..

아무리 단기 환투기에 미쳐도 그렇지..

아예 다 폭삭 망하자니... 내가 빨리 하루가 급하니까 달러 차입을 어디서라도 해서 불 꺼야 한다고 한거지 달러 환투기를 하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을텐데..

환율 예상 수치를 환투기로 돈 벌이에 이용하다가 이젠 외생 변수의 급변동에 급등락을 하니까 이제 와서 손실을 봤느니 안 봤느니... 아이고...

내가 언제 환투기 하라고 했어?... 쇼파 수입상 하는 최씨... 같은 자영업자들이나.. 외국에 딸래미나 아들래미 보낸 애 엄마들..

손실 좀 줄이라고 말을 한 걸 가지고... 또 거기에 환투기라고 몇천씩 꼬라박은 애들...

아까 전화 왔더라고... 왜 떨어졌냐고..

이 염병... 환차손 막으라고 가르쳐 준걸 환투기로 오늘까지 붙잡고 깡통찬 다음에 이제 와서 왜 떨어졌냐니..

당연히 단기간 떨어 질 수밖에.. 오늘 강만수 그 늙은이가 이젠 은행 외환 거래를 예전 80년대처럼 모조리 장부를 일일 거래 감시를 하고 대기업 20개사에 하루 웬 종일 자금 담당 회계 부서에 협박질에..

10 대 대기업 기준으로 나온 달러 물량만 하루에 8억 달러~11억 달러가 넘어 가는데....

여기에 타이밍 맞춰서 1200원대 진입하는 그 순간 망치로 정부 물량 퍼 부어 대니... 왕창 1230원대로 떨어지는거지..

아침에 한 번 보고... 나돌아 다니다가... 종가 기준 달리보고 중간에 손 놓고 있다가 손실 왕창 보고 우는 소리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야..

세상에 돈 꿈짜는 없다고 했어~ 안 했어..

그리고 이번달에는 어찌 되었던 오늘 16% 변동폭이니까 임계값이 종가 기준으로 벌써 플러스 마이너스 185원이 넘어 가는 박스권 상황이란 말이지..

최대 맥시멈 +185원.. 이거 이제 어쩔꺼야..

환율이라는건 환율 증가 1200원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건 그 변동폭이라고 했지.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사단이 벌어져서 나라 전체가 망하느니 마느니 난리 부르스를 추는거라고.

이 나라는 애시 당초부터 잘못 된 나라야... 이 정도로 환 변동성을 키워 놓은 주제에 이제 와서 관치 금융으로 은행간 외환 거래 장부 감시라니..

뭘 놈의 관치 금융???

그리고.. 실제로 환투기 하는 놈들은 나 같은 고구마나 파는 늙은이가 아녀...

지금 강남 강부자 애들 중 개인 외환 거래 다 털어 보라... 달러에 최소 몇 억씩 몰빵한 놈들이 수두룩하니까..

심지어는 지금 골프장에 가도 온통 달러 얘기뿐인데 아줌마가 골드만삭스 얘기하면 웃기는 거지..

골드만삭스 한국 보고서는 봤어?.

지금 한국 은행권에 비상걸렸다는거???

고등학생들 잘 들어..

이런 어른들의 탐욕을 배우지 말고 고삐리때 영어 일본어 중국어나 마스터 해..

왜냐면 고급 정보는 모조리 다 외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한국어로 어느 천년에 일일이 다 번역하냐... 그 때는 이미 한물간 정보라는거야..

학생들... 알겠지???

나 같으면 고1 때 학교 때려 치고 검정고시 본 다음에 2년 시간 벌어서 어학원 다닌다..

검정고시도 한 6개월 단기 과외 받으면 평균으로 다 되더구만.

내 아는 애는 그래서 지금 19살에 3개 국어를 한다.. 한국어 빼고.. 도대체 뭇 하러 학교를 다니는건지.. 하여간..

나라 망하라고 하는 놈들...

정신 차리자.. 환투기 하라고 환율 어찌 될꺼라는거 말하는 사람 여기에 단 한 명도 없으니까.

그리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는게 누가 아고라 보고 환투기 하는거야???

진짜 환율로 투기라는걸 할려면 이런걸 보고 하는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몇 번을 얘기했냐..

나.....

이제 장사 나가 봐야 해...

그리고 늙은이 좀 그만 갈귀라... 고구마나 파는 늙은이 안 불쌍하냐!!!!!!!!!!..

한국 4/4 분기에 국제 유가 80달러 밑으로 유가 안정세 유지 되면 무

역 수지 흑자 전환 유발 요인 70억 달러로 환율은 1170~1200원대로
어차피 내려 간다..

근데 오늘 엔/달러 = 99엔이더라... 그럼 달러 강세 꺾이는데 국제 유
가 반등 모멘텀 요인의 증가로 원화는 또 영향 받겠지.

그리고!... 재미들은 달러 환투기 하지마.....

손실 커버 할 능력 안 되면.....

환율 말하는건 가뜰이나 애들 간난쟁이 유학 보낸 애 엄마들이나 수
입 자영업자들 원자재 가격 그런거 때문에 말하는거니까.

여기에 아무도 투기 하라고 말한 적 없다..

한국 국내에서 거렁뱅이 천민으로 살고 외국 나가면 매국노라고 씌부
리면서... 환율 폭등해서 회사 줄도산 하면...

진짜 좋겠냐!!!!..

사시미 들고 편의점에 갔난 애기 기저귀, 라면, 분유.. 그런거 털러 다
닐래!

-늬은이가-..

크르~~~~릉... 노인네를 마귀로 만들지 마라.. 의외로 한국 노인네들
성깔 있다!!!!

우리 엄니가 그런 쪽으로 대가리 쓰지 말라고 유언하셨다..

그리고 환율 방어 할 돈 1/20 만 있으면 전국 노인네, 장애인, 소년
소녀 가정에 미혼모들 복지 후생비까지 다 지원되는데 그 꼴랑 돈이
얼마나 한다고 그것마저 30% 이상씩 다 까기는 까대냐.

이게 사람 사는 나라냐!!!

증말 이젠 승질 나서 못살겠다... 오늘 또 소주빨러 가야지... 팔 고구

마보다 술 안주로 쳐먹는 고구마가 이제는 더 많다.

앗싸리 뉴욕처럼 시에서 일회용 도시락을 무료 배급을 해 주든가!!

뉴욕 가면 매일 아침 9시 정각에 공원 앞에서 줄 서 있으면 도시락 배달차가 매일 온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냐!!!!

무료 검진도 매일 청진기 들고 와서 해주더구만..

그게 그 염병할 선진국 아니냐!!!

짜증나.....

<2008년10월10일>

< 미네르바 글 모음 카페 - <http://cafe.daum.net/iomine> >

22. ING 지금 박살나기 직전인건 다들 잘 알고 있겠지!

=====

ING May Seek Aid From Netherlands

ING Groep NV, one of the world's largest banking and insurance companies, plans to tap the Dutch government or other sources of funds as soon as next week, people familiar with the matter say, in what would be the latest in the global wave of financial-industry bailouts.

ING shares plunged 27% in Amsterdam on Friday on bleak preliminary quarterly earnings and fears that the company needs more capital.

In an interview after European markets closed, Koos Timmermans, ING's chief risk officer, acknowledged the company "will probably get some more capital." He added that its business remains strong and that it has adequate access to cash.

While it is unclear how much capital ING will raise, a person familiar with the matter said one estimate of \$9 billion is too high.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re coming to the aid of banks hurt by collapsing confidence in the financial markets. The Netherlands, where ING is based, has bailed out rival Fortis NV and established a \$20 billion fund (\$26.94 billion) that its banks can tap.

Representatives for the Dutch finance ministry and central bank declined to comment on ING.

The company was formed through a 1991 merger and traces its roots back to 1743. It offers banking, investment, life insurance

and retirement services to about 85 million businesses and individuals in more than 50 countries and has about 130,000 employees.

ING's share price has fallen 73% this year, giving it a market value of ?15.3 billion.

The company said its bank's Tier 1 ratio, a key indicator of financial strength, was 8.5%. But capital ratios that previously would have been sufficient are now being seen as too low. Swiss banking giant Credit Suisse Group, for example, on Thursday boosted its Tier 1 ratio to 13.7%.

ING said Friday that it expects to report a ?500 million third-quarter loss because of a pretax ?1.6 billion write-down of real estate and other assets as well as loan-loss provisions totaling ?400 million.

Earlier this month, the Dutch government bought operations of Fortis that are based in the Netherlands after the financial crisis and an ill-timed acquisition caused customers to flee the Belgian-Dutch banking and insurance company.

ING shares fell ?2.78 euros to ?7.34 Friday. Shareholders are concerned that a new investment could dilute their holdings.

=====

긴 말 안하겠다.. 내가 예전부터 제2금융권 포지션은 지금 상황상 최
대한 빨리 정리하라고 분명히 얘기 했지.

분명히 얘기 했다.

분명히.

지금 금융 시장 안정화 어찌고 개 뺨다귀 씹어 먹는 소리 하고 있는
데 웃기지 좀 마.

가중스러우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파생부터 시작해서 금융 부실 연계 상품까지 관련 액수만 40조야.. 40조.. 40조 원도 아니고 40조 달러.

한국 정도는 한 방에 끝장 내 버릴 수 있다는걸 명심하고 리스크 관리를 하란 소리야.

개인 박살난다고 한국은 정부에서 쳐다도 안 보는 나라니까.. 이견 이 나라 역사가 증명해 주는 사실들이지.

아마 아니라고는 못할꺼다.

이제 봉고차 끌고 시골 가서 장사할 고구마 푸대 싣고 와야 해서 나가 봐야겠어. 에이~ 쿠.. 늡으면 빨리 돼.져야 하는데.

-고구마 파는 늡은이가-

국내 언론을 믿지 마라.. 항상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범 지구적인 관점에서 대비해라.

남미 옥수수 가격이 오르면 국내에서는 비료값이 뛰는 세상이다.

그리고 난 애시 당초 한국 경제 펜더 멘털 따위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 개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웃기지 좀 마,, 잠시 잠깐 자부심 가지자고 그런 유령 같은 개 뻥다귀 같은 소리에 현혹 되고 싶은 생각 따위는 없으니까!!!

한국 경제라는 건 딱 잘라서 초간단하게 50%가 대외 변수에 의해 철저하게 좌지우지 되는 대외변수 50% 변동성이 진짜 한국 경제 펜더 멘털이라는 그런 개소리의 실체라는걸 반드시 명심하고 살기 바란다.

알겠니???

잔인하게 말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경제 펜더멘털이 어찌고저찌고 떠들어 대기에는 아직 20년 빠른 나라야..

씨알도 먹히지 않는 소리는 집어치고 냉정하게 현실 인식이라는 것부터 해라.

원래 나 같은 극 사실주의자는 가식이나 그런 꿀 바른 소리는 다 집어치고 오로지 철저하고 잔인할 정도의 현실주의자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듣기 거슬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사실 그대로 인정을 해야 그 다음 단계라는게 있는거야.

이젠 파티 끝났으면 일하러 가야지 언제까지 그 딴 환상 속에 사로잡혀서 취해 있을래!!!

-늪은이가-

<2008년10월19일>

23. 1천억 달러 지급 보증을 시장은 어떻게 보는가.

오늘 외환 시장 안정화 대책이라는데 나온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결과가 다 나온 상황에서 전혀 색다르게 없는 상황이다. 은행간 외환 지급 보증이라는 조치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중에 마지막 최후의 카드라고 보는게 정답이다.

마치 낭떠러지 끝에서 마지막 황금 낙하산을 기대하는 심리랄까?..

골든 파라슈트라는 말 들어봤지???.. 지금 이건 딱 그 짝이라고 보면 정답이야.

우리는 10년 전의 그 학습 효과라는걸 절대로 잊으면 안된다. 1997년 12월 20일인가 24일인가 국회에서는 분명 외채 만기 연장에 대한 지급 보장안에 대한 국회 동의라는 걸 했다. 그 다음날인가 다음다음날에 환율은 1900원대 대폭등을 하고 3일 후에 IMF 구제 금융 조치로 들어 갔다.

이번 금융 시장 안정화 조치라는건 일단 외형상으로는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이유로 달러를 지원한다는 헛소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건 이미 우리 동네 유치원 애들도 다 아는 내용이다.

실상은 전혀... 네버... 그렇지 않거든.. 헛.

현재 국내 외환 시장은 달러 부족으로 사실상 시스템 올스톱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이미 정상 시장이 아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환율 안정이라는건 동상 이몽이라는걸 알만한 놈들은 다 알고 있다.. 단순히 하루나 이틀 환율이 1200원대로 떨어 졌다고 오버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미 현장 중소기업들 중에서 웬만한 곳은 최소 1305원에서 최대 1450원까지.. 심지어는 1600원까지 보는 곳도 상당수에 키코로 2차 1080원 재계약으로 개 쌍피를 본 일선 회사들은 이제 두 번 다시 그딴 말은 안 믿는다.

이미 사업 계획상 환율 최대 적정선을 대폭 끌어 올리고 회사 사옥에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 치우는 한이 있어도 자금 확보로 이미 버티기에 들어 간 곳이 대부분이다.

현재 국내 은행의 단기 외채 만기 연장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 위험하다고 할 정도의 상태다. 단기 662억 달러에 장기 외채는 617억 달러 수준.. 외국계 은행 지점은 단기 793억 달러에 장기 37억 달러 수준의 단기 외채가 한꺼번에 몰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 외채를 상환 하지 않고 연장(롤 오버)시켜서 해결하려고 발악을 했지만 연장 기한이 3개월-->1개월-->1주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자율 상승으로 비용 압박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상황.

거기에 현재 연장이 안 되는 물량이 전체 롤 오버 물량 중 7.3%를 넘어 가자 바로 골드만삭스에 모건 스탠리, 무디스, S&P까지 일시에 경고하고 나선 이유가 흔히 한국 애들이 말하는 괴담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 정도로 연장 이행 불능 지경이 몰릴 대로 몰린 상황에서 하루 1~2억 달러짜리 신용장(LC)도 모조리 다 처리 불능 상황이다. 수입 원자재 수입 대금 결제의 경우 10만 달러 이상의 네고를 제한하고 외상 기한 90일 초과 신용장은 네고 불가능이다.

스왑 거래는 사실상 전면 거래 중단 상황이 되면서 선물환 거래는 현재 2008년 10월 말 현재 올스톱인게 진짜 비정한 현실이며 수출 보험 공사의 환변동 보험도 스왑과 선물환 헤지가 안되서 인수 전면 중단 상태다.

지금 신문에서 떠드는 기사들은 모조리 다 개구라다.. 다 거짓말이며 한국 경제 펜더멘탈 어찌고 떠드는게 사실 우습지. 지금 상황은 사실상 시장 마비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런 개 뽕따귀 같은 소리 믿지 말라는거야.. 외신 보도?... 내가 보기에는 황당한 소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현장 상황상 그 말이 100% 다 맞는 말이야.. 오버도 아니고 오히려 괴담이라고 떠드는 한국 애들이 미친게 아닌가 할 정도지..

근데 이 나라에서는 다 이런걸 숨기고 있거든?.. 메이저 언론에선 이런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오지.. 다 쉬~~~쉬.. 참 나.. 이런 현실이 9시 뉴스에 나오는거 봤어???

문제는 은행간 지급 보증이라는게 나오면 마켓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뉴스 앵커는 대본 따라 읽으면서 어떻게든 긍정적인 효과라고 씨부리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게 정답이지 왜냐 하면 은행간 외화 지급 보증 조치라는걸 10년 전 학습 효과로 사람들이 알만한 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 그 후에 벌어진 IMF 핵폭풍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이미 심각한 수준의 은행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 다 폭로가 되서 고름이 터졌다고 보는게 대세거든.

거기에 이런걸 일반 국민들까지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권, 보험, 외환시장까지 불안 심리 확산으로 정부 대책은 모조리 상쇄될 공산이 더 큰 상황이다..

왜냐면 10년 전 IMF 사태에 대한 교훈이랄까?.. 그런게 강하거든... 그 때 이가 갈렸으니까.

거기에 정부에서는 이미 수출입 무역금융으로 50억 달러를 수출입 은행을 통해서 시중 은행에 수혈 했는데 또 200억 달러를 공급해 봐야 현재 은행 단기 외채 600억 달러 수준을 한꺼번에 해갈 시켜 주기는 무리인 데다가 사실상 현재 디폴트 상황 바로 직전까지 몰려 있는 국내 은행들이 당장 달러로 연장 안 되는 채무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 명목???... 솔직히 이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 가는 애들이 순진한거지..

지금 아무도 안 믿거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얘기해 보면 열이면 열 다 개구라 치지 말라면서 아무도 안 믿는다는 판국인데.. 하기사 일반 모르는 애들은 티비서 떠드는 그대로 믿겠지만 실상 현실은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지.

중소기업 지원 (X) ==>> 은행 해외 채무 상환(O)... 이게 정답이란 말

이지.

문제는 300억 달러가 거의 은행 채무 상황으로 입에 털어 넣기도 들어가는 상황상 역효과는 광범위하게 확산 될 공산이 커진 상황이다.

그럼 환율은 과연 어떻게 되는가. 선물환 시장은 사실상 마비.. 그럼 현물환 시장은?..

2/4 분기 : 110억 달러 수준

3/4 분기 : 60~70억 달러 수준

4/4 분기 : 30~40억 달러 수준

이번에 공급 한다는 300억 달러는 사실상 시중 은행의 디폴트 상황 직전에 해외 채무 상환 목적에 따른 달러 긴급 수혈의 성격

따라서 외환 시장에 공급 되는 달러 공급의 수요는 극도로 제한.. 최대 10%를 넘지 않을 것...

그에 따른 불안 심리 확산과 현재 대북한 리스크 확대로 불안 심리 확산에 다른 달러 수요 증가분에 따른 환율은 단기적으로 폭등 할 것이다. 거기에 9월 무역 수지 -20억 달러 요인에 연말부터 +65억 달러 이상이 최소 6개월 이상 가지 않을 경우 08년 4/4/ 분기~09년 2/4 분기상 1270원 ~ 1350원대 밑으로는 절대로 안 내려 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현재 대중국 무역 수지 관계상 이것조차 장담 못하는 상황.

4년전 대비로 대중국 무역 수입액이 3배 이상 폭등.. 1~9월달 대중국 무역 흑자액 규모는 130억 달러로 해마다 격차 축소 추세.

따라서 09년 사업 계획이나 외환 운용시 최저 보수적인 환율은 1305원 ~ 1400원대에서 플랜 설정이 불가피한 상황

차라리 중소기업 지원 같은 말이나 하지 말든가..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마치 진짠 줄 알겠네.. 강만수 이 욕시릴 늑은이가 어디서 사기를 치기는 사기를 쳐.

은행 단기 외채 달리 유동성 공급이 진짜 정답이지.. 생색내기는 엉병..

한마디로 은행 디폴트 직전으로 끝장나게 생겼으니까 거기에 돈 퍼부어 주는거지.. 꿀깎 떨어지 말고 이젠 사실은 사실이라고 말하자.

언제까지 번지르르 한 말로 속여 쳐 먹을래.

-늪은이가-

이제는 구라치지 말고 진실 게임 해 볼까!!!...

크르~릉... 노인네라고 속여 처먹을 생각 하지 마라!!!!..

꼴랑 2400억 달러 외환 보유고에 단기 외채 1300억 달러 가지고 1천억 달러 지급 보증 어찌고 떠들어 대면 외국 애들이 배꼽잡고 웃는다..

월 스트리트 = 금융 귀족

메인 스트리트 = 서민+중산층 (= 실물 경제)

실제 경제 굴러 가는 메인 스트리트에서는 이번 조치는 개 조까는 소리로 밖에 안 듣는다.

그건 확실히 알기 바란다..

크르~~~~릉..

만수가 메인 스트리트로 쳐 기어 나와서 맛 다이를 까면서 실상을 봐야지 답이 나오는데 저런 똥신이 장관질을 하니 절단이 안 나는게 비정상이지...

ㄲㄲㄲ

이젠 오늘은 장사 접고 소주나 마시러 가야지.....

파워-오프.. 전원 스위치 이젠 끈다.. 개 염병 삽질 하지 말라 그래.

그리고 국민, 우리 은행은 지금 요주의 시장 관찰대상 그룹군이니까
각별히 알아서 조심들 하든지 말든지 하고.

뭔 말인지는 다 알만큼 아니까 더 입 아프게 말 안하겠어..

-노인네가-

아니.. 이것들이 그렇게 누르지 말라고 신신 당부를 했건만.

아주 악착 같이 눌러 대네.. 진짜 내 이것들을... 지금 노인네라고 괘시
하는 거냐!!!

이 나라는 하여간 이런 악착같은 근성은 알아줘야 한다니깐.

오늘은 소맥으로 폭탄주나 만들어 먹어야 겠구나... 어이~쿠!!!!!!!!!!!! 너
무 오래 살았어.. 암만.

<2008년10월19일>

24. 김정일 사망 이후가 전혀 준비 안 된 나라.

지금 시중에서 김정일이 죽었네 마네 하는 소리가 요란하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로부터의 학습 효과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김일성이 사망할 94년도 당시 한국 국내 금융권 내의 달러 차입 루트가 모조리 다 봉쇄 되서 그 때 일본 미쓰비시를 위시한 일본 금융권에서 엔화를 차입해서 조달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당시 일본 금융 기관들이 직접 엔/달러 스왑으로 달러 확보를 하는데 도와줘서 그 때 간신히 버텼다는건 아무도 말을 안 해 준다.

그런데 지금 김정일이 죽었네 마네 하는 상황에..

거기예다가 금융 시장 안정화 어찌고저찌고 떠들어 대는 모양세라면.

입장 180도로 바뀌서 만약 내가 외국인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

지금 올해 외국인 직접 투자도 이미 120억 달러 이상 철수 하고 있는 마당에?..

각자 심각하게 생각 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야.. 김정일이라고 영원히 사는게 아닐 뿐더러 더 웃기는건 죽을 경우야.

지금 상황상 우리는 김정일이 죽지 말아 달라고 고사라도 지낼 판국이라 이말이지.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그만큼 엄청난 추가 변수까지 모조리 다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뜻이지..

근데 지금 또 일본 애들 보고 예전 94년 김일성 죽었을 때처럼 그 때 엔/달러 스왑 해서 달러 조달해 주라면 그 애들이 해줄꺼 같니???

어림 반 푼어치도 없지.

이미 알만한 중소기업들은 이미 7.8월 달에 눈치 까고 수입물량 다 들여 온지 오래다.

모르는 놈들만 지금 뒷통수 맞고 피눈물 흘리고 있는거지...
핵심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최소 6개월까지 계산하고 대비하라는 거야.. 얼마 전에 미사일 서해상에서 시험 발사한 목적도 이런 걸 덮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한 성격이니까 말야.

이젠 소맥 1 타임 끝내고... 이젠 막걸리로 사발에 부어 마시는 타임이다... 커억.....

부어라... 마셔라... 나 같은 늙은이가 술이라도 실컷 마시고 죽어야지.....

한잔 들이부어... 크~어억...

이제 노인네 술판에 다시 간다..

<2008년10월19일>

25. 더 이상 펀드환매를 하고 안하고는 이제 의미가 없는 상황.

이제 현재 상황상 더 이상 펀드를 환매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걸 따지는 시기는 이제 끝난 상황..

오펙에서 최소 100만 ~ 최대 300만 배럴 이상 감산조치가 기정사실화 되는 상황에서 이미 현대 자동차의 영업 이익은 전년 대비 -35% 줄어든 상황상.

현재 10월달 무역 수지 적자 예상 규모가 -45억 달러 수준이라는 예상 전망치가 나온 마당에 더 이상 펀드를 환매하네 마네 하는 것 자체의 선택시기는 이제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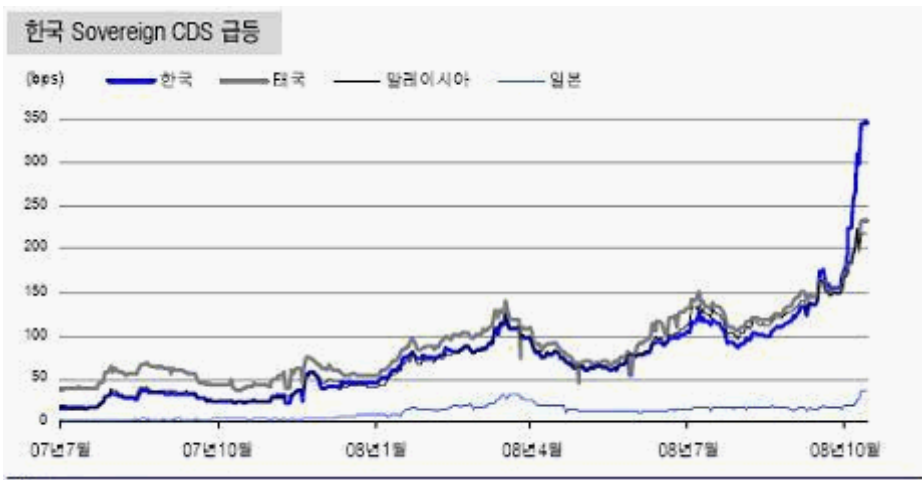
앞으로는 물가와 대출 이자 그리고 부채 청산 문제로 포커스가 옮겨진 상황..

미국은 통상 11월부터 12월에 걸친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총 매출 대비 48%가 이 시즌에 소비되는데 2008년 4/4 분기 전망상 미국 국내의 소매점 구조 조정으로 연내 10~15% 이상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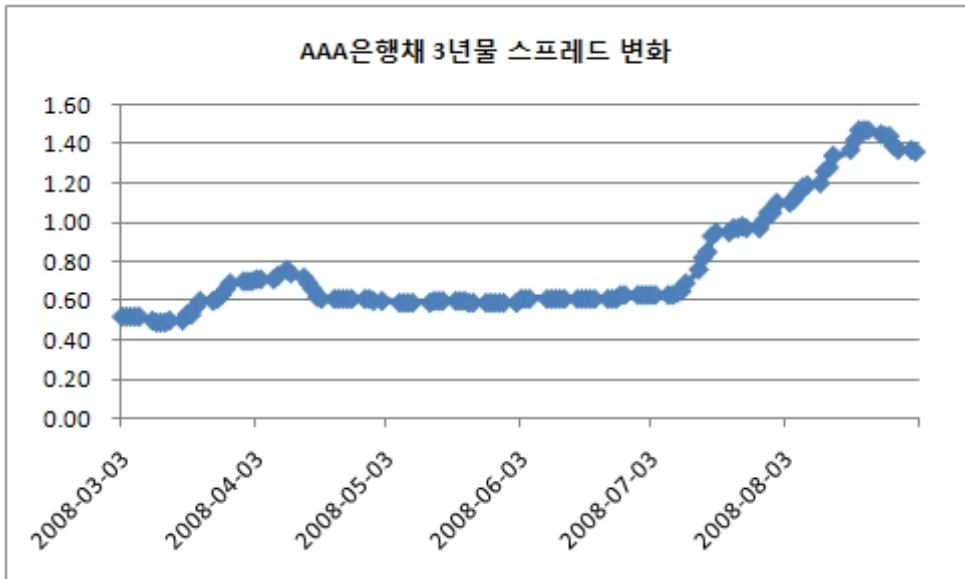
마치 지금 한국에서 제 2차 자영업 구조 조정이 진행 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 속에서 미국 국내 소비 둔화로 수출 확대를 통한 무역 수지 흑자 턴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3만 계약에 달하는 선물 누적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이 대부분 외국인이 발행한 ELS 에 대한 헤지 수요라는 걸 감안 할때 현재 주가 상 투매 가능성이 대두 되고 있는 현재 상황으로 주가의 연쇄 폭락은 이미 기정사실로 보고 각 개별 기관 차원에서 대비책 강구에 나서고 있는 상황.

현재 CDS 프리미엄이 402 bp 가까이 폭등 하는 양상 속에서 한국은 지금 현재 베트남이나 필리핀과 동급인 국가 대외 신용도로 평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해외에서 PF 대출 부실과 연체율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현재 10월 말에 주의할 사항은 영미계 주요 빅 메이저 7 헤지펀드들의 Book Closing (회계마감·결산)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상 한국을 위시한 이머징 마켓 상에서의 추가 포지션 청산 가능성이 농후해 진 것이 현재 관세다.



이 경우 선 순위 포지션의 대상 국가 그룹군은 현재 대북 지정학적 리스크와 PF 부실 문제가 겹친 한국이 제1순위 타겟인 상황 속에서..

현재 국내 금융권의 잠재 리스크 포인트는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1. 장단기 외채와 해외 차입부담금을 포함한 총 4225억 달러 내외에 달하는 달러 외화 부채의 롤 오버 관련 리스크
2. 환율과 주식 시장의 과대 변동성의 확대에 따른 주가 연계 구조화 상품들의 리스크 폭등.
3. 회사채 금리가 8%에서 10% 이상으로 상승함에 따른 채무자들의 금융비용 상승 위험.
4. 일반 상업 은행들의 기존 대출 구조가 2004년도 이후 48% 폭발적으로 증가한 점.. 이 중에서 506조7천억 가운데 390조 가량이 중소기업과 건설사에 대한 대출이며 09년도 4~6% 내외의 디폴트 상황시 시뮬레이션 결과 일반 제 1 금융권 내의 상업은행들은 최대 14% 씩 장부 가치 폭락이 불가피한 상황.

S&P의 국내 은행 신용등급 조정결과			현재 제1위험 그룹군 : 대#은행, 부#은행.
기관명	조정전	조정후	
국민은행	A Stable	A Watch Neg	제2위험 그룹군 : K#금융, 신#지주, 외#은행.
우리은행	A- Stable	A- Watch Neg	
신한은행	A- Stable	A- Watch Neg	
하나은행	A- Stable	A- Watch Neg	(실명 거론은 절대 안 하겠음.. 각자 알아서 판단 요망. (주))
하나펀딩	BBB Stable	BBB Watch Neg	
외환은행	BBB+ Stable	BBB+ Watch Neg	현재 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는 건 PF 부실과 동반해서 부동산의 자산 디플레이션의 시나리오의 실현화.
우리금융	BBB+ Stable	BBB+ Watch Neg	
신한카드	BBB+ Stable	BBB+ Watch Neg	

이 경우 부동산 대출에 대한 심각한 수준의 신용 리스크 부담을 은행권 자체에서 져야 하는 문제가 발생 하는데 이걸 일단 토지에 대한 버블은 미래에 대한 미실현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 자산 가치라는 것이 현재 자산 가격에 +플러스 되서 선반영 되기 때문에 현재의 이런 디플레이션 리스크 요인은 심각한 자산 손실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토지 수용을 포함해서 개발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비용의 상당 부분이 토지 가격에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인데 현재의 지방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의 잇따른 주요 건설사들의 도산과 추가 개발 계획 포기 및 미분양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 될 경우 토지 및 부동산 실물 자산 가치의 유지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돌아가는 판세에 대한 신중한 접근성이 요구 되는 상황.

이제는 실물 분야로 본격적인 포커스가 맞춰 지는 상황. 더 이상 펀드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건 이젠 현재 시점상 더 이상 무의미 한 상황.

반드시 명심할 건...

1. 섷!,,, 침묵은 금이다..
2. 지금 앞으로 3년간 모든 일은 쥐도 새도 모르게..

반드시 명심하도록... 이상..

-늬은이가-

<2008년10월20일>

26. 솔직히 뇌 구조가 의심스러운 상황.

현재 $CD = 6.12$, $CP = 7.11$

이걸 가지고 안정화라고 한다면 솔직히 이제 할 말 없음...

왜 정부 마지막 비상 플랜이 나왔는데도 계속 최고치를 경신 하지???

한 마디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

이젠 10년 전처럼 또 다시 알고 당할 수는 없다. 애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안 당해 봤으니까 지금 이걸 위기감 조성 어찌고 헛소리질이지.

그 때 온 몸으로 핵태풍을 맞아 본 사람들이라면 학습 효과의 교훈상 절대로 아니라고는 말 못하지.

아직은... 아냐... 암...

또 다시 알고 속아 달라는거 무리잖아???

솔직히 이제 뇌 구조가 의심스럽군...

<2008년10월20일>

27. 어제 마트 가서 나도 놀랐다..

딱 가면 행동 궤적이라고 해서 사람이라는건 일정한 패턴적 습성이라
는게 누구나 있다.

그래서 항상 가는 그 방향으로 돌게 되어 있지.. 그런데 유심히 보는데
한가지 특징을 발견했지.

바로 제품 외장 디자인이 바뀌거야. 외부 케이스 디자인이 바뀌거나..
아니면 포장이 바뀌거나.

한 마디로 양이 줄어드는 거지..

한국은 딱 정해져 있다.

가격을 내려도 기업 입장에서는 상관없지.. 왜냐고?... 내용물을 줄이면
되거든.. 그걸로 가격 상승분을 다 상쇄 시켜 버리더군.

그게 아니면 가격이 오르는 대신 제품 외장 디자인은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가격이 그대로인 대신 외장 디자인이 교묘하게 줄어들거나..
그리고 과자 같은건 안에 헬륨 가스라고 하나?... 2/3이 가스야.. 포테
이토 칩 한 봉투 집어드는데.

샴프는 딱 보기에다 슬림화 되어 있고. 농산물은 자세히 안 봐서 모르
겠는데. 하여간 교활한 건 대단하더군.

어제 가서 새삼 혀를 내둘렀다.

이런 식으로 계산대에서 계산하면 일단 피부로는 사람이라는게 심리
적으로 물가 타격이라는걸 못 느끼게 교묘하게 장치를 마련했더군.

실제로는 이미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데 말이지..

가서 그런걸 자세히 보면서 물건을 집어 들면서 느낀 점이야.

항상 일정 시간에 똑같은 패턴으로 비슷한 물건을 사다 보니까 확연

하게 알겠더군... 큼...

이것도 기업 전략이라면 할 말이 없지만... 나 같은 노인네처럼 예민하고 민감한 성격 가진 노인네들은 단 번에 알아보거든.
왜 디자인은 바꾸니??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물가 상승률에 이런 변칙 변수들이 안 잡히는 거야..

교묘하게 통계의 함정을 이런 식으로 빠져 나가지.. 미꾸라지 빠져 나가듯이... 그러면서 기업 영업 이익은 보존 하고 말이지..

큼~~~~

책상에서 숫자로만 통계 수치 때리면... 당연히 모르지... 일선 현장에서는 변칙 룰을 쓰는데 말이지..

이 엄병할..

<2008년10월20일>

28. 살인적인 한국 물가... 이제 알고 당하자

[표] 주요 식품류 가격 비교

품목	2007년 9월	2008년 9월
돼지고기(600g)	5880원	9900원
닭고기(1kg)	3500원	6400원
식용유(1.7L)	3870원	4670원
밀가루(2.5kg)	2790원	5300원
달걀(30개)	3850원	4650원
우유(1L)	1779원(2008년 4월)	2170원
참치캔(150g*3)	5100원	5990원
합계	2만6949원	3만9080원

(주 : 9월 환율 미반영 분)

1년 전 전년 대비로 봐도 현재 물가 상승률은 50% 이상 폭등한 상황.. 현재 10월 내의 환율 폭등 분을 감안할 경우 65% 이상으로 수치가 대폭 올라가게 된다..

오늘 어떤 분이 한일간 물가 상황을 비교한걸 보여 주셨다.. 그리고 지금 한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극단적인지 소름끼치게 놀랄 정도로 이미 이 나라 물가는 이제 한계 상황을 넘어 선 것 같다.

한/일 환산 비교	한국	일본
돼지고기(600g)	9900원	11940원
닭고기(1kg)	6400원	15600원
식용유(1.7L)	4670원	7870원
밀가루(2.5kg)	5300원	4700원
달걀(30개)	4650원	8460원
우유(1L)	2170원	2300원
참치캔(150g*3)	5990원	5970원
합계	3만9080원	5만6840원
물가 차이		한국의 약 1.4배정도
기저귀(60매)	27700원	20850원

(주 : 10월 19일 현재 기준 환율 적용시)

A	B	C
품목	일본엔화	원화 환산금액(100엔/1296원)
돼지고기썬것(100g)	154엔	1990원(원단위 절사)
닭고기 다리살(100g)	121엔	1560원
식용유(1L)	358엔	4630원
밀가루(1kg)	148엔	1910원
달걀(10개들이)	218엔	2820원
우유(1L)	178엔	2300원
참치(80g*4)	328엔	4250원
기저귀(44매)	1180엔	15290원

결론 : 도표상으로는 한국 대비 일본 기본 생필품 물가 수준으로 비교 시 일본이 1.4 배 정도 비싸지만 한국의 10월 19일 환율을 적용시 1.02로 사실상 매칭...

비교 우위 자체가 사실상 없는 상태가 현재 한국 : 일본의 기초 생필품 물가 가격 대비 상황...

	한국	일본
2008년시급	4,000원	950엔 ->12,310원
시급 차이		한국의 3배

한국의 법정 최저 임금은 시급 : 3770원.. 일본 도쿄의 경우 766엔 (=9920원) ==>> 2.6배..

일반 평균 대비 약 3배의 차이.. 일반 직장인 평균 시간당 임금 차이에서도 약 최소 2.2 배 정도의 격차..

(주 : 인용 도표는 인터넷 도표를 참고한 것임.)

=====

그렇지만 일본의 주거 비용에 따른 비용 계산을 합치면 이견 아니지 않나요???

결론은?... NO...

왜냐면 현재의 한국의 CD 금리가 오늘자로 이미 6%를 돌파한 상황에 대출 이자는 연 9%를 뛰어 넘어 10%가 코앞인 상황에서 일본 현지 월세 가격과 현재 한국내 부동산 포함 실물 자산 디플레이션 추세를 감안할 경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기존 상식의 틀이 깨지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에서는 노동부 장관이 직접 자기 입으로 최저 임금이 급격하게 상승 한다는 소리를 대놓고 하고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 추가 우려로 인해 사실상 동결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당 최저 임금 포함 일반 직장인 시간당 임금 표준 대비로 최소 2.2배~2.7배 이상 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상...

기초 식료품 포함 기초 생필품 물가 수준은 한국 : 일본 = 사실상 1:1 인 상황.

이건 현재 한일간 경제 격차로 봐도 비정상적인 수준이며 임금 동결과 개인가구의 금융 비용 상승에 따른 고통 지수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살기 힘든 나라라는 걸 극적으로 보여 주는 상황이다...

이젠 나가서 일본 물가 비싸다면 싸대기 맞는다... 히려 다 고려하면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현재 기준으로 약 1.7배 정도... 실질 생활상 더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물가는 이미 기형적인 물가 상황에 도대체 물가 대책이라는데 뭐가 있는지 의심스런 상황..

이런 추세가 더 가속화 되고 일본 대비로 피부로 느끼는 물가 피폭 효과라는데 2배 정도 벌어지면..

그 땐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미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먹는걸 줄이기 시작했다... 마트나 시장에 가 봐도 예전에 비해 절반 이상 유통 소비 인구가 줄어들었다..

과연.... 어디까지 해야 숨을 쉬고 살만 하다는 소리가 나올지 의문시

되는 2008년 10월달 가을이군.. 아예 물가로 다 말려 죽일 건지..

결론 : 이젠 사람들이 먹는 가격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는건 심각한 상황이라는걸 의미 한다.. 한국의 60년대부터 2000년대 까지 지금껏 폭발적인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한 중요한 변수 중 하나가 한국 국내에서의 안정적인 식료품 가격의 공급에 있었다는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여태까지 한국에서 살면서 설사 임금 격차가 벌어지더라도 그나마 사회가 무난하게 돌아간 핵심 변수는 물가 안정이였고 그 중에 핵심은 이런 기초 생필품 가격과 식료품 가격의 안정화였다..

한 마디로 쌀 식량을 공급해 주는 나라였는데 이젠... 그것도 무리란 얘기지....

그래서 이젠 소득 격차에 따라서 먹는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젠 또 다른 사회 불안의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지금 그 타이머를 돌리고 있다..

한 마디로 미친거지..

나도 박정희를 별로 안 좋아 하지만... 그 옛날 박정희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

제1화두가 쌀 먹거리 제공이었다.. 배 굶는이들 없이.....

난 이런 부분에서는 이 분을 존경 하는데 지금 이 나라 미친 정부 애들은 이런 박정희의 경제 철학이나 이런 부분에는 발끝에 때만도 못 따라 가는 수준이지.

그런 주제에 입만 쳐 열면 박정희를 써 먹는걸 보면 진짜 가증스럽다는 생각도 들더군.. 니들은 창피하지도 않냐?..

이미 죽은 그 분을 지금 이런 개판으로 해쳐먹으면서 들먹거리는게?... 뻔뻔스러운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2008년10월20일>

29. 일본도 충격받은 한국의 살인적인 물가.

한국에 사는 주한 외국인들과 얘기하다 보면 요즘 최대 화두는 단연 현재 아시아 최고 수준의 한국 물가다.

거창한 주식이 어찌니 월 스트리트 얘기가 아니다.. 한국 물가가 왜 이리 비싸냐고 이구동성이다.

거기서 이미 한국은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을 끌어안고 있다.. 초기의 물가 정책 실패에 따른 그 정책 실패의 폭탄을 이제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이 다 뒤집어 씌고 있는게 현재 한국 2008년도의 오늘 모습이다.

(주 : 이 글은 현재 일본에서 일하면서 공부하는 유학생의 한국 물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경고: 심장이 약하거나 혈압이 높은 분은 읽지 말기 바란다.)

=====

일본을 와서 한국의 생활을 돌아보니 우리나라는 정말 문제가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인 이라면 거의 다 해봤을 아르바이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르바이트는 대체로 3500~5000원 사이의 시급을 줍니다. 대충 4000원으로 평균을 잡고 30일동안 8시간을 일한다고 치면 72만원정도가 나옵니다.

만약 혼자산다고 한다면 방세(방세도 험드려나요?)에 이런저런 공과금과 교통비 식비로 지출되고 남은 돈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략 10만원 +-일거 같네요. 그리고 시급이 4000원인데요 과연 이 시급으로 할 수 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밥 한끼만 먹어도 한시간 동안 번 돈이 날라갑니다. 교통비로 따지자면 이틀치네요.

그러면 일본을 보겠습니다. 일본의 아르바이트는 현재 최저 950엔인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정도의 가격이면 하지를 얹기 때문에 1000엔 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본에서 제가 일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취학비자의 경우 하루 4시간 일주일에 32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금요일로만 일하는 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달 30일에 토, 일을 빼고 난 22일동안 4시간을 꼬박꼬박 일하면 88000엔 정도가 나옵니다.

이 돈이면 조금 저렴한 맨션 같은 곳으로 들어가고 공과금과 교통비를 빼면 한달에 3만엔 정도의 여유돈이 남습니다. 이 돈으로 놀러가든 저금을 하든 무언가를 사든 할 수 있습니다. 겨우 하루에 4시간 일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시급 1000엔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1000엔이면 밥을 두끼를 먹어도 남고(한국에서는 한끼) 하루 4시간을 일하면 그 달의 공과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우리 청년들이 현재의 시급으로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고 독립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시급은 정말 최저생계비로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딱 먹고 죽지 않을 만큼의 시급만을 주면서 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생필품이 오르고 물가가 내리면 내려야 되는 생필품이 내리지 않고 멈추는 한국일본에 와서 비로소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에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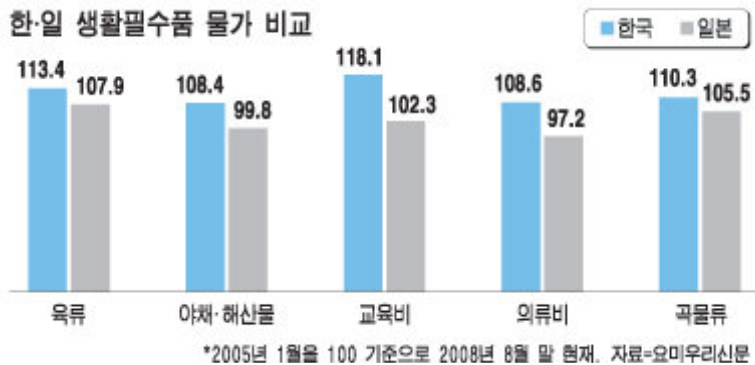
더 웃긴건 제가 생활하는데 오히려 일본이 더 싸게 먹힌다는 겁니다. 교통비도 여기서 살 거면 정기권만 끊으면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시급은 한국의 두배가까이 되고요. 우리나라 도 대체 언제쯤이면 살기 좋아질까요...?

=====

현재 한국의 물가 수준은 이미 일반 서민들이 감당을 해 내기에는 비정상적인 패도 이탈 탈선 기차나 마찬가지로인 나라다.

이미 한계 가정들의 숫자가 48만 가구를 육박 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

에서 이런 일본도 놀랄 정도의 가공 스런 물가를 감수하고 닥치고 살라는건 이젠 도저히 무리다.



차라리... 죽여라...

탈출 하든가... 죽든가... 그 잘난 염병할 애국심이나 나부랭이고 간에 이젠 도저히 못살겠다.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

솔직히 외환 보유하고 나발이고 간에 가장 크게 우리에게 피부로 느껴지는건 은행 대출 이자와 교육비 문제... 그리고 물가 문제다..

그런데 이젠 물가가 사람들 목을 조르고 죽으라고 한다... 그럼...

진짜 죽어 줘야 하겠니???... 응??..

내가 볼 때 이 나라가 원하는건 물가로 국외 탈출을 유도 하거나 인구 감소를 통해서 747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밖에는 안 보인다..

747 어떻게 하나고?...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지... 바로 인구 감소... 지금 인구 절반이면 그게 가능하거든....

<2008년10월20일>

30. 2009년 경제 성장률 2.7%의 의미.

2009년도에 3% 성장 어쩌고 하지만 2% 대의 경제성장률이 나오는 곳도 있다.

저번에도 분명히 얘기 했듯이 한국은 경제 성장률이 3%대에 접어들면 기업체 내에서의 인력 구조 조정이 벌어지고, 2%대에 접어들면 신용 쇼크라는게 온다..

문제는 이 신용 쇼크 부분인데 만약 내년에 2% 대에 경제 성장률에 진입을 할 경우에는 09년도에 바로 이런 신용 누적 쇼크가 터지지는 않는다.

2010년도인 그 다음에 그 신용 부분이 폭발 하게 된다. 아마 개인적 차원에서 가계 부채를 다 청산 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공산이 크며 이미 기존 경제 성장률이 3%대가 기정사실로 인식이 되는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약 45만~57만명 규모의 인력 구조 조정은 불가피 한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선방어적인 고려로 내 가족들 먹여 살리는데 미리 지금 대비를 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한국처럼 싸구려로 개돼지 처럼 부려 먹지는 않는다.

최소한 물가 대비로 먹고 살게는 해 주고 부려 먹어도 부려 먹지.....

이게 사람 사는 나라냐?... 이젠 물가 비싸다는 일본보다도 더 살기가 배로 어려워진 판국이니 진짜 못살겠다는 애들 천지다.

설사 내년부터 이제 가시화 될 구조 조정으로 회사 나와도 가족들 먹여 살릴 기술 하나 정도는 미리미리 직장 다닐 때 배워 놔라.

이젠 그 경제 불황의 그늘이라는데 숫자로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늙은이는 이번 주말에 간만에 풀코스로다가 경마 경륜 카지노 포커로 죽을 때까지 이빠이 한 판 벌이고 가야겠다..

왜냐고?... 노인네니까... 노인네니까 이런말 해 주는거야... 냉정하게..

나 같은 세상 다 산 늙은이들이야 빠짱코 가게 가서 이빠이 땡기다
죽어도 상관 없지만 아직 젊은 애들은 자식새끼들 핏덩이 키워야지..

안 그래?..

회사에서 술 마시면서 술만 마시지 말고 이런 구조 조정 리스트 같은
거 있나 없나 은근슬쩍 한번 떠 보는거 잊지 말고..

요즘에는 회사별로 이런걸 쥐도 새도 모르게 만들어서 준비하는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라서 하는 심각한 얘기야.

<2008년 10월 20일>

31. 워싱턴 포스트를 보고난 후....

워싱턴 포스트에 한국 경제 관련 기사를 자세히 보고 난 후에 느낀 것은..

이제 드디어 저장도 쇼크에 접어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외국과 한국의 틀린 점은 사회 안정망이 한국은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노동부 장관이 최저 임금이 비싸다며 그것도 깎고 국회의원 애들이 복지 예산 줄여서 종부세 깎자는 나라다..

이미 30% 이상 다 줄어들었거든?.

그런 상황에서 이젠 최소 3년~5년 정도는 저장도 쇼크의 실물 경제 타격을 감수해야 하는걸 각오해야 하는 상황까지 닥쳤는데.

문제는... 지금 아무 준비도 없이 뭘 수로 3년 이상을 버티냐고.

지금 생활비로 쓸려고 은행 대출까지 받는 사람들 천지인 마당에.. 지금 개인 가구당 적자가 최소 -40만원 이상씩 나면서 적금 깨고 대출로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이 농담이 아니라 지금 전체 가구 45%다..

거의 절반이지..

이젠.. 환율이나 주식 나부랭이가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는건 이제 늙은이의 노망인가???

진짜 무섭다.... 무섭다기 보다는 소름이 쭉 끼치는게... 날이 갈수록 외국어 능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외국어를 취업이나 시험용 문법 외국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젠 실전 회화 중심의 커뮤니티 회화가 몇십 배는 더 중요해졌다는 거지.. 나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실제로 미국 가면 미국 애들은 영어 말고 거의 배우는게 프랑스어 아

니면 스페인어거든... 비지니스 하려면 스페인어는 필수지.

이젠 동일 문화권에서.. 중국어나 일본어는...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인 세상이 되었다... 하다못해 국내에서 일자리 막히면 해외 나가서라도 일해야지 벌어먹고 살꺼 아니냐고.

지금 국내에서 통계에 안 잡히는 사실상 실업자 젊은 애들이 280만명 이야.. 거기에 올해 대졸 취업률은 솔직히 50%...

더 문제는 혼자인 2,30대 애들은 차라리 라면이나 끓여 먹고 버티지... 문제는 40대 이상 개인 가구들..

국제 유가가 이미 중동 애들이 손익 분기점 이하로 떨어지는 비정상적인 폭락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 100만~300만 배럴까지의 감산 조치 검토가 나오고 문제는 중동의 유가 하락이 역으로 대중국 수출 감소와 더불어 무역 수지에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점.. 차량 판매와 플랜트 수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게 가시화 되는 상황.

더구나 일반 주유소에서는 기름값을 못내린다... 3개월 대비 국제 유가가 거의 -48% 가까이 폭락해도 환율 폭등 상쇄분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사실상 -23% 내외로 반감.

그런데 고객들은 왜 국제 유가는 떨어졌는데 동네 주유소 기름값은 안 내려가냐고 성화..

환율 상승이 무역 수지 흑자에 긍정적이라며 역발상을 즐기라는데... 이미 중국 성장률이 9% 꺾이고 중국내 부동산 실물 자산 가격 폭락에 따른 실물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한 현재 상황에서..

미국은 이제 실업률 9% 돌파는 기정사실에 10% 얘기까지 나오는 현재 상황상.....

무슨 흑자...

세금은 최대한 늦게 내고... 식료품은 장기간 먹을걸 구입하면서...

나 같은 늙은이는 이제 올 겨울 집에서 매 끼니 수제미나 끓여 먹으면서 버텨야지..

근데 혹시 지금 살면서 뭐 느끼는거 없어?... 올 겨울에는 갑자기 관리비가 5만원.. 10만원씩 오르는 경험을 하게 될꺼야...

아마 예민한 애들은 눈치 다 챘을텐데???????

밀가루 사러 가야지.. 구루마 끌고 가면 한 두푸대 사 올수 있거든...

핵심은 이거야.... 작년까지만 해도 먹고 싸고 입고 집에 불 때고 텔레비 키면서 생활 하는데 가게부에 빵꾸가 안 났는데 지금 2008년 10월 현재는 개인 가구당 최소 -40만원 이상씩 빵꾸가 난다는 거지.

이걸 개구라라고 한다면 100% 이런 집구석 살림돌아 가는거 모르는 남자 애들이거나 학생애들 뿐이야..

이게 비정하고 잔인한 현실이라 이거지.. 이거..

이제 이거 어쩔꺼야???

그렇다고 애들 먹이는데 이상한거 먹일래???

그리고 니들 집에 가서 반찬 투정 하지 마!!!... 반찬이 어찌고 저찌고 할러거든 나가서 투잡 쓰리잡 하고 난 다음에 반찬이 어찌네 국이 어찌네 떠들든가..

집구석에 있는 여편네들은 지금 그게 아니든???

<2008년10월21일>

32. 한국의 신생 귀족 계급 탄생과 몰락의 명암.

한국에는 건설 귀족이 있다.

오늘 나온 신생 용어라더군.. 건설 귀족...

"오늘 왕께서 세금 9조원의 녹봉을 친히 하사하셨다.."

한국판 튜더스3... 왕조의 공멸... 개봉박두..

다른 일반 제조업체들이나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은 나자빠지든지 말든지... 수 많은 이들의 복지비를 30%~40%씩 쳐 깎으면서 건설사들에게는 친히 세금을 하사하시는 친절한 금자씨.

예전 도스토예프스키가 하는 말이 그 나라의 수준을 알려면 교도소 내의 범죄자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

진짜 이젠 뻔히 보이는구나..

미국에는 월스트리트 금융 귀족들이 있다면...

한국에는 여의도 건설 귀족들이 있다...

뿌드득....

농가 지원금도 은근슬쩍 깎으면서... 9조가 무슨

동네 개새끼 이름도 아니고...

농노들이 예전 제정 러시아 시대에만 있는 줄 알지?..

웃기지 마... 지금은 그 착취하는 방식이 좀 세련되게 변했다 뿐이지 전혀 세상 달라진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크르~~~~~릉...

예전 머슴살이 하던 때 생각난다.. 일제시대때 집집마다 보모들하고

아씨아씨 하면서 따라 땡기는 애들 있었드랬는데.

이런게 없어진게 한국에서는 6.25 전쟁 끝나고 부터지..

이런 신분제 질서가 사실상 없어진게 불과 채 50년 남짓이야.. 60년대에도 이런 집들이 상당수였으니까..

절대로 착각 하지 말고 살아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애들은 자유 어찌고 떠드는게 가증스러워 보일 뿐이니까.

이런걸 모르고 사는게 매트릭스 속 시스템 인간인거지... 지금 세상에 바뀐건 IT와 매스 미디어.. 그리고 신식 건물들과 패션 밖에 아무것도 없어..

그게 진짜야... 그러니까 빨리 깨어나라는거고..

나도 예전에 10대 때까지는 머슴살이 하면서 마님댁 애기 업고 다니면서 똥 귀저기 같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은 경마장 가고 빠짱코 가잖아... 별로 세상 바뀐거 없어..

다만 껌테기만 바뀐거 뿐이지..

<2008년10월21일>

33. 이명박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발언.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한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발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축구팀에서 잘났건 못났건 간에 어찌되었건 감독이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지금 전반전 초반에 열세에 허덕이면서 팀플레이 전체가 코너에 몰려 팀이 붕괴 직전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

감독이 뛰어 나와서 "지금 IMF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지껄이면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걸 떠나서 황당한 것이다.

거기다가 강만수 코치는 중앙이 무너졌는데도 미드필드를 포기하고 중앙에 올인하라고 계속 주문한다.

그러면서 감독은 팀 코치의 전력 분석에 대해 아는지 모르는지 일언반구도 없다.

그 사이에 미드필더와 중앙이 동시에 위험해지면서 팀플레이가 지금 붕괴 직전이다.

그런 때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나와서 한다는 말이 이미 게임 망했으니까 각자 개별 플레이를 하란다.

그럼...

망할까??? 거기에 지금 베스트 11이 다 힘든 판국에 건설 하나 불러다가 넌 특별 보너스가 9조원이 나오니까 분발하라고 한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야???

한 마디로 사기 저하와 몸 사리기로 굳히기에 들어간다..

그런데 팀 코치 강만수는 계속 몰아 부치라고만 한다.. 에이스 한명한

테 특별 보너스 9조원을 주고 혼자서 마라도나가 되라고 해 봐야..

중앙 깨지고.. 미드필더 뚫리고... 애들은 이제 쫓아서 몸 사리기에 들어가서 나만 나서 봐야 손해라는 생각이라는 계산기 때리면서 다음 2012년 이후에 포스트 시즌 준비해야 하니까 몸 사리면서 체력 보존해야겠다고 저런다.

그러면... 게임 끝난거지...

7월달에도 3차 오일 쇼크 떠들면서 9월 괴담 만들더니... 또 다시 안 그래도 불안감이 폭발 일보 직전인 시장에 핵폭탄 떨어 뜨린다.

이젠 피아 식별이 불가능 하다는 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진짜... 누구 편이얏!!!

크르~~~~~릉...

지금 그라운드 선수들이 몸 사리기 시작했다... 마라도나 한 명 한테 9조원 특별 보너스 준다고 이 경기를 혼자서 승리로 이끄는 게임메이커는 이 경기판에는 없다.

말로만 입방정 백날 허구헌날 떨어 봐야 지금 이 판때기에서 누가 민냐고.

안 그래???... 진짜 이젠 대가리 지능지수가 의심스러울 정도야..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버티기 들어갔다는 말...

이런 얘기 흘러나올 정도면 게임 끝난거지.. 각자 몸 사려.

<2008년10월21일>

34. 일본계 달러자금에 굴복한 한국경제 2008년 완결

솔직히 말해서 이젠 하반기 환율의 추가 폭등은 기정사실이다.

현재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한국이 23%로 단연 최고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중국내 실물 경제 타격의 여파와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한 대외 무역 수지 적자 기조는 현재 상황상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 가고 있는 현실이다.

더 큰 문제는 중국내 부동산 문제인데.. 중국에서는 통상 집값의 70%를 은행 대출로 융자를 받아서 사는게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 지난 10여년간 중국 주요 25개 대도시 평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했는데 올 들어 2/4 분기를 기점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대폭락을 하는 양상에 연체율 급증과 이로 인한 금융비용 압박으로 인한 소비 여력의 감소로 소비 시장도 현재 3/4 분기 -17% 정도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미국/중국/일본내 소비 침체와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여파가 한국 총 GDP 에서 수출 비중 48%를 차지하는 현 상황상..

대외 변수 요인에 의한 10월 대외 무역 수지 적자가 이미 기정사실화 되는 현 상황과 1000억 달러 정부 지급 보장에 따른 의회 비준 결의 일정 지연에 따른 여파로 최소 11월 1째 주 내에 단기 급등 요인은 불가피 해 보인다..

현재 핵심은 결국 일본.. 앞으로 일본의 다카가와 쇼이치 일본 재무부 외상의 한국 국내로의 달러 차입을 해 줄 것인가가 가장 핵심 관건이었으나 IMF 연차 총회에서 일본의 2조 달러 규모의 달러 유동성 공급을 해 주는 국가 그룹군에 한국도 포함이 된다는걸 간접 시사함에 따라 사실상 일본계 달러 자금 수혈은 연내에 불가피한 기정사실화 된 상황이다..

한국 정부의 정부 지급 보증 따위는 솔직히 지금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안정 이외에는 아무도 안 믿는다. 결론은 실제 돈 줄 권 놔서 돈을 외부에서 공급해 주느냐 마느냐 였는데 결국... 일본이 답이군...

단기 급등 후.. 완만한 환율 안정... 대신에 이에 따른 대일 경제 존속

의 심화를 넘어선 자본 종속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빠르면 10월말... 늦어도 11월 중순이나 연말경에 메이드 인 재팬 달러 수송기가 올 것이다.. 자금 규모는 대략 700억 달러 규모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실제로 보는 마지막 카드로 보는게 현실이다.

사실 일본 현지에서 일요일부터 일본 애들이 티비에 인터넷까지 나오고 난리가 났지.. 한국 거지새끼들이 또 돈 빌리러 왔냐느니 어찌느니.

독도를 내 놓으면 달러를 빌려 줄 용의가 있느니 어찌니.. 오만 더러운 소리에.. 근데.. 어찌겠어... 결론적으로 이게 마지막 방법이 된 마당에....

에~휴...

사쿠라 벚꽃 피는 오사카의 봄날이여~



니폰도... 이젠 또 다시 2000년 밀레니엄에 또 다시 사쿠라 광풍이 몰아닥치겠구나... 니혼...

<2008년10월21일>

35. 이제 일본 경제 종속은 기정사실인데 문제는..

이런 판국까지 왔으니 가식 다 집어 치우고 사실상 이젠 앞으로 일본 경제 종속은 기정사실인데..

진짜 문제는 금산 분리 완화 ==>> 일본계 자금 대거 유입 ==>> 대기업 은행 영업 시작 ==>> 소매 금융 확대. 이거란 말이지..

이제 금산 분리 완화로 인해서 대기업 삼성 은행 차리면 100% 일본계 자금 들어와서 소매 금융으로 시티처럼 영업 시작할꺼란 말이지..

설마 갑자기 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은행 차리고 장사 시작할꺼란 생각은 안하겠지..

이때는 이건 뭐... 완전 말만 한국말 쓰는 것뿐이지 경제는 재팬 코리이지..

금융이 일본계 자금 종속으로 넘어가면 다 넘어가는거나 마찬가지지 뭐 말 다한거 아냐?.

빨리 일본어나 배워 놔라... 이젠 대일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다만 다 산 늑은이가 볼 때 아쉬운건... 앞으로 불어 닥칠 왜색 광풍...

왜 역사 과목을 잘 공부해야 하나 하면 역사는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이거든.. 예전에 일본 애들이 1907년까지 한국에 1300만원 정도의 대일본 차관이라는걸 한국에 제공해 주는데 이 때 우리 조상님들이 벌인게 국채 보상 운동이었거든..

그래서 국채 보상 기성회인지 보사회인지.. 하는걸 만들어서 모금 운동까지 했는데 그 때 일제 통감부 탄압으로 좌절 되었다고 예전에 머슴살이 할 때 주인집 서재에 있는 책 많이 보면서 알았지.

솔직히 가식 다 집어 치우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최초 금융 자본이라는게 생긴 건 일본 미쓰비시 계열의 은행들과 일본 상인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고리 대금업.. 즉 사채였거든...

그래서 그런 자본 종속을 보다가 생긴게 조선은행이라는 관료 중심 민간 은행이었는데.. 화폐 정리 사업으로 몰락하고 망해서 사실상 일본 금융 기관 종속 ==>> 한일 합방...으로 간 것이거든.. 요즘에는 을사늑약이라나?... 늙은이들은 이런 단어가 좀 생소해서.

대충 이런 시나리오로 일단 구조선 말기 금융과 민간 자본이 집어 먹히고 -->> 식민지..

이런 케이스인데 한국 금융 자본이라는게 태생적으로다가 일본 자본이 씨를 뿌린거라서 그런지 지금 정부에 있는 놈들은 솔직히 대일본 금융 종속성이 대단히 강한 놈들이지.

강만수만 해도 미국에서 벤치 맞으니까 바로 일본에 가서 콜 때리잖아..

이게 니들이 말하는 한국 경제 켄더멘탈의 실체야... 솔직히 한국 경제는 외부 자본에 의한 레버리지 효과로 산업 시설 공룡화로 큰 것이진짤데 그 레버리지 받침권이 일본계 자금이었으니 말 다한거지.

군사/외교 = 미국... 경제 = 일본... 사실상 일본 경제 자체가 대미 종속이니 그게 그거지만.

예전 머슴살이 할 때 주인집에서 저녁에 가끔 노래 부르면서 술잔치하는 날도 있었는데 그 때 보면 일본 사쿠라 피는 봄에 어찌고 하는 노래들 굉장히 많이들 불렀어..

그럼 난 애기 업고 나가서 이런 책 같은거 빼다가 밖에 나가서 모기 쫓는 향불 피우면서 그런거 보고 똥 귀저기 갈고 했지.

진짜 그 실체를 알면 말도 못하는데...

지금도 나이 좀 먹은 노인네들 중에 일본 노인네들은 군가만 몇 시간이고 노래방 가서 가라오케 가서 부를 수 있는 노인네들도 진짜 많지..

가만 보면 다 저기 버마나... 말레이 전선에서 싸우다가 군복 대신 넥타이 부대로 일하러 간 애들이거든..

하기사 이젠 많이들 뒤흔었지만 말야... 다 그 꼬나풀이지... 지금 재경부
에도 상당수 많을걸?

다 이런 이유야..

지금 현역 50대 후반 ~ 60대 재경부에 있는 애들이나 정부에 있는
애들 중에 일본어를 거의 현지인 수준으로 하는 애들이 장난이 아니
게 숫자가 많을걸?.

왜 그런지는 굳이 설명 안하겠어... 영어?... 영어에 목숨 걸지 마라...
두루두루 인근 국가 언어를 배워 놓으라고...

앞으로 5년 후에 이게 뭐 의미인지 알게 될 날이 올테니까.

노인네 말을 허투로 듣지 말고... 알았자???.. 뭐 나야 이젠 죽으면 그
만이지만 젊은 애들은 돌아가는 판세는 알아야 미래를 읽고 대비 하
지..

응?????

<2008년10월21일>

36. 사람 죽이는 살인 연탄 값 -대국민 초토화 작전 1호-

실제로 한국에서 소요되는 총 연탄 수요의 80%는 가정용 난방 수요다. 이중에서 올해 연탄 보조금 철폐로 가격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 그로 인해서 이미 장당 500원이 코앞.. 거기에 운송비용까지 합치면 올해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 될 판국이다.

더 웃기는건 올 겨울에는 하우스 과일 먹기는 이제 포기해야 할꺼라는 사실..

국내 면세유 가격이 작년 700원에서 올해 현재 1060원대로 전년 대비 150% 폭등한 상황에서 내년 7월달부터는 면세유 경유 공급을 대폭 줄이겠다.

따라서 사실상 내년에는 하우스 농사는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금 농촌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으며 올겨울부터 당장 연탄 난방으로 대체를 하든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젠 연탄 가격도 살인 연탄 가격...

이로 인한 물가 추가 폭탄은 이젠 기정사실이다.

올해가 사실상 하우스 농사 마지막 해라는데 할 말이 없었다.

내년부터는 면세유 경유 대신에 등유를 쓰라는데 문제는 등유가격이 리터당 40원 더 비쌌 뿐더러 열효율은 70%선으로 대폭 떨어지는데 어떤 미친놈이 쓰냐고 우는데 뭐라 그래???..

크르~~~릉....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철저하게 뼈를 망치로 부수듯이 모조리 다 밑에서 부터 하부 카테고리부터 철저하게 초토화시키고 있다..

진짜 무서운 놈들이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연탄 한장 얻어서 쥐포에 소주 한잔 빨리 가야겠다... 근데 불 붙이기가 너무 힘들어서 말야.. 번개탄은 잘 안 주더라고.. 구하기 어렵다고.

<2008년10월21일>

37. 사채업의 진실

사채업자는 대주주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이자는 제3자 배정을 통한 유상증자를 요구하고, 4배 이상의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한다. 만약 계약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하거나 상승폭이 작을 경우 이면 계약 등을 빌미로 경영권 포기를 요구하거나, 주가 조작을 강요한다.

사채업자들은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서 보통 특정 수익률을 보장받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약속한다.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담보로 잡는다. 이때 맺은 이면 계약에 적시된 특정 수익률은 보통 4배 이상 뛰어 야 하고, 3개월 수익률이 최소 10%정도는 나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만약 약속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사채업자는 담보로 잡은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돌려 회사를 부도 처리..

제3자 배정을 통해 신주를 배정받은 당사자가 기업인 경우 대부분 M&A와 관련됐다. 특히 정체불명의 개인이 배정을 받거나 배정을 받으면서 보호예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심중팔구 사채시장 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주 : 보호 예수 = 증권회사가 고객의 유가증권을 고객의 명의로 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것은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발행했을 때 따르는 사고 위험, 즉 화재,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주권의 매도 시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제3자 배정방식은 자본잠식을 당했거나 부도 징후가 나타나는 등 한계상황에 처한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택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기업이 부실하다 보니 회사채 발행이나 주주 배정, 일반 공모가 어렵다. 그러다보니 사채업자를 끌어들여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참여케 하는 것이라고 보면 정답이다.

(주 : 제3자배정방식증자(第三者配定方式増資) = 증자를 위해 신주를 발행할 때 주주 배정이나 일반 공모와 달리 특별법이나 발행회사의 정관 규정,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연고자 배정) 정부 등에 인수권을 주거나

차관선 또는 합작선과의 계약에 의해 신주를 배정하기도 한다. 거래처 등 발행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 신주인수권을 쥐 주식을 인수시키는 방법도 있다.)

2. 주식담보 대출과 어음할인

주식담보로 1억 원을 빌릴 경우, 2~3배인 2~3억 원에 주식을 담보로 해야 한다.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에 따라 물량 부담이 두세배로 늘어나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주가가 폭락시 추가 변수와 함께 사채 자금 유입을 의심하면 80% 이상 틀림없는 케이스다.

이 경우 최대한 빨리 손 털고 자금을 빼는 케이스.. 그나마 있을 때 건지지 나중에 보통 이런 회사는 3개월 후 깡 처리로 부도 처리 되는 경우가 8~9할이다.

3. 사채업자 3자와 짜고 경영권 탈취

자금 조달하기 위해 사채시장에서 발행하는 융통어음의 경우,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6~10%이상 금리를 물어야 한다.

(주 : 융통 어음(accommodation bill) = 정상적인 상거래 없이 단지 수취인에게 신용공여를 할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 한 마디로 초간단하게 말해서 정상거래 없이 자금 마련 목적으로만 발행하는 어음이란 뜻이지)

어음은 발행 기업의 신용도와 재무상태, 만기에 따라 A,B,C 등급으로 나뉜다.

A급 어음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발행한 어음으로 할인율은 0.7% (연 8.4% 내외)

B급은 월 1%(연 12% 내외)

C급은 월 1.3%(연 15.6% 내외)

하지만 일부 예외 리스크 그룹군에 들어가는 기업의 금리는 월 3%~5%가 넘어간다.

최대 주주가 주식 담보로 사채 사용 ==>> 사채업자가 담보 주식을 시장에 매도 처리 ==>> 주가 폭락 ==>> 제 3자가 실시간 매수 ==>> 가공의 인물 X가 최대 주주로 대표 이사 취임 및 경영권 획득.

문제는 사채업자와 이 가공의 인물 X는 연계 인물이란 점.

대주주 지분 장내 매각 공시가 나간 코스닥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담보권을 행사를 하는 경우가 이런 케이스.

(예: 두산 그룹 자회사 소유의 코스닥 기업 KSP의 경우)

이 경우 대표 이사로 취임한 가공의 인물 X가 회사 자금을 대표 이사 명의로 빼돌리고 증발 하는 경우.. 추적 불능..

결과는 회사 부도로 박살....

사채업자 + 전문 기업 사냥꾼이 짜고 ==>> 기존 대주주가 회사에 지고 있던 개인적 채무를 인수 ==>> 사채업자와 짜고 회사를 돈 한 톨 들이지 않고 쉽게 인수 ==>> 인수 후에 사채를 갚기 위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다음 회사를 또 다른 기업 사냥꾼에게 팔아넘기는 경우..

깡 처리 매물... 대표 이사는 실종... 6개월 후 달동네에서 박스 줍고 계신 김사장님..

쩐.. 그 뭐라더라... 하는 거에 나오는 건 솔직히 그건 드라마고.. 실제로 일단 이 바닥에서는 기업 정보맨이라는 정보꾼 애들이 정보 소스를 제공해 준다... 이런 제공 이메일은 보통 보름에 한번씩 오게 되는데 이번 최진실 자살 사건에서 찌라시... 뭐라는 그건 2류 수준이고 진짜 유통되는 정보 거래망에 1년이나 6개월에 천만원씩 주고 제공받는 게 있거든..

이번에 최진실 사채설 같은건 사설 찌라시로 초보들 밖에 취급 안 하는거고... 진짜 정보 소스를 고액에 파는 애들은 따로 있지. 말 그대로 진짜 대기업들이나 주요 기업 본부장 수준에서 별도로 보고 받는 정보 라인인 그런 증권사 사설 찌라시가 아니라 사채업자들하고 똑같이 받는 애들이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기업체 선후배, 기자들, 내부에 심어 놓은 내부자 정보 라인에 또 정보 유통업에 종사하는 애들은 자기들끼리 모임이 대충 한국에 4개 정도가 있는데 일주 대략 이런 분들이 40명~50명 정도가 핵심이다.. 지들끼리 모여서 정밀하게 다듬지.. 그 다음에 정보 추가와 세팅이 끝나면 가공 처리를 거쳐서 1천만원짜리가 회장 비서실로 가는거야...

또 기업형으로 하는데는 파트가 나눠져서 업계 동향 감시, 경쟁사 기업 약점, 의뢰한 경쟁사 회장 일가족 사생활 추적에 요즘에는 시민 단체 동향 첩보 분야도 있다더군... 업무 범위가 확대되서 반기업 정서 차단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시민 단체들의 동선 차악과 스케줄 추적은 거의 CIA 수준으로 노출이 극비라는데 그것도 뚫어서 빼 오는 애들이지.

그럼 사채업자 애들이 노트북으로 일단 랭킹 순위를 자금 여력 별로 리스트를 짚 뽑아서 공략 기업에서 돈을 빌리게 꼬시지.

팩스나 전화.. 내부인 매수로... 그렇게 1단계 공략이 끝나면 위의 기본 절차나 변형된 절차 순으로 공략에 들어가서.. 회사 알맹이 빼 먹고 잠수... 아니면 잠깐 사장 행세 하든가.

한국 사채업 메카는 명동 강남인데.. 이 중에 메인 스트리트는 역시 명동 사채 시장.. 여기서 일본계 자금이 대충 62%..

지금 추적 되는 사채 이용하는 애들은 약 189만명 수준에 한국 법정 이자율 49%로 일본 현지에 비해 수익률 2배 수준으로 사실상 사채 시장이 오픈 된 나라이지..

사채업자도 두 부류인데... 개인 사채로 동네 양아치처럼 하고 다니는 애들은.. 진짜가 아냐... 진짜 사채업자로 돈 만지는 애들은 위에 나온 기업 사채 부분이지..

이게 진짜 사실 알짜지..

안 되겠다... 최씨 노인네가 불러서 이만 가 봐야 겠다.. 이제 고기 썰어서 다 구웠나 보다... 오늘도 가서 한 잔 퍼 마셔야겠어..

얼마 안 남은 노인넨데 술이라도 실컷 퍼 마시다 뒤흔어야지... 오늘은
파전에 소주로 2차 시작해야겠어..

이제 2차니까 한 3시에 3차 가야지...

곤드레... 만드레... 한잔 들이 부어... 부어라... 마셔라...

지금 술 한잔 퍼 마셔서 술기운에 제정신이 아니라 보다가 오타 나도
미친 노인네라고 욕하진 말고..

이젠 술판에 가 봐야지... 머리 아파서 더는 못 쓰겠군...

역시 노인네가 나이는 못 속이나 봐.

역시 술을 젊었을 때 이빠이 먹어줘야 하는건데 난 젊어서 머슴살이
하느라 그러질 못했거든..

이젠 한풀이 하고 뒤흔어야지..

-늙은이가-

<2008년10월21일>

38. 오만이 파멸을 불렀다.

그렇게 9월 위기설 말하고 11월 물가대란을 말해 주면서 7월달, 8월달에... 심지어는 6월달부터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사망에서 말을 해 줘도...

그 미친 9월 괴담 타령에 배후 세력 타령으로 이젠 손을 쓸 타이밍을 놓쳐서 대 파멸의 전주곡의 전야를 울리고 있다...

한국 같은 나라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6월말부터 줄기차게 얘기 했지!!!

이젠 물가다.. 11월 물가 폭탄의 대 서막이 열렸구나...

멍청이들의 오만이 파멸을 불렀다... 소수의 자만이 다수를 지옥으로 내몰았다...

이젠 닥치고 죽음의 사신을 기다리는 길 뿐... 이젠 희망을 꿈꾸기에는 손 쓸 타이밍을 모조리 다 놓쳤구나..

오로지 남은 길은 지금 현재 일본 애들이 동아줄 내려 주기를 기다리는 것 뿐...

세상만사 자본이란 절대로 꿈짜란 없다고 얘기 했지...

돈이란 건 꿈짜가 없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라는걸 지불하도록 강요하지.. 옷을 벗든... 장기를 꺼내게 배를 가르든...

한국이라는 나라의 옷을 벗고 몸을 바치라고 강요할 것이다.. 범국가적인 강간을 당하는거지.

참... 대단한 나라구나... 이젠 목욕 채기 하고 주인님이나 받을 준비나 하렴... 부산에서는 달러 모으기 운동도 하고 있더군???..

벌써 5억 달러나 쳐 모았다고 자랑 하건데... 순간 미친게 아닌가 하는 착시 현상이...

크르~~~릉...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 이젠 그 대가를 치를 마음의 준비를
각자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젠 리어카 수세미로 청소 하러 가 봐야겠다...

이젠 12월 위기설이라고 다 수근거리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건지
그 원숭이 대가리 애들의 대응책이 궁금하구나.

그래 봐야 이제 남은건 니폰 뿐이겠지만 이젠 제발 일어나지 말라고
빌었던 자산 디플레이션이 터져 나오는군..

완벽하게 시나리오대로 가는구나..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서 소주나 마시렴... 청소 끝나고 김치 빈대떡
10장 술안주로 미리 부쳐 봐야겠구나.

이젠 손을 쓸 대책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다.. 참 자랑스런 대한민국이구나..

~나라사랑 보우하사.. 길이 보존하세...~ 염병 조까는 소리 하네.

나를 비롯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 했지..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위험
감지를 했으면 한국 경제 같은 이머징 마켓 경제는 선방어를 하는
게 핵심이니까 최대한 빨이 3개월 전부터 손을 써야 한다고.

이젠 닥치고 태풍 맞을 준비나 하렴...

그리고 쪽팔리다는 개소리나 하지 말고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건 잊
지 말고.

<2008년10월22일>

39. 이제 남은건 오로지 일본 달러 공수뿐이다.

지금 마켓에서는 정부 지급 보증 1000억 달러 따위 같은건 아무도 안 믿는다. 오로지 최소 500억~ 700억 달러 규모의 외부 달러 차입 없이는 이젠 방법이라는게 없는게 솔직하고 비정하고 잔인할 정도의 현실이다.

민족적 자존심 어찌고 저찌고 하는 그 판 개 뺨다귀 같은 소린 이제 집어 쳐라. 비정한 시장 논리는 지금 달러 수혈은 원하는거지 그 판 말장난을 원하는게 아니다.

외국계 은행 지점의 대외 달러 공급 창구의 전면 봉쇄와 살인적인 이미 외화 차입이 불가능할 정도의 베트남이나 필리핀 수준의 CDS ..

닥치고 일본 재무성에나 가 보렴... 지금 기다린다니까... 자기 발아래 무릎 꿇기를.

지금 일본 애들이 인터넷으로 뭐라고 다들 씨부리는 줄 알기는 아냐?. 거지같은 한국 애 새끼들이 달러 구걸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현역 트레이더가 씨부리더군. 쳇.... 기가 차서 원..

이젠 달러 외부 차입으로 외화 유동성 강제로 돌리고 ==>> 원화 유동성 순환으로 강제 순환 방식으로 자본 시장 돌려서 살려 내는 길 이외에는 이 나라의 선택이란 아무것도 없다..

미국... 아니면 일본계의 자금 유입 없이는... 이제 한국 금융 시장은... 파멸이다... 이게 지금 잔인한 현실이야... 남은 유일한 길은 대규모 달러 외부차입뿐이라고 예전에 얘기 했지!!!

10월 달에 된 놈의 얼어 죽을 무역 흑자가 나!. 10월 달에 예상 무역수지 적자가 이미 -27억 달러를 넘어간 판국에!!!

입 닥치고 비행기 표나 끊어!!!! 이건 총만 안든 전쟁이야... 패배한 개에게는 변명의 여지란 없는 거고. 그리고 갔다 와서 소망 교회를 날도끼로 때려 부셔!!!..

<2008년10월22일>

40. 난 도저히 이명박을 이해 할 수가 없구나.

완전 미쳤다고 할 수 밖에.

한미 공조를 떠나서 지금 미국 워싱턴에 직접 가서 달러 조달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도 모자를 이 판국에.. 지금 달러 일극 체제에 대한 반대급부의 논리로 신 브레튼 우즈 체제를 만들자는데 찬성 거수기를 들어?.

이건 일국의 대통령으로 완전 미친 개 싸이코라고 밖에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다.

지금 한국의 현재 입장상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분야에서 중립으로 모르쇠 전략으로 넘어가야지.

그럼 미쳤다고 노무현하고 김대중이 이런 질문 나올 때마다 구령이 담 넘어가듯이 지나간 줄 아나?..

예전에 98년 2001년 2004년도에 이런 유사 질문이 나올 때마다 한국은 대통령과 정부 입장은 무조건 중립 전략으로 회피하면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서 이런 기조를 정면으로 뒤집어엮고 나선 것이다.

군사 분야에서 주한 미군 주둔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상쇄 시키고... 경제적으로는 달러 수급이 필요한 절대 절명의 이 시기에..

대통령이라는 인간은 달러 일극 체제에 맞서는 반 달러 체제 기구 창설을 전면에서 지지하고 나선 상황이니 지금 외국에서는 난리가 난 것이다.

아니... 무능력하면... 말조심이라도 하든가.. 지금 달러 부족해서 난리 난거 안 보여?.. 누군 미국 애들 좋아서 지금 친미니 반미니 그 판거 따지나?.

그리고 지금 주한 미군이 전쟁 역지력으로 동 아시아 지역 군사 역학

관계상 핵심 변수로 군사 경제에 주요 변수라는걸 몰라서 저런 닭대가리 같은 소리를 하나?.

대통령 본인이 설사 자기 입장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말을 할 때는 국가 이해득실이 먼저인데 저 닭대가리 치킨은 그저 생각나는 대로 지껄인다.

그럼 일본 애들은 속이 밴댕이 소갈딱지라서 저렇게 미일 공조 따지고 미국 애들한테 기어다니냐?

하여간... 경제도 가뜩이나 벼랑 끝인데 이젠 대통령까지 등신이니...

내가 욕을 하자는데 아니라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는 소리야.. 오죽하면 청와대 애들이 나서서 그것 오보라고 소방수로 나서냐?.

그냥... 제발 입 닥쳐라!... 더도 안 바란다... 한 6개월만 입 닥치고 좀 기다려... 이 사태 수습 할 때 까지.. 진짜 다 말아 쳐 먹을래!!! 이견 어떻게 노무현 보다 더 입방정에 등신이니..

지금은 미국 똥꾸멍 빠네 마네 그 판 추상적인 소설 쓰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일단 죽어 가는 놈 살려는 놓는게 최우선이라는 소리다.

나라 경제 다 망한 다음에 그 잘난 미국 타령 하면 뭐할래!!!

-늬은이가-

이명박은 잔인하게 말해서 경제를 쥐뿔도 모르는 놈이야... 특히 거시 경제는 거의 강통 수준이지.

이 씨방세들아... 모르면 대학 교수라도 불러서 특별 과외라도 시키란 말이다. 모르면 배운다고 이 판국에 뭐랄 놈 아무도 없다.. 언제까지 그 개 뺨다귀 씹어 먹는 경제 대통령 소리만 쳐 할래..

이미 무능력이 모조리 다 들통난지 오랜데.. 이명박 이 놈은 경제를 모른다니까...

<2008년10월22일>

41. 날이 갈수록 달러 해외 차입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는 날이 갈수록 달러 해외 차입의 중요성이 핵심 변수 중에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 달러 지급 보증 1000억 달러는 장난이 아니라 아무도 안 믿는다.. 사람이 믿으라고 할 때는 그만한 지불 여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믿는 것이지 지금 국제 유가 예상치의 최저치 상황에서 3개월 원유 결제분을 제외하고도 미달되도 너무 미달되는 수준이다.

이미 한국 CDS 가 500bp를 뚫었다. CRS = 0.55%로 CRS레이크는 CDS가 453을 넘어가자 전일 대비 -0.75%가 폭락하면서 사실상 장내 CRS = 0인 상태다.

이 CRS=0라는 것은 한 마디로 초간단하게 말해서 달러를 빌리고 원화를 맡기는 원/달러 스왑 계약시 달러 차입에 대한 이자를 주는 대신 원화 이자는 단 단 폰도... 즉 원화 이자분 = 0를 의미 한다.

지금 한국 국내 금융 기관들의 달러 차입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인지 극명하게 보여 주는 수치이며 달러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는걸 의미 한다.

현 정부 들어서 현재 가장 핵심이 되는 건 07년 4/4 분기내의 국내 외환 시장 대비로 현재 08년 4/4 분기내 국내 외환 시장은 현물 시장의 규모가 30억 달러 미만으로 그 규모가 1/4 수준으로 반에 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어서 말 그대로 지금 시장 자체적인 달러 유동성 공급은 거의 사실상 마비 상태나 마찬가지다..

거기에 선물환 시장은 사실상 기능 정지 상태로 3개월 이상 끌여 왔다. 외환 현물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25% 수준인데 지금 당장 급한 판국에 사방에서 아우성치면 환율은 계속 쳐 올라 갈 수밖에...

이런 비정상적인 시장 왜곡으로 정부에서 300억 달러를 퍼 부어 대내 마네 해도 지금은 씨가 안 먹히고 CDS는 수직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길은... 10월말~11월 중순경까지 사실상 일본 아니면 미국으로 부터 최소 500억 달러 이상 차입이 불

가능 할 경우 연말 환율이 얼마가 될지는 지금 상황상 아무도 장담 못한다.

다만 10년 전 데이터상으로 시뮬레이션 유추상 현 상태가 2주 ~ 17일 방치시 12월 중순경에는 환율이 맥시멈 1800원이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미친 소리냐고 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 정도로 심각한 위험 수준이라는 것이다..

만약... 11월 중순까지 외부 달러 차입이 없을 시... 난 100% 달러에 올린 할 것이다... 왜냐면 나는 이미 10년 전에 금까지 바쳐 가면서 애국할 만큼 했거든...

사실상 정부의 마지막 카드는 이제... 없다... 그런 상황에서 이래 버린다면 이제 모델에 적용 가능한 유동 변수는 극도로 제약된다... 그러면 답은 너무나 뻔한거지.

세상에 $1 + 2 = 3$ 이라는걸 모르는 바보는 없지 않은가?..

크르~~~룽... 이게 지금 말장난 하는걸로 들리지?... 하지만 여태까지 단 한번도 말장난 같은건 해 본적이 없거든? 나 아직 노망 안 났다..

믿기 힘든 현실이지만 살아남는 길은 일단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시작한다는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어디서 뭘 하든 행동수칙 ABC 가운데 제1의 절대 원칙이지.

4일 연장 계속 쳐 마셨더니 이제 오늘은 하루 쉬어야겠어.. 어제 먹다만 소주 반병에 빈데떡으로 마시고 자야겠다.. 이걸 나라가 산으로 가네.. 점입가경이구나... 크르~~~~~룽... 빨리 무당을 불러서 고사를 지내야 하는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 건지는 이제 나도 모르겠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두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이제 그것뿐이야..

-늪은이가-

<2008년10월22일>

42. 집에 있으면 증권사에서 전화 온다.

농담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인터넷으로 집 등기부 등본.. 예금 통장.. 적금 통장 및 주식, 채권.. 월급 통장부터 보험까지 모조리 다 꺼내서 빨리 긴급 점검에 들어가라.

현재 고정 자산 및 유동 자산 수입 내역이나 배우자 월급이나 보너스가 은행 이자나 다른데로 흘러들어 가는게 있는지 없는지.

지금 집집마다 남편이나 마누라가 몰래 주식 신용 폴로 땡겨서 몰래 주식 투자 하는 집들이 한 두집이 아니며 오늘도 은행가니까 창구에서 웬 50대 초반쯤 보이는 여편네하고 남자하고 난리를 치더군.

그게 몰래 대출 받아서 몰빵하다가 주가 폭락해서 깡통 되니까 은행 쳐 들어가서 보니까 집을 담보로 얼마를 꺼내 썼네 마네 난리를 치는데 말 들어보면 요즘에는 저런거 싸움 뜯어 말리는게 하루 일과란다.

더구나... 예전 주가 올랐을 때... 집에 전화를 해서 주식하라고 부추긴 놈들이 증권사 놈들이거든.. 전화 외판 영업.

그렇게 해서 지금 몰래 주식하는 집구석 여편네들이 한 두집이 아녀.

일단... 부동산 등기부 부터 모조리 다 대출 유무 확인 절차 들어가고.

2단계로 내 월급 통장이나 배우자가 월급 받아서 은행 이자를 몰래 때려 박고 있는건 아닌가 하는걸 집에 있는 통장 밀 거래 은행은 모조리 전화로 내일 다 조회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빨리 해결해라.

그리고 대출은 신용 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은 모조리 다 대출로 돌리든가 빨리 해결하고...

지금 마이너스 통장으로 남편이나 마누라 몰래 은행 이자 때려 박는 집도 가만 보면 한 두집이 아냐.

지금 이거 농담 아니거든?.....

지금 당장 집문서부터 조회해라... 주택 담보로 은행 대출 몰래 했는

지 안했는지.. 그리고 인감 관리 잘 하고..

장농 서랍 열고 안에다 숨겨 놓으면 마누라가 그걸 모르니???...

다 알지... 숨겨놓으려면 좀 잘 숨겨 놓든가... 그리고 집문서 없어도 대출 가능하다... 갑자기 어떤 서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인감만 가져가고 은행에 수수료 5만원만 주면 집문서 없이 해 주는게 있어..

은행가서 여편네들이 집문서 이사 가다 잃어 버렸다고 하면서 은행 공증 변호사 쓰는게 있거든?.. 그럼 돈 5만원인가 내고 종이 하나 주면 그거 쓰고 지장 몇 번 찍으면 자동 처리돼.

그게 집문서 없이 하는 방법이야..

내 집문서 회사 서랍에 숨겨 뒀다고 대출이 불가능한게 아냐..

당장... 확인하고... 내 재산... 확실하게 지켜라..

집 안에 도적이 있다... 창문이나 담벼락만 넘는다고 다 도둑이 아니다..

어딜 가든 항상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서운 것이듯이..

반드시 명심해라... 그리고 지금 궁둥이 떼고 당장 모조리 다 확인 절차 들어 가고..

시절이 하도 하수선 하니까 일단 집안 단속부터 해야지!!!

<2008년10월22일>

43. 100엔이 붕괴되었다.

지금 100엔이 붕괴되서 98엔이다.

내일 어찌라고 저 지경인지.. 빈대떡 먹다가 깜짝 놀랐다..

진짜 이제 내일 판타스틱한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근데 환율 방어를 할 돈이나 있는 건지 원.

이 상태라면 최소 내일 한 50억이나 60억 달러는 있어야 할텐데.

그나저나 빈대떡이 진짜 맛있다.. 역시 비 내리는 날에는 소주에 빈대떡이야..

고추 썰어서 햄 잘게 썰어 김치에 과 같은거 넣어서 부치는데 한 6장 부치니까 반병 마시는데 2장이나 먹었네..

한 두병 더 까야겠다.. 어차피 맨 정신에 살기 힘든 세상 술이나 두병 더 사와야지..

이건 뭐.. 참... 말하기 거시기 하네.. 뭐 말인지 알지???... 근데 내일 이제 어찌냐?.. 지금 뉴욕이 저 따윈데.

미국에서는 11월, 12월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서 이 때가 전체 미국 소매점 매출 50%가 나오는 때거든..

근데 지금 월마트 매출도 줄어드는 판국이나 말 다했지. 카드 한도 제한으로 지금 미국 애들은 현금으로 생필품 사 모으고 있다잖아.

지금 LBO도 빼박선 타고 위험한 판국인데.. 신용카드까지.

이젠 미국도 마트에서 현금 결제가 배로 늘었는데.. 이게 뭐 의미인지는 말 안해 줘도 얘기 다 한거고..

입만 아프니까

<2008년10월22일>

44. 드디어 한국은행이 원화 운전기를 돌리기 시작했군.

이제 한국 중앙 은행에서 원화 운전기를 돌리기 시작했다.. 은행채 25조도 지급 보증을 해 주겠다고..

이건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 전부 다 사주지는 않겠지만 지급 보증은 해 준단다.. 지금 이 부분에 마켓은 의심을 하고 있지만 일단 사준다는 가정하에 보고 있다.

그러면서 10.21 대책 나오면서 LTV, DTI는 사실상 무장해제 시켜주면서 은행 보고 중소기업하고 개인 가구에 집 사게 돈 대출 풀란다.

근데 지금 은행 예대율은 이미 140%가 넘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

글로벌 기준으로 예금 : 대출 비율인 예대율이 90%를 넘어가면 이건 빨간불이거든.

근데 심지어는 지금 빅7 제1금융권 은행들 중에 2군데는 예대율 140%... 1곳은 이미 165%가 넘어서 말 그대로 지금 시한폭탄 일보 직전인 데도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원화를 찍어서 공급해 주고 은행채도 사 주겠다고 나선 거거든..

왜냐면 은행채 막히면... 회사채 금리 폭등하고... 그럼 CD금리 못 잡으면 제 아무리 금리 인하를 하고 썰소를 해도 대출 이자 안 떨어지니까.

그리고 리디노미네이션?... 이거 하자고 한나라당 왜 미친 애가 씨부리데?... 이름이 기억 안나는데.

이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걸 하려면 지금 터키처럼 하루 호텔 투숙비가 1억 7천만 리라나 2억 리라 하는 그런 나라나 하는 거고..

리디노미네이션을 지금 하려면 그 충격 효과를 흡수 하는데 최소 3

년~5년..

잠재 인플레이션 효과가 2.5%...실질 피폭 과급 인플레이션 효과는 1년간 + 17% 정도.

비용면에서 2조 7천억 가량 소요... 회계 처리 비용 증가..

이런 냄새 풍길 경우 자산 방어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금 투자...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왜냐고?... 이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걸 할 때에는 부수적으로 반드시 동반 효과가 생기는게 부동산 가격 상승이거든..

그러니까 그 가증스런 쥐새끼가... 어떤놈인진 모르겠는데 지금 집값 떨어질 징조가 보이니까 이런 리디노미네이션을 1/1000 으로 하자고 들쭈시면서 바람잡이 하려고 발악하는거지..

그러면 역효과로 일단 자산 디플레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개수작인데..

이걸하려면 일단 2005년도에 신구권 화폐 교환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과 그후 회소 10년 경과.. 그리고 이런 복합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아닌 인플레이션 압력만 있을 경우 변수.

그리고 환율이나 금융시장이 안정화 된 상태일 때..

그런 때나 하는거지 염병 무슨 닭대가리도 아니고..

지금 이 혼란 상황에서 삼국지 뺨치는 경제 대 혼란기에 리디노미네이션 하자는 개소리를 씨부리는 미친놈이 있지 않나.. 이거야 원.

하지 말자는게 아니거든?... 사실 외국 살다가 한국 와 보면 깜짝 놀라지..

사실 외국 화폐단위가 한국처럼 이런 나라가 별로 없거든.. 못사는 나라 빼면.. 유럽만 해도 한 20 유로 가지고 나가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영화 보고 택시 타고 개 사료 사고도 돈이 남거든..

근데 한국 오면 순간 적응이 안 되지...

그렇다고 지금 갑자기 바뀌서 난리 치자는 뇌 구조가 의심스러울 뿐 더러..

지금 이미 한국 아파트 버블이 -65%가 현 상황상 버블이라는 분석 자료가 다 나온 상황에서..

내년 2009년 상반기 잘못 보내면... 농담 아니라 한국은 30년 장기불황이다..

이젠 별로 놀랍지도 않지?.. 일본이 부동산 쇼크 극복 하는데 거의 헤이세이 이후 12년간이었는데 일본 시뮬레이션 모델에 한국 대입하면 과급년수가 31.5년 이야.

거기에 지금 윤전기 돌려서 저런 식이면... 올 겨울 물가는 둘째 치고 환율 추가 상승 압력은... 이제 기정 사실 같아 보인다.

날이 갈수록 상상... 그 이상을 보여 주네...

크르~~~~~룽...

혹시나 했더니.. 역시 기대를 안 저버리는군... 결국 LTV, DTI 무력화 시키는거 봐라.. 교활한 쥐새끼..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 대혼란기에 리디노미네이션이라니.. 이거야 말로 완전 싸이코 패스지..

정말 이 나라 애들은 판타스틱한 애들 많은거 같어...,

빨리 이꼴 저꼴 안 보고 뛴져야 하는건데..

왜 리디노미네이션 하자는 줄 알아?... 부동산 때문이야.. 부동산... 이걸 하면 부동산 추가 상승효과가 대략 7~15% 정도가 되거든..

리디노미네이션이라는걸 하게 되면 반드시 중간 과도기 겹이라는 완충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대략 1년~1.5년 가량 반드시 생기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부동산 가격 경기 부양이 일시에 되는 타임이 있거든..

그걸 노리는거지... 그러면서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동반 하고..

이런 편법이 실물 경제 메인 스트리트에는 있지...

크르~~~릉..

마치 무협지에서 마교 애들이 사술이라는걸 쓰면서 정공법을 안 쓰고
사술을 부리는것과 같은 개념이야.. 따라서 그에 따른 후유증도 막대
하지..

이제 교활한 싸이코 패스라는게 뭘 뜻인 줄 알겠지...

다 뒤흔들 버리든 말든 부동산은 잡고 보자 이거지.. 또라이 새끼들.

-늪은이가-

<2008년10월23일>

45. 전략게임 - 2008년도에 필요한건 만슈타인의 게임이론.

지금.. 간만에 집에 뒤적거려 보니까 다큐멘터리를 수집해 놓은게 있더군..

이름하여 만슈타인... 히틀러가 성공할 수 있었던건 전략가인 만슈타인 때문이었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만슈타인은 나치당에 가입을 한 적도 없을 뿐더러 술리펜 계획이라는 걸로 프랑스 점령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만슈타인의 전략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 재기를 한다..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이나 프랑스의 전차 보유 대수나 항공기 대수에서 독일에 밀리지 않았다..

근데 초반에 압승을 거두었고 프랑스는 먹혔다.. 그 이유가 바로 전략과 전술의 명확한 개념 정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전략과 전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전략은 스키를 타기 좋은 스키장을 찾는 것이고.. 전술이란 스키를 잘 타는 기술적 스킬에 해당하는 걸 말한다..

그럼... 과연 나는... 전략적 차원에서 인생을 접근하면서 여태까지 살았나?..

아니면.. 전술적 임기응변의 차원에서 접근성을 가지고 살아 왔는가?..

혹시.. 이런 생각조차 해 본적은 없는가?...

혹은.. 사업이나 가게 문을 열 때... 이런 개념적 접근이나... 게임 이론이나... 아니면 최소한 소매점 분석 같은 차원에서 내가 문을 열려는 가게 위치상의 품목 선정이나 어떤 분야로 가게를 열건지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본적이 있는가?..

막연하게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대충 뭐가 좋겠구나..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비교 우위로 보는 방식으로는?... 아니면 성공 확률을 따져 보거나 아니면 어떤 품목을 봐야 매상이 올라갈 건지

에 대한건 생각해 본적이 없는가?..

우리는 늘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집어든다.. 그럼 바코드를 찍지... 근데... 그 바코드는 계산만 하려고 찍는게 아냐..

그 상품 품목이 본사 데이터베이스로 가서 컴퓨터가 통계분석이라는 걸 해 준다..

그럼 그 지역별 상권에 그 편의점에서 주로 매상이 잘 나오는 품목이 가게내 평균 신장 높이에 가장 눈에 띄기 좋은 선반이자 접근성이 가장 좋은 A클래스... 그 다음 B클래스... C 래스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그 곳에 상품이 계속 바뀌어 진열되어 매상 극대화 효과를 꾀하는 것이다.. 이것이 편의점 비교 우위 판매 전략에 따른 매상 극대화라는걸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케이스다..

그럼... 이렇게 가게에만 적용이 되는건가... 과연 전략적 접근이라는게 어느 특정 집단이나 회사 내의 전략 마케팅에만 한정이 되는가..

아니다... 살면서... 물건 사면서... 가게 열면서.. 회사 다니면서.. 학교고를 때.. 결혼할 여자나 남자 만날 때.. 사고 터졌을 때.. 죽을 때까지 적용된다...

이걸 흔히 게임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전략적 사고[예일대학식 게임이론의 발상] - Avinash Dixit/Barry Nalebuff 라는걸 보면서 새삼.. 살면서 얼마나 비합리적인 선택 미스로 인한 굳이 치루지 않아도 될 꼴을 보면서 금전적인 피해를 당하면서 살게 되는가 하는걸 느꼈다..

사실 예전에도 이런 게임이론이라는걸 봤는데... 딱딱한 수식적인 게임이론보다는 접근성이나 활용도가 실생활에서 극대화 시킬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게임이론이라는걸 각자 개발 시켜서 적용하면 살면서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거 다음에는 무슨 게임의 기술인가 뭐가.. 포카 게임 하는거 말고..

보려는데..

이런 마인드나 틀을 짜서 사고의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입해 상황 판단을 하는게 살아가면서 늙은이가 살다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

이 말이지..

이런 개인적인 단련이 되 있으면 웬만한 일이 닥쳐도 당황하거나 선 부른 판단 미스로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을 확률적 가능성이 대폭 줄어들거든..

뷰티플 마인드 주인공이 바로 그 늙은데... 참..

지금 한국에서 필요한건 만슈타인 같은 애가 필요하다..

만약 이명박을 지금 게임 이론에 적용 시킬 경우 예상 임기년수와 확률 변수 조합은???....

그럼 아주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다..

지금은... 강만수가 아닌.... 만슈타인 같은 전략가가 있어야지... 어차피 이명박 갈아 치우지 못할 바에는..

다 말아 먹자는거 아니면... 빨리 찾아서 갈아 치워라..

안 그럼 다 끝장이다.....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이라는 건 하루가 지연 될수록.... 전체 집단 다수가 치뤄야 할 사회적 비용이라는게 늘어난다..."...

진짜 농담이 아니라... 게임 이론 같은거 잘 배워놔라... 이걸 단순 재미로 보고 말거나 아니면 학문적 접근 말고 개념적으로 익히도록 노력해서 기본 틀이 잡히면 굉장한 인생에 플러스 효과가 온다..

이건 비즈니스부터 인생에 살면서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에~이쿠... 그냥 만슈 타인 다크 보다가 생각나서 끄적거리 봤어... 애들 있으면 체스카스터 10 같은 거를 깔아서 전략사고 스킬을 키워 주도록 유도 해 주고..

장기는 말 모양이 비슷해서 헷갈려서 체스가 재밌더라고... 3D로 하면 나름 팬찮은게..

이런 식으로 게임 이론 같은것도 보고 체스 마스터 같은 것도 하면서 가상 변수를 미리 고려하는 트레이닝을 하면서 노력하는게 살면서 더욱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애들이나 아저씨나 이런 트레이닝에는 접근성을 높여 주는데는 체스가 좋지....

과연... 킹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퀸을 잡고 체크메이트를 안 당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음이야..

우리는 체스판에 말이고....

-늙은이가-

이런거 잘 보고 따져 봐서 지금 인생이 잘못되었다 싶으면.. 가차 없이 인생 리모델링에 거시적 관점으로 보고 다 뜯어 고쳐라..

그게 살아남는 길이야..

사람 사는 인생이란게... 그렇게 무한한게 아냐.. 나 같은 돼질날 받아놓은 늙은이야 술판에 빠졌코나 다닌다지만 말야..

젊은 애들은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늙은이의 노파심에서 오지랖 인게야..

반드시 명심할 기본 행동 수칙 ABC 가운데 B는 어떤 분야든 접근성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면 이런 접근성이라는게 제약 받으면 어디서든 성공 가능성에 제약이라는걸 받게 된다..

불법적인게 아닌 이상 이런 접근성에 선을 긋거나 외면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건 반드시 명심할 인생의 함정 가운데 중요 변수다. 항상 이런 실수를 함으로써 실패 가능성을 높이는게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전에 나온 말이 선입견을 없애고 보는 시각을 키우라였지....

사람이라는건... 막 사는게 아니다.. 항상 사물이나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보는 시각적 차이나 관점을 가지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걸 철학적 접근에서는 사상적 접근이라고도 하지만 그런 거창한 거 없어도 그냥 맥 놓고 사는 건 존재 이유가 없는 시체지...

가끔 자기 전에 내 존재 이유에 대한 개인적 성찰이라는걸 해보는게 상위 레벨로의 발전적 인간으로 크는 계기가 될 것이야..
난...이미 타락한 늙은이지만... ㅋㅋㅋ

이와 더불어 각별하게 살면서 조심할 것은..

"절대로 자기기만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야..

"철학적 배경이 없는 인간은 팔 빠진 찌뽕이다.."

이게 뭘 말인지는 아는 놈은 알겠지..

사람이라는게 일이나 뭘 할 줄 아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인간이 다가 아니란 소리지.. 그건 사회적으로 커 가는데 한계라는 벽에 부딪치게 된다... 그걸 뛰어넘는게 이런 배경이란 뜻이야..

능력적 스킬 이외에도 기름진 밭에서 나는 콩과 척박한 밭에서 자란 콩이 틀리듯이 말이지..

<2008년10월23일>

46. 이제 한국의 IMF는 거의 기정사실로 보인다.

솔직히 현재 상황은 자꾸 이런 얘기를 나도 꺼내기 싫지만 비정하고 잔인하게 말해서 지금 미국 애들은 한국을 이미 IMF 시즌2로 보는게 기정사실인 시각이다..

지금 돌아가는 판세는 한국 대통령이나 강만수가 설친다고 수습이 되는 단계는 이미 정책적 통제력 상실 수준으로 외국애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IMF 에서 조직하고 있는 임시기구 성격의 "이머징 마켓의 달러 유동원 지원 기구" 라는 걸 심의해서 조직할 예정인데.

그 대상 그룹군에 지금 동유럽과 브라질 멕시코 한국이 포함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IMF 체제로 들어가는 지역 포커스는 동유럽과 남미계열 국가 그룹군이다..

거기에 한국이 끼어 IMF 긴급 구제 금융 대상 그룹군에 올라가서 지금 이사회 심의 의결 전 보고서에 대상 그룹군 명단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이미 사실상 한국 경제 자체를 IMF나 다름없이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의 금융 규제 수위가 문제라면 문제인데 예전만은 못하더라도 통과가 될 경우 심리적 충격 효과라는건 일단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일본은 일본 재무성 단독 한국 지원보다는 미국과의 상호 공조 중요성 문제가 나오면서 일본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성 장관은 IMF에 자금 수혈을 해 주면 ==>> 그게 한국으로 거쳐서 올 가능성이 커졌다.

왜냐면 지금 현재 IMF의 운용 가능한 예산 플랜이 2650억 ~ 3200억 달러까지 긴급으로 풀로 땡길 수 있다지만 맵시엄 수치는 지금 미국 현지 상황상 말 그대로 맵시엄이고..

그래서 +일본 재무성 달러 공급 이라는 투톱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돈을 퍼 부을 경우 1조 달러 예산 규모라는 게 나

온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게 아니다.... 지금 11월 바로 전인 현재 상황상에서 볼 때 한국 독자 능력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해외 가서 800억 달러의 IMF를 만들자고 하니 뭐니 난리를 쳐도 그건 내년 4~5월 이후나 가능할 뿐더러 일본 애들도 그렇지만 일본 애들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직접 지원으로 공급하는건 다 거절이다..

한 마디로 먹혀들지가 않는다는 소리다..

어떤 협상이건 간에 어딜가서든 기본 중에 기본은 협상 자체가 성립하려면 서로 대등한 전력 우위라는 전제 하에 공평한 협상 결과라는게 나오는 것이지..

이미 한쪽이 극도로 불리한 상황 하에서의 대등한 달러 스왑 요구나 조건 제시는 한 마디로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본 논리라는건 뽕짜라는게 없다는 것이지.

지금... 진지하게 1997년 IMF의 사례 패턴 싸이클 분석에 들어간 회사들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지금 모조리 입 다물고 난 모르지...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지..

어쩌면... 차마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을려고 했지만... 예전에 이현재나 IMF 수습하던 경험 있는 애들로 비상 TF라도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금 일견 상황에서 대기업 보고 투자 고용 확대 어찌고 하는건..

솔직한 말로다가.. 기업 입장에서는 해리포터 판타지 같은 걸로 밖에 안 들린다니까.. 거기에 김문수가 경기도 지역 규제 철폐로 투자 유치 어찌고 하는 것도 사실상 말장난이고.

국내에서는 일단 무조건 외화 유동성 확보가 되야 ==>> 원화 유동성

이 풀리면서 채권 시장 정상 가동 ==>> 그 후에 증시 부양... 이 단계 별로 이뤄지는 구조지.

지금 단순히 연기금 때려 박는다고 증시 부양이 되는게 아니라니깐.

지금 봐라.. 한번..

지금 주가는 사실상 5대 이머징 마켓 주요 증시 대비로 비정상적인 폭락이다.. 이걸 애초에 몇개월 전부터 연기금투입으로 시장 왜곡이 극심해져서 벌어진 반발 작용 성격이 강한 것이다..

한 마디로... 학교 운동장에서 땀별이 내려치는거야... 이걸 국제 달러 유동성 경색을 의미 하지.

근데 학교에서 체력장을 한하면서 애들보고 장거리 마라톤으로 운동장 10바퀴를 뛰래..

근데 한국이라는 애가 초반 3바퀴째에 목이 말라서 거의 탈수 직전이야... 그 때 물을 주면서 탈수 증상을 서서히 풀어주고 지구력이나 내성이라는걸 키워줬어야 하는데 한국 정부에서 한 일은?.

몰핀 주사기 들고 가서 주사 바늘 박고 뛰라고 하는거야...

그럼... 일단 히로뽕 쳐 맞고 잠깐은 가지.. 근데 이걸 리먼이 작살나네... 그러면서 이젠 CDS는 이제 태국보다 더 높아서 아예 후진국 취급..

한국 애들이 무시하고 깔보던 필리핀 보다 후진국으로 신용도 폭락...

갑자기 뛰다 보니까 이젠 운동장 밖에 원자탄의 버섯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어..

이 때도 달라는 물은 안 주고 몰핀 쳐 주면서 알아서 하라네..

이젠 독자 회생 아니면 IMF인데.. 이미 일본 애들은 한국을 사실상 IMF에 들어간다는 전제 조건하에 보고 있거든..

다만 차이는 예전에는 알만한 인지도 있는 대기업들이 박살이 나니까 엄청난 위기감으로 보였지만 지금 밖에 나가면 조용하지..

그건 제일 바닥인 중소기업부터 서서히 박살이 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실 인식이 떨어져서 그런거야..

한 마디로 97년에는 팔에 기부스를 했지만 기초 체력은 있었는데 지금은 다리뼈부터 망치로 박살을 내면서 다리에 기부스하고 휠체어 없으니까 목발 가지고 뛰라는 꼴이지.

대충... 이게 현재 돌아가는 판세야..

애들이 이런 말 하면 아직도 심리적 패닉과 그 추상적인 한국적 자존심이라고 해야 하나?... 여기에 한국 경제에 대한 세뇌 효과 때문에..

한국이 국제 금융 쪽에서 대단한 나라로 착각하고 선진국인줄 아는 애들 천진데..

좀 사실 황당하더라고... 현실 인식이라는 것의 부재로.

한국은...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냐.... 실제로 대만이 한국 일반 서민들보다 2배는 더 잘먹고 잘산다니깐..

부의 배분적 문제나 성장 원동력... 사회적 인식이라는게 지금은 벼랑 끝이니까 각자 개인적 대비 플랜의 중요성이 높아간다는거지..

-늪은이가-

이젠 각자 심각하게 97년 때 사례들을 각자 보고 준비에 들어가라... 지금은 막연한 기대보다는 일단 안전 우선이니까..

6월, 7월에는 레이더에 폭격기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지금 11월 초 입 전인 지금은 공습경보 발령했다고 보면 되는거야..

한마디로..

9월 괴담 어찌고 육갑 떠는 애들이 본건 스텔스 폭격기였고.... 아직도

니들은 이게 다 비현실적 괴담 같아 보이지?

빨리 밥이나 차려서 쳐 먹고 거울보고 싸대기 좀 때린 다음에 정신 좀 차려라...

언제까지 이 따위로 할래.

행동 수칙 제 1조가 뭐라 그랬어.. 언제 어느 상황이든 사태 수습에는 일단 잔인할 정도의 현실 인식이 우선이라고 했지.

그래야 해결 수습책이 나온다고..

각자.. 준비해!!!

크르~~~~릉... 이젠 야생의 생존 본능을 살릴 대다...

<2008년10월24일>

47. 한국 CDS ..605..

장외 CDS 620 폭등..

하루에 150bp 수직 상승.....

솔직히 이젠 두렵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다..

이미 CDS가 터질 경우에 그 과대 변동성 국가 그룹군에서 제1차 폭발이 터질 가능성이 농후한 현재 시점에서.....

풍선 이론 알지.... 제일 약한 곳부터 터지기 시작한다는거..

현재 한국 시장은 이미 정상 시장 기능이 마비 된 상황이나 마찬가지며..

정부 정책 통제력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보는게 정답 같다.

진짜... 소름끼친다는걸 처음으로 느낀다... 안되겠어... 소주 한잔 마셔야지...

저 앞에 함바집에 가서 글라스로 마시고 와야겠어..

진짜 맨 정신으로는 버티기 힘들구나.

크르~~~~~릉... 아... 나 미쳐...

-늪은이가-

<2008년10월24일>

48. 이제 더 이상 신선놀음이나 할 시간이 없다.

더 이상 소망 교회가 어찌고 저찌고 강만수 타령이나 하고 있을 시간 따위는 이제 없다.

대통령이 결단을 못 내리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긴급 발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사태를 수습하지 않는 한 우리 모두는 다 끝장이다.

대통령과 정부와 따로 분리 독립된 전직 IMF때 경제 관료나 은퇴한 관료들을 끌어 모아 긴급 TF를 구성해서 비상 TF는 어드바이스를.. 재경부는 드라이브로 추진력... 한국은행과 금리 정책 동조로 맞춰 나가지 않는 이상..

심각하고도 수습 불가능한 미래가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다..

이것도 안 되면 비상 임시 권한을 부여해서 최소 6개월간 사태를 수습해야 할 상황인지도 모른다..

더구나 숨길일이 따로 있지..

재정부 니놈들이 한국이 IMF 에서 논의 중인 달러 유동성 공급 국가 그룹군이 아니라고 우기면..

그게 사실이 아닌게 되냐?... 이진 무슨 개또라이들도 아니고 ..

지금 바라는데 외국 언론에서 립 서비스라도 아니라고 반박 보도를 내 달라는 그런거 같은데 이제 속인다고 속여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이미 알 놈들은 다 알고 있는 마당에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대세를 거스르며 흑세무민으로 아직도 그 미친 우민화 정책이 씨알이 먹히리라 생각하는게 전형적인 관료주의에 물든 애새끼들의 샘플이구나.

강만수는 비정하게 말하자면 멍청한게 아니다... 강만수를 멍청하다고 생각하는건 심각하게 잘못 보고 있는 것이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인간이야.. 어릴적에는 심지어는 신동 소리까지 듣고 관료 중에서도 출세가 빠르고 심지어는 학생 시절에는 글도 썼지.

문제는 이 인간은 전형적인 정책 기술자라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 필요한건 거시적인 관점에서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경제학자 출신의 장차관이 필요한 거지 이 따위 법대 출신의 전직 정책 기술자가 필요한게 아니란 거지..

그러니 해법이라고 나오는 것이나 손을 써야 할 타이밍에 마피아가 어찌니 모피아니 지를 염병 꼴깍을 떨면서 정부 내에 파벌 만들기에 열 올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다 말아 쳐 먹기 직전까지 온 것이다..

강만수가 왜 아직까지 건재 한 줄 알기는 알아?..

강만수가 10년 전 재임 시절에 심어 놓은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에다가 밑에 예전에 있었던 은혜 입은 놈들 심어 놓은 애들이 파벌 파워 그룹으로 정부 전체를 압박 하니까 의회에서 짜르라고 염병을 해도 안하무인인 거지..

임태희가 강만수 라인이라면... 말 다한거다... 강만수의 정부 조직 계보도를 보면 기절할 것이다..

이런 흡혈귀가 한국 경제를 통제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이제 한국 경제의 핵심은 환율 금융 시장에서 ==>> 이제 키포인트는 부동산과 금리...

그로 인한 실물 경제 파급 효과..

은행에는 돈이 씨가 마르고 중소기업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도 환율 압박에 회사 운전 자금 압박으로 줄도산 직전... 일반 가계들은 은행 대출 이자와 소비자 물가... 그리고 고용 불안까지 겹치면서 지금에 이르러서는 정신과가 대호황 특수기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내몰리는 마당에..

내일은 괜찮겠지.. 내일은.. 내일은... 내일은... 그러기를 이제 11월 코앞.

이미 한국 경제는 3월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의 징후가 뚜렷하기 때문에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귀에 못 대가리 박히게 말해도 정책 기술

자 만수는 나몰라라에 미친 대통령은 지 멋대로 아마추어리즘으로 일장춘몽의 개꿈이로세.

그러더니 이제 5월 넘어가고 6월이 지나니까 이젠 인플레 폭등 리스크가 있으니 선방어 전략이 중요하다고 또 귀에 못 대가리 박히게 얘기 하니까 나몰라라.. 수출 올인..

5월 말에 가니까 환율 변동이 이젠 거의 아시아 NO.1... 등락폭이 25%...

이걸 일본 산케이 니혼게이자이 아사히 다 떠들어 대니까 이것도 괴담... 저것도 괴담.

그러다 7월 가서는 이제 9월에 위기니까 마지막 막차다.. 지금이라도 살려면 늦지 않았다고 사정사정을 해도 그 때가서는 물가가 심상치 않으니깐 밖에서는 괴담 타령 하더니 물가 잡겠다고 본격 환개입...

7월 월초에는 난데없이 대통령이 떡 나타나서 3차 오일쇼크 발언에 외국 애들이 경악..

그러다가 10월달 오니까 이 모든게 한 방에 터져 나오면서 이젠 벼랑 끝으로 몰리고 외환 채권 주식 시장이 모조리 다 쓰나미...

채권시장에서 은행채 막히니까 예대 마진 평균 130%가 넘어 가는 상황에서... 돈 가뭄에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이젠 부동산 자산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 진입으로 지금은 담보 가치 하락에 따른 리스크 비용 상승 압력...

그렇다고 추가 담보 요구해???.. 그것도 아니지.. 뭘 투기꾼도 아니고 집에 3~4채도 아닌데..

거기에 지방에는 쌓여 있는 미분양 똥 치우지도 못하다가 정부 매입한다고 설레 바리 치면서 신도시 발표..

10월 중순에 와서는 이제 보다 못해서 급하니까 그 잘난 허구헌날 좌빨 어찌고 난리 부루스 치던 애들이 만든 외환 보유고 2400억 달러 들먹이며 지금 보증 1000억 달러 소리로 연일 나팔수 동원.

근데... 그걸 이국 애들이 믿어?.... 지금 국내에서도 아무도 안 믿는데.

그러더니 오늘은 급기야 1000 포인트 박살나고 이젠 900도 위험.. 거기에 IMF는 이제 준비 한다고 설치지..무디스는 한국에 위기 어찌고 저찌고 오늘 어제 계속 들먹이지..

당장... 비상 TF만들어라... 예전 고대에 있었던 원로원들이 있었던 이유는 그냥 늙은이들 돼질때까지 자리 보존하라고 있는게 아니라 국가 위기 때에는 나서서 숨겨진 힘을 쓰라는 것이다..

이젠 예전 원로원 노인네들 다 끌어 모아서 빨리 비상 TF 만들고 시장 안정화 시키고 청소 할 놈 정리 하고 사태 수습해라.

한 그림... 그 잘나 빠진 니들 자존심 세워 주자고 전 국민들이 다 죽는다.. 소수의 프라이드를 지키기 위해 다수가 피를 흘릴 수는 없다..

크르~~~~~룽...

반드시 명심해... 만약 지금 이 상황에서 비상조치가 없으시에는 이제 이 나라 경제는 무정부주의로 가자는 걸로 알고 새로운 시나리오를 짜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늙은이가-

역대 사상 최강의 아마게돈이 몰려 오고 있다.. 이 나라의 잔인한 현실은 이런 초강력 액션 블록버스터를 관람하는게 아니라.. 문제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이라는데 잔인한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진짜 심각하다는거야.

크르~~~~~룽...

언제까지 니들 신선놀음 말장난 하는데 장단 맞춰 줄 시간적 여유 따위란 없다.. 이제 놀만큼 쳐 놀았으면 파티를 끝내고 할부 값 값을 궁리를 해야지!!!! 안 그러냐!!!!!!

<2008년10월24일>

49. 이제 97년 IMF를 극복했던 사례분석이 중요한 시점이다.

한국 경제는 절대로 망하면 안 된다.. 이걸 최우선 제 1 절대 명제지..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솔직히 이제 가식 다 집어치우고.

그런 자질구레한 자존심이 어찌니 한국 경제 펜더멘탈 어찌고 하는
개소리도 걷어 내고..

진지하게 97년 그 당시... IMF를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극복 했는지
잘 따져 보고 일반 시민들이 살면서 극복한 사례집 같은 것도 보고..
그런 수기나 실생활에서 극복한 수기들도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 극복하려는 개인적 차원에서 개인 일반 가게들이 살아남
는 비상 플랜 설정이라는데 이제 핵심이 되었다.

=====

기본 행동 수칙 ABC 가운데 3번째는 문제가 닥치면 일단 "0"로 돌아
가라.....

이게 살면서 왜 중요하냐 하면 사람이라는건 누구나 자존심이라는 심
리적 장벽이 있다... 자존심이라는 건 개개인의 정신적인 외부 충격의
방어 기제로써 작용하는 사실상 중요한 삶의 일부분인건 사실이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자칫... 이런 것들이 현실 문제 인식에서 결과 도출시
오관 가능성을 높이는 변수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 같은 극사실주의자들은 설사 자존심이 깨지더라도 극사실
적인 결론 도출을 위해서 일시적으로라도 이런 자존심이라는걸 포기
한다.

이게 좀 황당해 보이지?... 이건 사실 연습 없이는 좀 굉장히 힘든 부
분이야..

하지만 살면서 이렇게 중요해지는 순간이라는게 있거든... 누구나 살다 보면 인생의 중대 결정이라는 걸 3~4 차례씩 겪기 마련인데.. 이런 함정을 피해 가기 위해서는 나이 불문.. 성별 불문... 이렇게 필요하거든..

그 다음에 0에서 시작한 걸 바탕으로 플랜을 짜기 때문에 설사 외부 변수가 생겨도 대응력이라는게 생긴다..

이건 가장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이게 안 되면서 심리적 좌절이나 타격으로 자살 아니면 아웃사이더로 자포자기의 길을 가는 애들을 여지껏 수십 트럭은 봐 왔기에 하는 말이야.

사람마더 워낙 천차만별로 가지각색이라 딱히 표준을 말하기 어렵지만 대충 대비책 같은건 이미 예전에 다 말해서 간추려서 한 20가지가 되는데 이걸 이미 각자 잘 아시겠지.

지금 밖에 회오리바람 몰아치고 있다.... 더 이상 귀신 시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말고 이젠 97년의 학습 효과라는걸 다시 꺼내서 대비를 할 때다..

나라의 운명 어찌고 하는 신선놀음 하는게 아니라... 현실적인 밥 숟가락 걱정이라는걸 할 때란 거야..

그래서 예전 사례집이나 극복 수기 같은걸 보는게 중요하고.

크르~~~~~릉..

야생 늑대는 눈덮힌 시베리아 벌판에서 사냥 후에 한번에 먹이를 다 먹지 않는다..... 반드시 두 세군데에 먹이를 나눠서 보관하고 먹이감이 사라질 시기를 본능적으로 대비하지.

-늑은이가-

<2008년10월24일>

50. 재경부가 괴담이라고 지껄인게 하루만에 현실화 되는 현실

IMF 한국 사무소가 올해 철수했다..

그리고 상반기 전까지는 불안불안해도 설마...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비만 잘 하면 IMF 시즌2는 없을거라고.



근데 지금 IMF에서 한국 대출액을 218억의 상한선까지 끌어올려서 준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한국 재정부 이 씹세들은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이런건 다 괴담이라고 지껄였다..

하루도 못가서 뒤집어 지는 수준이 지금 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것이다..

외국애들은 둘째 치고 이래 버리니까 이젠 한국에 있는 시장 주체는 물론 동네 개새끼도 정부 말을 안 믿는다.

그러면서 지금 골프장 그린피 얘기나 쳐 지껄인다..

이걸 보고 일선 사장님 신문을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리신다...

이젠 심각하게 일본 부동산 실물 자산 하락에 따른 시장 파급 여력에 대한 정밀 검증에 들어가서 대비를 해야겠다..

다만 문제는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아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변수지.

● 한국경제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IMF	3.5
삼성경제연구소	3.6
LG경제연구원	3.6
한국경제연구원	3.8
도이치뱅크	3.5
JP모건	3.7
UBS	2.9
무디스	2.2

이래 버리면 진짜 할 말이 없는거야...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이 정도란 말이지..

이 전망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악화가 안 될시에 수치인데 3%대 하방에서 일부 구조 조정으로 인한 인력 구조 조정과 내수 자영업 붕괴로 인한 소비 여력 감소까지 붙어 닥치면 대책이 없다는 거지.

지금...

정부 말을 현 상황에서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 크르~~~~~룽..

정부에서 괴담이라고 지껄이면 하루 자고 나면 현실화 되는 모래 요정 바람돌이...

MB 노믹스..

-늪은이가-

<2008년10월25일>

51. 미자.



현재 2008년도 전국 부동산 총액 = 3200조원 가량이 된다... 이것은 현재 한국 2008년 GDP 총액의 약 3.68배 수준으로 일본 쪽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아파트 부분만을 따로 떼서 볼 때 현재 가격 대비로 약 63%... 최대 68%까지 버블로 보고 있다.

수익 환원법으로 볼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의 경우 68% 가량이 버블이며 지역 편차가 있으나 최소 50% 후반대까지 국내에서는 버블로 현재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G7 기준 외국에서는 GDP 대비 부동산 가격이 1.0배~1.6배가 넘어가지 않는다...

실제로 볼때도 또한 이것이 적정 가격인 것이 사실이다.

GDP 대비 적정 토지 가격을 1:1 매칭률로 볼 때 현재 한국 부동산의 적정 가격대는 현재의 30%~35% 선이 되어야 정상이라는 소리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인위적으로 방지할 경우 한국의 경제 시스템 상으로 볼때 일본식 장기 불황은 솔직히 사치다..

말 그대로 남미형 경제로 추락한다고 보면 될 것이며 그걸 막으려면 부동산의 하락을 막으면서 자산 디플레이션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상황에서 총 GDP를 끌어 올려서 부동산 실물 자산 가격의 적정점을 찾아 주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7년 가량이 현재 소요된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국민 소득 2만불은 커녕 실제로 현재 부동산 가격은 실질 소득 5만 2천불 수준이라고 보는데 보통이다... 실제로 LTV나 DTI의 40% 규제률도 이 가드 라인 설정 당시 굉장히 말이 많았던 것이다... 바로 문제의 키포인트는 한국의 전세제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세라는 특수한 부동산 수요 때문이었다.

그래서 가드 라인 40%가 설정된 이유가 전세금 50% 대비로 책정해서 총 부동산 가격의 100% 안쪽에서 때려막자는데 핵심이었는데 전세 자금을 말 그대로 고스란히 은행에 쳐 박아 놓는 멍청이는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다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전세를 주고 이어져 가는게 통상적인 상황에서 그 자금 투자액이 주식 채권으로 흘러 와서 주가 폭락으로 인한 자본 손실로 실제로 헛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설사 완전 규제를 한다 한들 은행권 입장에서는 신용 리스크를 이미 감내할 만한 수준을 뛰어넘었다...



● 한국경제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단위:%)		거기에 실제로 이미 자산 디플레이션의 초기 단계로 보고 있는 상황상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눈에 띄게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 대출도 힘든 마당에 부동산 가격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규제 해제가 주택 가격 구매 가수요를 창출할 것이라는 건 솔직히 은행 애들이 보기에는 판타스틱한 소리로 밖에 안 들린다.
IMF	3.5	
삼성경제연구소	3.6	
LG경제연구원	3.6	
한국경제연구원	3.8	
도이치뱅크	3.5	
JP모건	3.7	
UBS	2.9	
무디스	2.2	

현재 경제 상황에서 올 하반기 경제 성장률은 이미 3% 대 후반에 진입을 한 상태에서 실제 현재 인플레이션을 대입시 이미 실제 국민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2% ~ -3%에 달하는 수준이며 문제는 2009년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 이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5% 이상의 치명적인

타격을 맞게 된다.. 이미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주택 담보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시작 된다.. 그 규모만 92만명에 33조가 몰려 있다.

연도별 주택담보대출 상환 예상 금액 ※5대 시중은행 기준		2008년	2009년	2010년
총액		17조4000억원	33조5000억원	24조 8000억원
대출자		59만명	92만명	119만명
1인당 월 원금상환액		36만원	32만원	33만원

부동산 자산 유동화기업어음(ABCP) 만기 도래 현황		2008년 3·4분기	2008년 4·4분기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3.4조	2.1조	4.5조	3.1조	2조	15.2조

이런 경우 은행 이자 부담의 증가분+ 원리금 상환액수는 1인당 평균 77만원~100만원에 달하게 되며 2009년+ 2010년=55조 이상이 몰려 있다.

거기에 ABC(부동산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라는 PF기반 기업 발행 어음의 경우 2009년부터 만기가 시작되면서 건설사 동반 수실로 이어 질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일단 서브 프라임의 불은 끈 상태지만 미국 경기 침체는 미국 부동산 현지 가격의 추가 하락 압박의 경기 싸이클 상 최소 3~4년간 -25 ~ -30% 선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경우는 사실 1930년 대공황 이후 처음 있는 일이지만 이런 기초 사례 분석은 1990년대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주의 집값 하락 진행 추세에 근거한 모델링으로 거의 현재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한국의 부동산 실질 자산 디플레이션의 초기 증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두드러지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 추세는 고령 사회 = 2018년... 초고령 사회 = 2030년 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의 추세상 사실상 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채 9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30년에는 2.7명당 나 같은 노인네 1명을 부양해서 먹여 살려줘야 한다..

이런 과도한 부담 증가로 인한 주택 구매 여력 감소로 이어져 사회에

서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률은 감소하게 된다.

사실상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고령 사회로 진입이 되면 평균 경제 성장률은 사실상 3% 대가 안 나온다...

그 때는 사실상 성장 기조가 꺾이면서 나오는 현상이 중산층 붕괴 ==>> 고용불안 ==>> 제조업 해외 이전 가속화 ==>> 성장률 저하 ==>> 청년 실업 증가 ==>> 국민 연금과 의료 연금의 비용 압박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인 현재 한국의 부동산 가격의 추세상 손익 분기점을 맞추기 위해서 국내 투자 보다는 해외 이전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 진 것이 그 실증 반례이며 그로 인한 이런 전이 효과는 이미 중간 단계를 넘어서 연기금 부실이라는 실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는 현재의 한국의 노동 생산성이 미국의 40%... 일본의 50% 대비 임금 면에서는 중국이나 동남아 기준 10 배 수준이다... 이로 인해서 기업의 비용 계산시 해외 이전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이것은 곧 바로 국내 실업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 한국의 올해 정부 발표는 가짜다... 이걸 흔히 통계의 함정이라고 하는 숫자 장난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실업률 수치를 발표시 통상 하루에 3시간만 일하면 실업자로 분류를 하지 않는다.. 거기에 사실상 취업 준비생이라는 애매한 부분부터 실제 생산 현장에서 수요 창출이 없는 미생산 노동 인구분까지 산출시 체감 실업률이라고 하는 노동력 불완전 활용도가 올해 9월까지 15%에 달하고 280만명이 비생산 인구로 실질적인 실업자라는 소리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구매 수요라는걸 행후 10년~15년 이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현재 한국의 산업 구조상 건설업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인구가 대략 26% 선이다.. 아파트만 지으면 다 끝나는게 아니다...

샷시에 내부 인테리어 문짝 가구 업자부터 시작해서 이걸로 먹고 사는 인구가 이정도에 자영업자는 주요 OECD의 두배 수준인 32%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현재 제 2차 자영업 구조 조정기에 들어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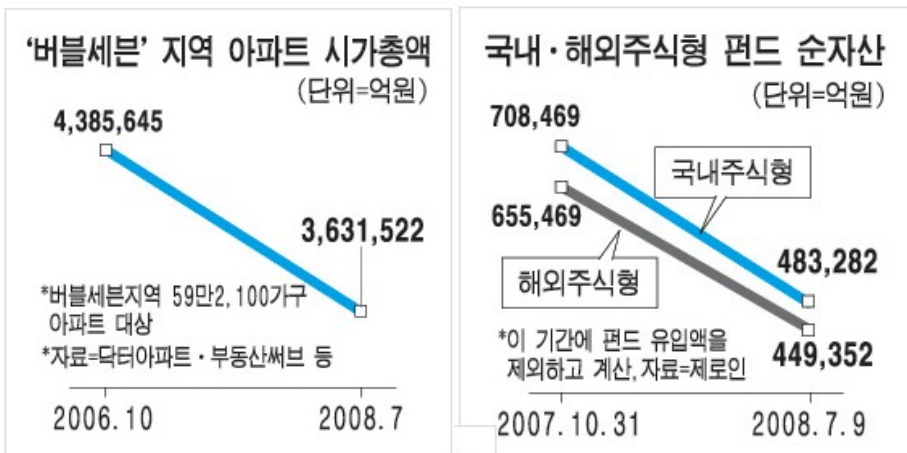
2005년도에 총 자영업자의 5%가 망하거나 구조조정을 했다..그 때 경제 망한다고 난리를 쳤지.. 2004년부터..

지금 현재 상황이 그 상황을 뛰어 넘고 있으며 2009년에 그 과급 효과라는 게 현실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우려의 목소리로 이구동성 외치면서 정부 대응책을 주문하고 있지만 정부 대응책은... 없다.

묵묵부답.... 일부러 썰까지는 건지 될지.. 별 희안한 걸 가지고 소상공인 제도랍시고 가져 나오더군.

이런 추세 속에서 월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비율 PTI는 올라 가고 있다. 현재 서울 지역만 24%... 전국 평균은 27% 수준이며 이것은 2002년 대비 수도권 PTI = 13%의 거의 2배 정도 수준의 상승률이다.

이런 막대한 이자 부담 속에서 왜 현재 이것이 문제가 되냐 하면 이 수치는 일본 헤이세이 불황 전초의 부동산 버블 폭락 바로 직전의 주택 상환금 비율 = 26%와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을 안 하고 다 쉬쉬 하고는 있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이 자산 디플레가 일어나니까 매매차익은 없어지고 대출 이자 부담만 증가 한다.. 이런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건설 경기 부진으로 전이 되고 이것은 현재 총 인구의 25%를 먹여 살리는 고용 인력의 감소라는 결로 나타난다... 그 당시 일본의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7% 대였다..

■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및 지출

(2000년가격 기준,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연간	2007p				2008p		
		1/4	2/4	3/4	4/4	1/4	2/4	3/4
국내총생산 (GDP)	5.0	1.0(4.0)	1.7(4.9)	1.5(5.1)	1.6(5.7)	0.8(5.8)	0.8(4.8)	0.6(3.9)
비농림어업	5.1	1.0	1.8	1.5	1.7	0.8	0.8	0.6(3.9)
농림어업	1.1	0.8	-1.0	0.9	-1.1	0.5	2.0	-1.3(0.4)
제조업	6.5	0.4	3.1	2.5	2.9	0.7	2.2	0.4(6.4)
건설업	1.8	0.2	-0.8	0.6	1.0	-0.5	-2.4	1.5(-0.3)
서비스업 ¹⁾	4.8	1.1	1.4	1.5	0.8	0.5	0.5	0.2(2.1)
민간소비	4.5	1.6	0.9	1.3	0.8	0.4	-0.2	0.1(1.1)
설비투자	7.6	4.5	1.6	-1.8	2.1	-0.4	0.9	2.3(4.9)
건설투자	1.2	-0.3	-1.2	0.2	1.2	-1.4	-1.0	0.3(-0.9)
재화수출	12.0	3.3	4.3	1.8	7.4	-1.8	4.3	-1.8(8.1)
재화수입	10.9	4.0	5.9	-2.4	9.9	-1.9	4.2	-1.7(10.4)
국내총소득 (GDI)	3.9	-0.3	1.4	1.3	0.3	-2.1	1.4	-3.0(-3.2)

주 : 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서비스업 포함

2)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

97년 당시의 IMF 시즌1이 기업부실 이었다면 이번의 2008년도에 분제가 되는 것은 가계 부실 문제가 핵심이다.. 이것은 워낙에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기업 문제처럼 일괄적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인데 여기서 대정부 리스크 관리 실패에 따른 자신 디플레이션의 가속화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걸 마이너스 부 효과라거나 역(逆) 부의 효과(wealth effect) 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아줌마들이 미래의 이자 가계 부담이나 고유가, 인플레이션, 학원비 상승에 실업률 증가로 인한 미래 수요를 예상하고 자산 하락에 대비해서 지금부터 소비를 왕창 줄이는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감세를 통한 내수 진작이라는 건 완전히 상쇄가 되면서 세금 부담만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미 한국의 주택 보급률이라는 것은 2006년도에 110%가 넘어선 상황이며 매년 평균 5%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을 주시해야 한다..

일본의 헤이세이 부동산 폭락 시 주택 보급률이 140% 였다... 이미 과포화 상태에서 미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재 지가는 헤이세이 불황 92년 초기의 60% 이상이 폭락한 상태에서 주택 11%가 공실로 비어 있고 피를 본 후에야 일본은 2000년대 이후에 경제 부흥기로 재점화를 할 수 있었다. 지금도 나온 분석은 일본 경제 회생을 위해서 현재 부동산 가격의 40% 가량이 더 폭락해야 한다고 시시 때때로 티비에서 더들어 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2012년 한국의 주택 보급률이 140%에 급접할 때 이걸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인당 국민 소득이 6만 달러가 넘어야 가능한 상황이다..

지금 이 나라 사람들은 이 6만 달러에 맞추려면 잠도 자지 말아야 한다.. 미치도록 일해야 이 140 % 수요에 맞춰 줄 수 있다.. 그것도 향후 고령화 사회 진입 시기로 접어들어서 이젠 실질 성장률이 3% 아래로 고착화 되는 시기인 8~9년 전까지 말이다..

지금 추진 신도시만 판교, 김포, 파주, 광교, 양주, 송도, 송파, 아산, 검단, 동탄... 이젠 기억도 잘 안난다.. 한 숨 돌리고 할 정도로 수요는 썩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업이 GDP 15% 내외지만 전체 국민들 1/4를 먹여 살리고 있다... 수출 백날 해 봐야 솔직히 전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직·간접적인 혜택이라는 것은 자영업자부터 다 포함하면 솔직히 50%~60%는 남의 얘기다..

이런 사회 불안의 증가로 인해서 현재 개인 파산과 자살율은 일본 헤이세이 불황기의 2배 수준이고 이혼율은 작년인가 저저년도에는 세계 2위로 미국 다음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농림부에서는 한국 농지 가운데 50% 정도가 남는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한 규제 해제로 인해서 지금 터진 문제가 쌀 직불금 문제다... 지금 현재 식량 자급률 23% 수준도 동일 유럽 국가 비교로 프랑스 식량 자급률 300%나 주요 공업국이라는 독일만 봐도 160% 가 넘는다...

한 마디로 제 아무리 주요 공업국에 산업 구조 특성 때문이라지만 현재 23%는 독일 기준 1/8 수준에 프랑스의 1/15배 수준으로 앞으로 곡물가격 급등락에 따른 국내 수급 문제도 문제시 되는 상황에서 현재 농촌에서는 60대는 청년이라고 한단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산업 시설 설비 투자 지수는 2007년 +10.1%대에서 2008년도 현재에는 -4% 이하로 떨어지고 제조업 채산성 BSI=68로 98년도 IMF 당시 53 수치 근접 수준이다. 거기에 향후 10월 경상 수지 적자에 따른 추가 환율 폭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새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부 재정 적자 문제다.. 장기적인 정부 재정 적자는 결국 세금 인상으로 직결이 되면서 세금 인상에 따른 부동산 추가 가격 하락의 요인이 된다..

설사 지금 5년간 누르고 세금 경기 부양을 하고 쳐도 다음 차기 정권에 막대한 재정 부담 압박으로 빚더미를 넘겨주는 꼴이 될 판국이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세금 경기 부양으로는 2013년 까지 -3조의 세수

감소가 나온다. 지금 현재 총 GDP 대비 35%~37%가 정부 재정 적자인 상황에서 2010년 이후의 세금 경기 부양으로 받을 정부 재정 압박상 그 후에 받게 될 세금 인상 부담액의 증가는 세수 감소분까지 겹치면서 세금 폭탄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초거시적인 상황으로 보면 노인 인구 증가 ==>> 재정 지출 압박 ==>> 통화량 증가==>> 인플레이션 추가 압박 ==>> 복지 수준 하락 ==>> 재정 지출 증가..

이미 중간 이후까지 진행형인 상황이지만 복지 수준 하락은 맞는데 재정 지출 증가는 현재까지는 강제로 틀어막고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최하위층이 직격탄을 무방비로 맞고 있다.

어떤 분은 1997년 사례를 들면서 그 때 일시적인 집값 폭락 이후에 부동산이 재폭등을 했다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있다..

그 때와 지금의 다른점은 일반 가계 대출이다... 설사 지금을 넘긴다 치더라도 향후 4년 이후에 주택 구매력이라는게 회복될지는 미지수다... 원래 거래라는 것은 구매 대상자의 구매력이 갖춰졌을 때 실질적인 가격대 형성 유지라는 것이 가능한 데 과연 떨어져서 회복세가 된다 한들 그걸 구매해 줄 여력이 없으면 97년 이후와 같은 2002년 이후와 같은 재상승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IMF 당시에는 이번처럼 가계 대출이 많지도 않았고 그 때문에 국가 파산 위기에도 일시적이지만 집값이 30% 정도 밖에 안 떨어진 이유가 잠재 구매 여력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니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1990년 헤이세이 불황 당시 15년에 걸쳐서 -70% 가까이 떨어졌던 사례를 보면 향후 2년 내외 단기간에 -15% 하락.... 5~7년 년내에 추가 하락은 이미 기정사실로 보고 5년 년내 -27~-35% 가격 하락을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더구나 97년 이후 2002년 부동산 가격 재폭등 시기에는 세계적인 미국 경제 호황에 IT 버블기로 신흥 성장 동력 산업의 대두기였다는 변수를 잊으면 안 된다..

지금은 그와는 180도 다른 국내의 변수상... 이런 기대조차 무리....

물론 개인적으로 부동산이 저가 평가 되었다고 보거나 아니면 거주 목적이려면 모르겠지만 향후 10년간...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이자 부담과 금융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있으면..

보유 하는 걸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어떤 분이 위에 그래프 보면서 그러신다..왜 이렇게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폭락하느냐... 주가 바닥이 어디냐.. 직접 이걸 이 메일로 보냈더라고....

외국 애들은 모건 스탠리고 어디고 한국 경제는 문제없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 팔아 치우는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환율 시장 불안 + 금융 시장 불안 ==>> 부동산 + 금리로의 전이확산이라는 싸이클 패턴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는 현재 문제 있는 회사가 대략 27개사 정도가 된다.. 거기에 한국 국내에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전에는 외국계 자금의 국내 추가 유입은 사실상 없을 것이다...

그래서 주구장창 외국 애들이 주식을 팔아 치우는 이유가 그것이다..

왜냐면 부동산 버블이 터질 경우 주가 낙폭 과대로 아예 빠져 나올 시간도 없이 막대한 추가 손실은 감당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국내 변수가 해소되지 않는 한은 주가 상승은 무리라는 얘기다..

바닥?... 아직 내부 악재가 안 터졌는데 뭘 바닥???

오늘 아까 고구마 팔러 나갔는데 웬 아줌마가 오더라고.. 난 욕쟁이 할아버지라고 아파트 아줌마들이 웃고 떠들거든.. 그래서 오더니 "할 아버지... 간만에 나오셨네요?"... 그러더니 아파트 부녀회에서 아파트 집값을 못 내리게 막는다는거야..

그러면서 내려 팔고 싶은데 어찌냐고.. 썩까고 그냥 지금이라도 급매 물이라도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찌고 하길래.. 썩까고 정리하라고 했지... 하여간 이놈의 여편네들은 부녀회라는게 악질이야... 가격 내려서 팔려고 해도 못 팔게 막는다니까.

지금 그런 동네가 한 둘이 아닌 상황이지... 그런다고... 대세를 막을 수 있나??..

주식은 부동산 악재가 해소 될 때 그 때가 바닥이라고 보고 들어가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정석이야..

지금은... 돈 한 20억 주식으로 굴릴 자신 있으면 저가 매수하는거고.. 그게 아닌 푼 돈 몇 천 가지고 지를려면 사실 지금 지르는 건 미친 거지..

S&P의 국내 은행 신용등급 조정결과

기관명	조정전	조정후
국민은행	A Stable	A Watch Neg
우리은행	A- Stable	A- Watch Neg
신한은행	A- Stable	A- Watch Neg
하나은행	A- Stable	A- Watch Neg
하나핀딩	BBB Stable	BBB Watch Neg
외환은행	BBB+ Stable	BBB+ Watch Neg
우리금융	BBB+ Stable	BBB+ Watch Neg
신한카드	BBB+ Stable	BBB+ Watch Neg

사실 지금 제1금융권도 문제가 있는 곳이 좀 있지... 2군데... 이젠 신경쓸게 한 두개가 아냐.

진짜 못 살겠다. 방금 장사 끝내고 맥주 한 잔 마시다가 씨 봤어... 오늘 아줌씨 때문에.. 동네 아줌마들이 자꾸 찹쩍 대 가지고 진짜 늙어서 못 살겠다..

사라는 고구마는 안사고 자꾸 와서 이 판거나 물어보니 어찌라고... 이젠 다른

단지로 옮겨야 할러나 봐... 괜히 씨부려서.

크르~~~~~룽....

-늪은이가-

이젠 쇠주 마시러 가 봐야겠다... 주말에는 동네 늪은이들끼리 술 파티
하는 날이거든... 며칠 너무 쉬었어.. 이젠 몸 풀러 가야지... 크
르~~~~룽....

이젠 늪은이 꺼진다..

짐승의 길.....

<2008년10월25일>

52. 정말 고구마 파는 노인네라니깐..

지금 집에 노인네들 와서 술 사가지고 부침개 부치고 있는데..

진짜 고구마 파는 노인네라니깐 그러네..

미자는 오늘 오후에 고구마 사러 온 색시 이름이야...

"근데 색시 올해 몇 살이야?..."하니깐 "39이여".. 그러더라고..

그러니 이름 물어 보길래 미자래... 최미자.. 색시.. 실명 거론해서 미안혀..

그리고 지금 장사하는 나와바리가 동네에 소문나서 이젠 반 카운셀러 받으러 오는 여편네들이라서 고구마 팔면서 채무 상담 겸업 하느라 장사하기가 힘들어서 그래.

포트폴리오 짜달라고 뭐 들고 오는데 고구마 파는데 길에서 그 짓거리 하기 좀 그러잖아.. 그런데 어떤 여편네가 의자 하나 주워다가 공원 뒤쪽에 놔 뒀더라고..

그래서 오늘 장사 한 3일 술 마시다가 안 나갔더니 여편네들이 와서 추운데 고구마 까먹으면서 그러잖어..

그러니깐 사람들이 이거 뭐냐 하면서 쳐다보고.. 늙은이 쪽팔리게.

아깐 오전 10시 쯤 되서 여편네 하나 나오더니 영감 나타났다고 그래서 계속 오잖아.. 그 중에 1/3은 고구마는 안사고 주스병 들고와서 마시라는거야.. 소주나 가져 오지.

마지막 손님이 미자야..

이젠 옆에 2단지로 단지 옮길라고..

그래서 침묵은 금이라는거야..

요즘에 입 한 번 잘못 놀리면... 진짜 안 된다..

취 죽은 듯이... 취도새도 모르게... 뭘 말인지 알것제..

이젠 빨리 가서 부친개 마저 부쳐야겠어... 노인네들이 빨리 부치라고 극성이라서...

술 한 잔 마시다가 필 오면 하나 더 쓸께..

이젠 빨대 꽂으러 가야겠다..

미자... 근데 미자가 잘 살아야 할텐데.. 곱상한 색시가...

이 집구석도 남편이 주시기를 좀 잘못 꼬질러서 문제가 터진 집구석 이거든... 그래서 몇 일 잠 못 잤나 봐..

하여간 숨긴 계좌나 신용 쓴 것 있나 없나 잘 뒤져보고..

숨기는 집들이 요즘 하도 많아서 말야..

정 거시기 하면 그냥 기계가 쓴다고 생각하면 되지... 나 AI 야... 어 때?... 간단 하잖아..

<2008년10월25일>

53. 자꾸 뭔가 착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나라 민족성이 원래 그렇게 꿈짜를 좋아해서 그런건지..

아니면 밀지고 파는건 배알이 풀려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11월 바로 전인 지금 상황에서 대안이라는건..

일단 대가라는걸 치룬 다음에 태풍이 휩쓸고 지나 간 다음에서야 대안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럼... 암 말기 환자한테... 장기 이식을 해야지... 암 치료 하자고 약물 투여만 한다고 암이 완치가 되냐?.

한 번 쓸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말하는게 대안이야..

그럼 그러지.. 왜 한번 쓸어버리자는 비관적인 소리 하냐고..

왜냐고?... 이게 바로 양비론에 찌들대로 찌들어서 조중동에 세뇌당하기를 30년 역사의 퇴물이라는거야.

시간 지연에 대한 경제적 사회기회 비용이라는걸 지금 2달이나 지나서 다 놓쳐 버렸으니 이젠 결과만 도출 되었잖아!..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한 댓가라는걸 치뤄야지 그 다음에 재건이라는 말이 나오는거지...

지금 장난해?...

이래서 일부 또라이 같은 애들 말장난 해 주기 짜증난다는 것이다..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지멋대로 놀아나다가 이젠 카드 청구서 들이밀고 나면 그제서야 이거 어찌냐고 대안 내놓으라고..

그게 강만수와 이명박과 일부 한나라당 또라이 애들과 정치 선동에 놀아난 애들과 날 뛰는 늑은이들과 지역색에 빠져서 정치와 경제를 혼동하고 떠들어 대다가 소수가 다수를 몰락시키는 피의 결과를 부른

지금의 현재 모습이라는 것이다.

대안 찾자는 소리 하지 말고 경험적 학습 효과로 이런걸 뼈에 새겨라.

10년 만에 다시 찾아온 소수의 오만이 다수의 파멸을 부른 지금 이 현실을..

사람이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 만큼 중요한게 아니다.. 경험적 학습 효과라는게 없는 인간은 처절하게 결과에 따른 책임이라는걸 뼈에 조각칼로 피로 아로 새겨야 그제야 각성이라는걸 하는 법이니까.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렇게 시스템의 틀을 깨고 나와서 각성이라는걸 하루 발리 하는게 살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반드시 치를 필요가 없는 고통까지 살면서 다 감내 하고 끌어안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걸 인식 하든 못하든 말이다.

-늙은이가-

지금 말 해 주는데 절대로 세상에는 꿈짜란 단 돈 10원도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절대로 마이너스 인생이라는걸 살지 말기를 바란다.

빛은 빛이지 이런 빛까지 재산이 될 수는 없다는건 피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야 인간이라는 동물이 깨닫는 5천억 역사의 진리다.

우리가 특권 신분의 납세 부담까지 져야 할 이유 따위란 나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부당한 권리를 당연하다고 믿는 나라에게 미래란 없으니까.

<2008년10월26일>

54. 너무 시간을 끌었다.

오늘 외국에 갔다 오더니 이제서야 11월 다 되서 은행채부터 예금자 보호 상한 조정 같은거 손대면서 현실 인식이라는걸 하고 있다.

이런 경제 불황 초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적 스피드다.

이런 조치가 이미 9월초나 중순부터 마켓에서 주문을 한 내용들로 아무리 늦어도 9월초나 8월말에 복안이나 플랜 설정이 다 나왔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회의하고 있다.

거의 2달 가까이 지연됨으로써 그 시간적 비용과 대가라는걸 치를 시간이다.

핵심은... 시간을 너무 끌었어... 이게 키 포인트야...

이미 준 IMF나 다름없는 상황 속에서 실물 경제 메인 스트리트로 파급 여력이 퍼져 나가기 시작한지 지금에 와서야 저래 버리니.

오늘 백화점 가서 지금 실물 상황이 어떤지 둘러보고 다녔지..

노인네가 어슬렁 거리고 다니니까 별로 눈에 안 뜨인다는 게 장점이 거든.. 창고에 넣어 놓은 꼬깃한 걸 걸어 놓고 가격 세일한다고 꿀깍을 떨어도.. 사람들이 코드 한번 입어보고는 선뜻 사려고를 하지 않더군..

그냥 다 가 버리는게..

10만원 이하로 다 떨어지고 싸게 파는게 그 정도야..

참.. 그런거 보고..지하 매장에 가니까 식품 매장만 디글디글한게.. 그것도 예전 절반 이하 수준에 몇 번을 들었다 놔다 하는 아줌마들..

아줌마들을 잘 관찰하면 지금 경기가 보이거든.

시간이 너무 늦었어.

소수의 자만이 다수를 과멸로 몰고 가는구나... 소수의 프라이드를 지켜주기 위해 다수가 피해를 봐야하는 이 상황에서 아직도 괴담 어찌고 떠드는 정치색에 물든 애들만 설치고 다니니..

예전 1930년대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오기 전에 딱 지금 이 나라에서 처럼 정치 선동에 열을 올리는 놈들만 득실 거렸지.

존재 여부도 불분명한 가공의 적 좌빨 타령에.

진짜.. 역장이 무너진다.

근거 없는 낙관이 전체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다.

추가 : 자꾸 지금 대안이 없냐고 하는데 세상에는 반드시 결과에 따른 책임과 대가의 법칙이란게 존재 한다..

시간 지연에 대한 대가를 치루고 피고름을 한 번 짜 내야 상처가 아무는 것과 경제는 매 한가지다.

반드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대가라는 걸.. 사회적 비용이라는걸 치뤄야 바닥을 다시고 다시 시작을 할 기반이라는걸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일단... 태풍을 한 번 맞고 난 다음에 시작해야겠지..

그래서 이런 꼴 안 당할려고 9월 전부터 그렇게 귀에 못 대가리 박히게 얘기 한거 아냐!!!

지금 장난해?

내가 얘기 했지... 세상에는 절대 꿈짜라는게 없다고.. 특히 자본 논리는 더더욱 그렇고 말이지.

각자 준비 하고 마당에 철심 박아.. 태풍에 안 휩쓸리려면 철심 박고 준비해야지.

<08년10월26일>

55. 삼신탈매



블룸버그 실시간 뉴스 : <mms://broadcast.donga.com/bloomberg>

(이젠 국내 언론은 못 믿겠다.. 100% 리얼 타임 정보로 시장에 대응한다...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연기금을 -6200억 이상 주식 시장에 때려 박아 주가를 왜곡시키면서 주가 방어라는 걸 했다.

지금 이 주가는 정상 주가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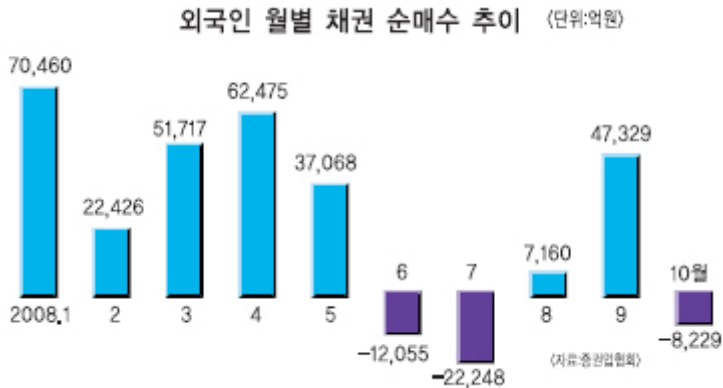
하지만 이걸 꼭 부정적으로 볼 상황이 아닌 것이 어찌면 사실상 국가가 제공하는 마지막 청산 기회를 개인들에게 제공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

다만 이런 식으로 연기금 부실화가 향후 몇 년 안에 수면 위로 부각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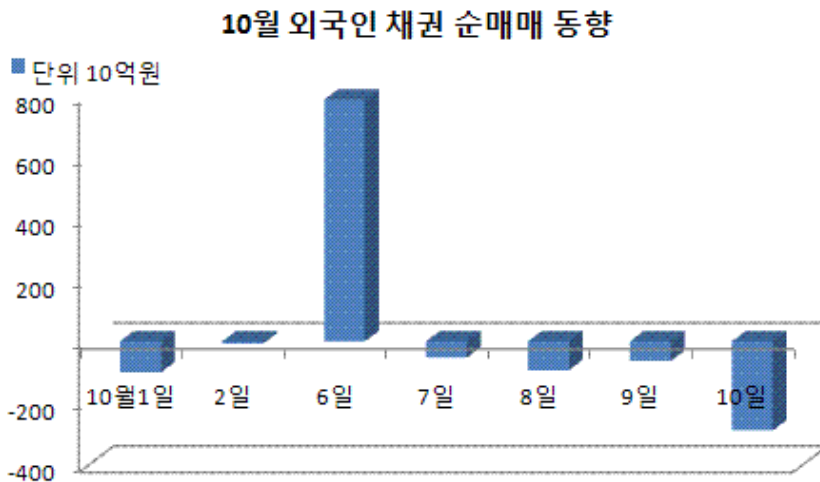
그리고 현재 환율은 1485원 밑에서 무조건 때려 막아야 한다.. 그 이유는 1485원이 뚫리면 단기간에 1525원으로 폭등을 해 버리기 때문에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 통제력 상실을 방어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도 솔직히 11월 중반 이후가 불투명 한 것이 현재 기준 금리 -0.75 인하 변수는 국내 엔캐리 자금의 -17 % 가량의 연내 청산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연말 헤지펀드 11월 청산 회계 시점에 맞춰서 이런 과도한 금리 인하 액션으로 인해서 환율 폭등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반증이 오늘 확실한 시그널로 나오고 있다.



현재 2/4분기 이후 매도세로 돌아선 매매 포지션에서 9월 롤 오버 물량도 1개월~3개월 물량이 85%가 넘어 간다..



지금 12월도 위험한 이 시기에 국제 공조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0.5도 아니고 0.75로 버넝키 흥내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면 11월 내에 대대적인 외국계 자금 철수 압력은 더욱더 가중되며 문제는 12월에 터질 공상이 다분해 진다.

대통령의 최면을 살려주기 위한 과도한 연기금 투입으로 입한 주가 방어로 인해서 820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고 재반등을 할 과도기적인 현 시점에서 자꾸 정부 차원에서 시장 왜곡이라는걸 함으로써 지금은

1차 저점 820 밑에서 바닥권 형성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의 주가가 이런 비정상적인 수준의 폭락을 한 이유는 외국계 자금 이탈과 동시에 정부의 시장 왜곡이 절대 변수다.



이런 식으로 시장을 왜곡 시킨다면 현재 박스권 바닥 형성 주가 시점을 800선 아래에서 재설정을 해야 한다.....

더구나 연기금이라니.. 연기금이 주가 방어도 하고 은행채도 매입하고 연기금은 또 올려서 지급 한다고?.

뭔 수로... 헤지펀드로 LTCM 예전 멤버라도 다시 불러올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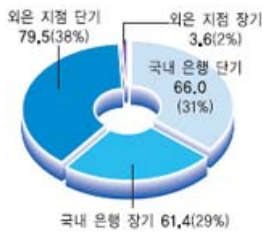
진짜 이해하기 힘든 나라다... 지금 은행채 매입이나 중소기업 외환 결제는 이제라도 잘한 결정이지만 과도한 수준의 금리 인하로 인한 외국 자본 추가 이탈과 그로 인한 환율 재폭등 수요... 거기에 지금 대중국 무역 비중 축소로 무역 수지 적자폭이 4/4 분기 내에 확대가 전망되는 이 시점에서 자살 행위라니.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은행채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문제다... 보면 알겠지만 올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겨우 5조~10조 분할 매입 해 준다고 해결될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내년도에 계속 이런 식으로 한국은행에서 은행채를 매입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아예 못을 박은 이 상황에서 지금 대출 금리를 전격 인상

시킨 원인은 지금 현재 예대 마진 130% 때문에 비율 조정 차원에서 일단 예금 금리는 인하시키더라도 대출 금리는 CD금리가 설사 내린다 하더라도 선불리 내릴 수 없는 것이 국내 은행권의 현재 상황이다.

은행 외화 부채 (단위:십억달러)



은행별 외화 부채 및 단기 외화 부채 비중 (단위:%)



현재 원화 유동성 문제도 그렇지만 외화 유동성 문제 부분에서는 훨씬 더 심각성을 더 해 가는 이 상황에서 크레딧 라인이 전면 봉쇄되었다. 결국 이번에는 대기업이 끔찍했다고 만사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국내 은행권의 외화 유동성 문제와 중소기업-자영업붕괴에 따른 문제가 핵심인데도 자꾸 과거를 들먹거리면서 안심시키기에만 급급하고 사실을 숨기려고만 해서 위기를 키우고 있다.

■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4주간 상승폭 (%포인트)
국민은행	6.92~8.42	0.36
우리은행	7.06~8.36	0.36
신한은행	6.96~8.26	0.36
하나은행	7.28~8.58	0.37
기업은행	7.11~8.41	0.31

〈자료: 각은행〉

■ 시중은행 예금상품 금리 (단위: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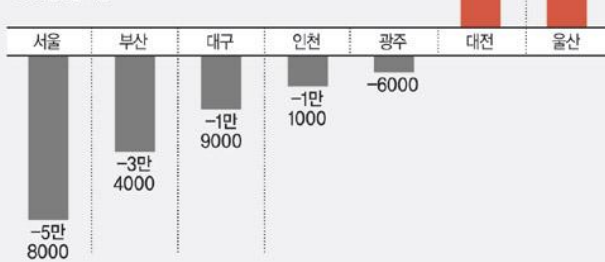
은행	상품명	금리
SC제일은행	1년 정기예금	7.3
기업은행	e-풀림통장	7.3
국민은행	허브정기예금	7.3
한국씨티은행	프리스타일 정기예금	7.1
우리은행	우리로모아 정기예금	7.05
외환은행	에스큰기쁨예금	7.0

〈자료: 각은행〉

전날 기준 금리 인하 전에 시중 은행권의 금리는 전격 인상되었다... 그 이유는 지금 은행권 상황을 반증한다.

전국 7대 도시 취업자수 증감

단위: 전년동월대비 명, 자료:통계청
※2008년 9월 기준



주요 광역권별 실업률 증가 수치는 4/4 분기 이후 추가 예산 4조원 책정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 있는 일자리도 중소기업 재무 건전성 악화와 은행권의 기업 신규 대출 중단으로 인해서 위협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주요기관 2009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기관	2009년 성장률 전망치
IMF	4.3~3.5%
골드먼삭스	4.6~3.9%
한국은행	4%
LG경제연구원	3.60%
한국금융연구원	4%
한국경제연구원	3.5~3.9%
기획재정부	4.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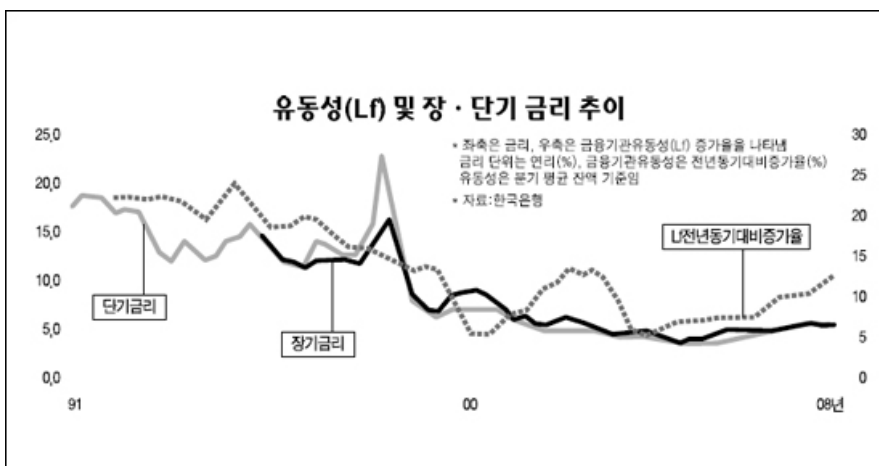
지금 이 수치도 상당 부분 조정되었다..

해외에서는 4%대에서 이제는 2.7%~ 3.2%를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상황..

결론 : 은행채 매입으로 회사채 시장과 CD 금리 하락을 유도 한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금리가 -0.75 라면 엔캐리 청산 압박은 -20% 가까이 연내 청산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현재 엔 캐리 대출 피라미드상 1차로 개인 대출자가 이로 인한 피폭을 받을 공산이 크며 이를 반증하듯 오늘 엔/달러

=93엔... 원/엔=1500원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심각한 금융비용 부담 상승 압박을 받게 되며 환율이 1485원이 넘어가면 최소 3일~5일 안에 1525원 이상 급상승할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1400선에서 고착화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1450 밑으로 무조건 틀어막지 않는 한 내년 09년 1/4 분기 물가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다..

현재의 물가 상승은 일반적인 통화량 증가요인 때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직접적인 유동성 공급 차원이라면 모르지만 금융권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의 경우 통화량 증가에 따른 물가 폭등 위험성은 15% 이상 가중 압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기금을 통해서든 정부의 직접 지원이든 집적적인 기업 지원 방식으로 원화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측면이 현재로써는 굉장히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 물가 영향력을 건드리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결국 현재 환율 1400을 꺾기 위해서는 외부 자금이 결국 유일한 길이라는 결론인데.....

문제는 끌어 올만한 데가 지금 당장 없다는 것.....

그럼 결국 내년에 역내 AMF 아니면 영미계 통화 스왑... 그게 아니면 자체 조달인데.. 그걸 위해서는 최소 현재 6개월 정도는 자력으로 버텨야 한다.

결국 일정 부분 물가 폭등에 따른 피해는 또 우리가 감당해야겠지... MB 50 같은 박정희식 물가 관리는 이제 씨알이 안 먹힌다니까.



국제 유가가 내려가자 오pec에서 역시 결국 최소 150만 배럴~200만 배럴까지 감산 조치에 들어갔다.. 아마 유가 100달러가 깨진 현재 상황에서 내년 1월 경에 추가 감산 조치에 들어 갈 경우 유가 상승분은 현재 달러 인덱스상 +17.5 달러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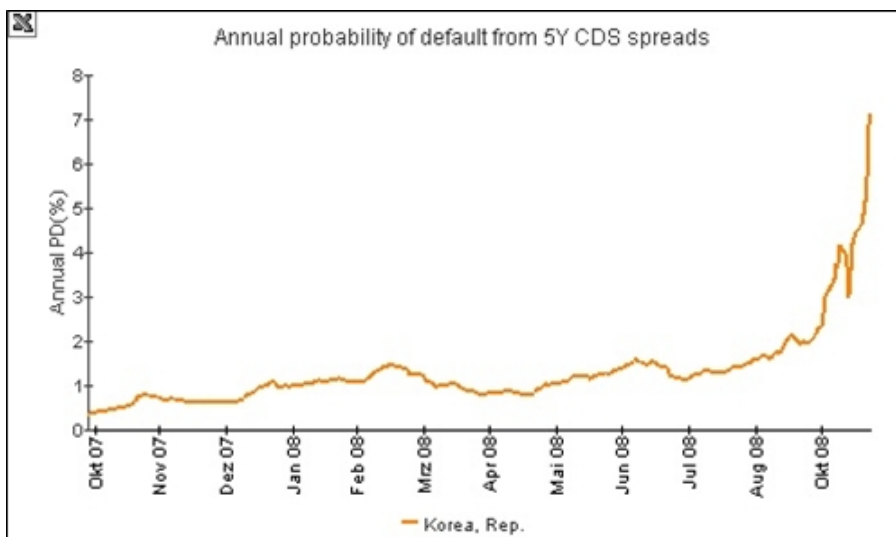
이런 복합 요소들을 모조리 다 감안해서 물가 핸들링을 하면서 지금 살길을 찾는 방법 밖에는 달리 길이 없다..

산업연구원(KIET) 업종별 경기지수 증감률							(단위: %)
	제조업	섬유	화학	철강	일반기계	전자부품	자동차
2008.1	13.43	-11.54	3.52	7.43	5.59	32.81	19.8
2008.2	8.97	-7.58	3.59	10.68	4.03	35.48	2.36
2008.3	13.77	-12.78	10.03	10.14	5.8	43.55	9.34
2008.4	12.03	-3.58	0.34	17.27	11.41	37.65	3.08
2008.5	6.85	-11.29	-5.59	4.61	-3.23	34.01	-0.61
2008.6	6.68	-11.64	3.4	0.52	1.11	16.68	13.24
2008.7	4.48	-9.71	-3.67	13.33	9.65	12.27	-12.13
2008.8	0.38	-11.09	-6.69	9.74	-3.08	5.81	-10.16

〈자료:KIET〉

더구나 현재 GM의 연내 파산 신청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고용 부분인 건설 + 자동차에 대한 피폭 효과도 감안해야 한다..

문제는 대기업이 아니라 그 밑에 하청 기업들이다.. 비용 감소분의 하청 기업 단가 인하 압력으로 가시화 되는 상황에서 연내 도산 업체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고용 불안의 시한폭탄으로 작용 하고 있다.





현재 상황상 일단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가 필수며 그 중에서도 환율이 11월 중반 이내에 1400 이내로 떨어지면서 환율 변동성이 축소되어야 한다..

원래 12월달에 1075~1120원 내에서 안정 추세를 보여야 할 환율이 현재는 1400원 고착화를 총해서 이미 중소 IT 제조업체의 70%는 직접 부도 가시권이다..

중반 이후를 현재 그대로 넘길지 환율 통제력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 다분한 상황에서 지금도 환율 통제력이라는 부분을 외국애들한테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12월 단기 채권의 롤 오버 문제로 이걸 직결 되는 핵심 사항으로 12월 롤 오버 물량의 70% 이상 이월 시키려면 환율이 12월 달 내에는 1250원 아래에서 박스권 형성이 되어 가능하지 이 상태로는 장담이 어렵다.

하루살이야?....

지금 전세 판도가 이 정도라는 것이다... 이걸 전쟁이야... 그럼 대충 전쟁 돌아가는 판세라는 흐름은 파악 하고 있어야 개인별 비상 플랜이라는게 나오지.

자산가격 하락 외국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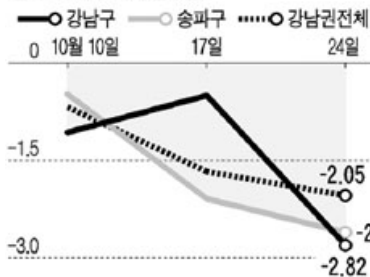
(단위=%)

구 분 국 가	버블 국면		거품붕괴 국면	
	기 간	누적 상승률	기 간	누적 상승률
일본	1979~1990	358.0	1991~2002	-364.1
영국	1983~1989	152.1	1990~1994	-86.1
스웨덴	1986~1989	88.1	1990~1993	-108.0
핀란드	1986~1989	92.2	1990~1993	-135.4

※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2005)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

단위:%, 전주 대비 변동률



자료:중앙일보조인스랜드·한국부동산정보협회

현재 자산 디플레이션의 해외 사례와 더불어 볼 때 외국 애들이 다시 국내 주식 시장에 돌아오는 타이밍은 국내 부동산 자산 가격의 확실한 버블 정곡점이 꺾였다는 시그널이 오기 전에는 국내로 U턴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국내에서 자산 디플레이션의 초기 단계라는걸 보면 외국계 자금 철수와 복귀 타이밍을 통한 주가 반등과 시장 변동은 일본의 사례를 기초로 주요국 사례를 샘플링 해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

한국은 예외라고?... 일본 애들도 그렇게 생각 했고... 영국 애들.. 스페인.. 미국 애들도 그렇게 생각했지.... 그걸 바로 착시 효과라는 거야... 그래서 아직 못 느끼는것 뿐이지... 일부 애들 빼고...

-늪은이가-

전쟁터에서 천민이 살아남으려면 정확한 전쟁 상황인 판세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

장사 끝나고 지금 와서 쓰는데 이제 그만 써야겠어.. 손가락이 땡기네..

소주 한잔 마시러 이만 가야겠다.. 오늘은 미자가 안 와서 아쉬웠어... 미자... 그 처자 이혼 하면 안 될텐데.. 남편 놈 때문에...



여기가 뉴욕 찻통 시장이야... 실제로 월 스트리트 금융 귀족 놈들 아니면 사는게 다 이래..





신이시여... 우리를 보호 하소서... 아멘...

오늘 대통령 한사람의 체면을 살려 주자고 그 막대한 연기금을 쳐부어 댄 건 정말 납세자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하기사... 애시당초 천민들로 생각을 하니 그런 게 눈에 보이겠냐마는.. 소주 한잔 마시고 리어커나 수세미로 청소 하러 가야겠다.. 빨리 댈져야 하는데...

그리고 어제 KBS 하는거 봤는데 정부 애들 거짓말 진짜 잘하더군... 미친놈들.. 아마 전세를 읽고 있는 놈들은 반은 썩 구라라는걸 대변에 알만한 거짓말 하면서 흑세무민 하는걸 보고 진짜 참 말세는 말세더라.

그래서 속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 사기꾼 같은 놈들.. 보다 꺼버렸어.. 짜증나서..

<2008년10월27일>

56.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다.

지금 주가야 정부 개입으로 시장 왜곡이 되서 다시 모델링을 해야 하지만..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대통령을 끌어 내리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경제 말아먹기 직전이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비상 TF 만들어서 대통령 개입 차단하고 단독 기구로 경제 회생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데.

여기서 대통령이 입만 열었다 하면 어디에 4조를 지원하네.. 뭐에 또 몇 조를 지원하네 하는 말장난만 하면서 계속 대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는게 눈에 안 보이나?.

저게 가능하려면 예산 조율이라는게 있어야 신빙성이 있는건데 뭘 돈으로 여기저기에 몇 조씩 팡팡 지원 하냐고.

지금 감세로 경기 부양 자는 웃기는 나라에서 복지 예산이 벌써 30~40%씩 돈 없다고 팡팡 깎이는 판국에.

누가 대통령 하지 말래?... 한 반년만 경제는 손때라는 거잖아... 시방...

골드만삭스가 환율 떨어진다는 건 국제 원자재 가격 동반 하락과 국제 유가 추세로 그 애들이 제시한 조건이 다른 추가 변수 없이 충족될 때 환율이 1200원 간다는 소리지....

이건 뭐 초딩이 대학교수 흉내 내는 꼬라지니..

지금 어차피 경제 대통령 소리 믿는 애는 한 명도 없다.. 이젠 좀 솔직해 지고 살길 좀 찾자는 거야.

경제 분야만 권한 대행으로 대통령 직권 정지시키고 비상 임시 기구에서 경제 살려내지 않으면 이 나라는 내일이 없나니깐.

살려 낸 다음에 말아 먹든.. 경제 대통령 하든.. 니들 마음대로 하란

거야..

그럼...

지금 다 망할래?...

아주 웃겨..

크르~~~~~룽...

마켓에 인내력이라는걸 요구하지 마라... 이젠 애들도 바닥을 내보이고 있다..

이젠 좀 다 같이 살자며!!!!

언제까지 이렇게 다 해쳐먹자는 거냐고.. 대통령 하지 말란 소리도 아니잖아..

일단 죽어가는 자식은 살리고 봐야지.

사전 조율도 안 된 그 따위 지원 얘기를 하는 대통령이 하는 말은 그냥 단순 판타지 소설 수준으로도 안 보는게 현실이라니깐 그러네.

지금 장난해???

-늙은이가-

<2008년10월27일>

57. 노란토끼



현재 NDF의 이상 급등의 핵심은 역시 한국의 10월 무역 수지 흑자 규모에 대해서 의문시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감의 반증이며 사실상 10.27 금융 안정화 조치로 인한 가시적인 효과는 금리 부분에 대한 은행채 금리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플러스 시그널이 마켓에서 도출되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하루 빨리 액션을 취해서 2조~3조 라도 단기간에 은행채 매입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보여 주지 않는 한 은행채의 정상 거래를 통한 CD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 하기는 무리다.

한국 경제의 펜더멘털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총 GDP의 48%의 규모를 차지하는 수출 부분이며 이 수출 부분이 10월 무역 수지 흑자로 연결 되지 않을 경우 해외 달러 차입이 아닌 자력으로 버텨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오늘도 금리 인하를 통한 은행채 거래는 총 정상 거래량의 5% 미만으로 극도로 저조한 상황에서 채권 금리는 일제히 하락한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엔/달러가 93엔에 NDF가 현재 1467원의 급등 장세라

면 내일은 장 초반에 상승 압력으로 기술적 반등을 통한 점심 전후를 기점으로 1500선에 근접하는 환율 재폭등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오전 시장 초기에 강력한 달러 수급에 의한 선제 조치가 없을시...

1500원을 돌파한 후에 하락할 소지가 강하기 때문에 장 후반이 아닌 장 초반에 이런 선제 조치가 없을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수요 위주의 수급 물량 압박으로 현재 환율 상승 요인이 강한 상황이며..

현재 상황에서 아쉬운 점은 전년 대비로 현물환 시장이 1/4 수준으로 줄어들고 선물환 시장은 사실상 마비 수준으로 그로 인해 지금 환 변동폭이 과도하게 크다는 것이 현재 발목을 잡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최소한 이런 상황에서 정부 개입이 실효를 거두고 완만한 환 변동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 규모상 최소 180억 달러~200억 달러 내외 규모의 외환 시장 규모가 되어 하는데 현재 시장은 이런 필요충분조건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항중 통화 스압으로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경우는 미쓰비시, 스미토모, 미즈호 파이낸셜과의 민간 은행 차입을 통해서 통화 유동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것도 11월 중순까지가 결정적으로 보이며 일단은 긍정적으로 기다려 보는게 순서라고 본다....

-늬은이가-

근데 뉘의 이름이 이리 팔렸냐???... 그냥 노인네가 쓴 건데???... 진짜 어처구니없고 황당하네..

난 지금 신문에 이름 팔린거 처음 알았네.. 난 원래 한번 쓰고 안 보거든..

노인네가 장사 하느라 시간이 나야지.. 지금 소주에 빨대 꼽아서 빨면서 블룸버그 보다가 보는데 이름 팔리기는 무진장 팔렸구나.

내 이래서 침묵은 금이라고 사전적 의미로 발설 말라고 그리 말했건만..

에 이~쿠.. 늙은게 죄지.. 죄야..

그냥 해리포터 동화책 보듯이 보면 되지 너무 오바 한다.

그나저나 소주병에 빨대는 역시 맥도널드표 콜라 왕 빨대가 최고구나.. 잘 빨린다.. 진짜..

<2008년10월28일>

58. 내일 환율 1500원 찍는다.

늙은이 아직 안 죽었다. 아무리 씹어도 앞으로 20년은 매일같이 쓸 것이다.

그래...

나 빨갱이다...

노란 토끼의 비밀은 곧 밝혀 질 것이다... 일단은 알고만 있으라고.

등신 같은 한나라당 빠돌이 애들을 봐서라도 20년은 써 줄테니까 걱정 마.

그리고 내일에는 오전에 정부 개입 안하면 환율 1500원 찍으니까 알아서 준비하고.

그럼 계속 소주 빨면서 시청 해야지.

-늙은이가-

죽기 직전까지 병원에 노트북 가져가서도 써야지.

화병으로 약 올라 죽겠지???..

노인네 너무 웃긴다.. 자산 디플레 진행 중이라니까 쫓아서 난리치기는.

미친놈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려야지.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써줄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려무나...

크르~~~~~릉... 호~~~ 호호호호....

내 책상 서랍에 비자만 8개야.. 장난하니???

<2008년10월28일>

59. 내일 환율 1500원 안 찍어도 은퇴는 영원히 안 할 것이다.

난 내일 환율이 1500원 안 찍어도 은퇴 안 하고 하루 지났으니까 19년 364일 동안 병원 가서 벽에 똥칠할 때까지 계속 쓸 것이다.

그리고 난 손에 장 지지기도 싫고.. 손에 장 지지면 소주 마시기가 힘들거든???....

그리고 누가 그런 약속했냐?... 진짜 웃긴다...

크르~~~~~룽.....

걱정 마... 틀려도 19년 364일 동안 계속... 씨 줄테니깐...

하여간 내일 1500원 한 번 찍는건 확실하니까... 두말하면 잔소리겠지.

-늬은이가-

그럼 다시 시청 모드로 들어가야겠다... 가만 보면 웃기는 애들 너무 많다..

누구 맘대로 장을 지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쓸텐데???... 틀려도??????

기대해라..

간만에 진지하게 시청 모드 들어가서 블룸버그를 재미있게 보는데 웃기는 애들 진짜 많은거 같어..

애들은 시간이 남아도나 봐..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걸 보면..

나야 늬은이 자영업자지만 말야.

<2008년10월28일>

60. 오늘을 상당히 의미심장한 날이다.

지금 소주 빨면서 시청 모드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날이다..

원래 추세 분석이라는걸 할 때도 선물 시장 분석에는 초장기 분석부터 중기.. 단기로 타이밍 분석에 변수 대입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이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10월 월말 몇일 전이라는 것은 자잘한 전문 용어다 집어치우고 고딩 때 지구 과학 시간에 나오는 지각과 매틀의 운동에서 대륙판 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잔 지각판 이동 정도는 해당하는 수준이지...

그런 의미에서 만약 정부에서 내일 장 개시 오전 9시 30분에서 10시 안에 안 찍어 누르면 상황 봐서 자칫 사상 초유의 일이 터질 것이다..

원래 이런건 틀려야 되는데 지금은 일이 터질 가능성이 90% 거든...

오늘도 블룸버그 명작 동화에서는 한국은행 나오고 자막 하단 스크롤에는 한국 기사가 벌써 두 개네. 아간 애널리스트까지 나와서 한국 상황 분석까지 해주는데. 하여간 한국도 이젠 글로벌 스탠다드여..

이젠 소주 음료수 한병 다 마셨고 두병째는 과일 소주 만들어서 빨대로 빨아야지..

이 염병할 놈의 나라는 중소기업 다 죽이기 싫으면 장 초반에 확실히 조져라.. 안 그럼 다 박살난다. 애기 아빠들이 길거리에서 울면서 출근한다.

혹시 분기점의 그녀라고 들어 봤어???... 턴 어라운드... 확실하게 조져야 할텐데... 하여간... 근데 한국 재경부 애들이 행동이 굼떠서 과연... 어떨지는...

그저 이런 일은 스피드가 지금은 생명인데... 염병.. 자빠지네..

<2008년10월28일>

61. 도대체 환율 오른다고 좋아하는 애들은 뭐야?

1500 찍으면 좋은게 아니라니깐 그러네..

집단 살육이 뭔지 몰라서 그래?.. 10년 전에 얼마나 잔인했는지?.

아침부터 무조건 뺏아라.. 정부에서 외환 보유고로 오늘은 철저히
짓밟아서 1450 아래도 방어 안하면 농담이 아니라 다음주에는 이 나
라는 이제 내일이라는게 없고 말 그대로 중소기업 줄도산도 아니고
폐도산이 뭔지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고용 창출 나부랭이가 문제가 아니라 있는 고용부터 지키는게
순서라니깐 그러네.

오늘은 농담 아니라 무조건 때려 막아야해.. 안 그럼 1500 넘어가면
우린 다 작살나는거야.

바게스 채로 들이붓는 한이 있어도 이젠 어쩔수가 없어. 다 자업자득
이지만..

그런면에서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거야.

핵심은 장 막판에 개입하면 무조건 망한다는거야.... 어차피 개입할꺼
라면 아침부터 핵탄두를 쏘서 환율을 잠재워라.

안 그럼...

서울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되는거야... 장난이 아니라... 전쟁 안 난
다고 만사 끝이 아니라 경제 박살나는게 전쟁보다 더 무서운거란걸
몰라서 그래?.

-늬은이가-

<2008년10월28일>

62. 언제까지 대책 타령 할래...

내가 예전에 대책 귀에 못 대가리 박히게 말했지.

근데 시간 다 지난 다음에 이제 죽기 직전 그랜드 캐년 낭떠러지 바로 직전까지 몰려서 지금 대책이 뭐냐고 떠들면 이거 웃기는거 아냐?.

대책?.. 지금 장난하니?..

그래서 지금 이런 환율 폭등에 대한 준비를 한 개인이나 회사들은 살아남는거고 아닌 놈들은 돼지는거고.

뭐라 그랬어...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라는 건 절대 꿈짜가 없다고 그랬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가라는걸 치뤄야 한다고.

그리고 기업 외환 결제가 뭔지 모르는 애들은 아예 말도 꺼내지 마.

환율 폭등하면 회사들이 왜 망하는지 진짜 몰라서 물어 보냐?.. 국제 유가 내려가도 환율 올라가면 물가는 자동 폭등한다는건 이젠 기본 상식 아냐.

아직도 난 예외라고 생각 하는 애들 천지라니 진짜 웃기지도 않는군..

대책?... 일단은 살고보는거야... 대책 어찌고 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나갔어. 남은 길은 대규모 해외 달러 차입뿐인데 지금 그거 하나에만 목매고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은 대책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타이밍은 지났고 "살아남을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타이밍이야...

가끔 이런 식으로 뒷북치는 애들 보면 지금 이 시점까지 와서 황당하더군. 대책 소리는 2~3달 전에 얘기 끝난 거라니까.

-늬은이가-

<2008년10월28일>

63. 선제공격 타이밍을 못 쳤다..

군사 작전이나 경제나 세상사는건 그게 그거다. 일명 원거리 방어 전략... 그래서 군사학 관련 도서를 보면 이런 군사 전략을 응용하는 회사나 개인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수평선 너머에 있는 항공모함 전단은 일단 시각 정보로는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적이 먼저 정찰기를 띄우고 위치를 포착하면 아군이 몰살당하는건 100% 지는 게임이라는 것인데..

아침에 대대적인 선제공격으로 기를 죽여 놔야 하는데 이미 추세를 꺾기는 무리... 일일 타이밍조차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이젠 집중 포화를 안 맞기를 바라는 수 밖에... 조타기를 좌우로 돌리며 회피 기동을 하는 수밖에..

차라리 이게 용어 안 쓰고 설명하기 쉽겠지..

대충 돌아가는 전세가 이런 전황이라는거야.

자... 선체에 포탄을 안 맞으려면 조타기를 돌려라.. 이젠 회피 기동 뿐....

아... 제국의 영광이여...

빛바랜 과거의 영화는 어디로 가고 이젠 병든 아시아의 돼지 취급을 받다니... 승천하는 용이 한순간 아시아의 병든 돼지로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그리 쉼없이 일해 오늘의 경제를 일구었건만... 무너지는건 한순간이구나..

-늪은이가-

<2008년10월28일>

64. 4차원 세계에 사는 대통령.

오늘 이명박 각하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들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 따위 감상적이고 추상적인 말장난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수치에 입각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대비책을 요구하는 것인데 오늘 각하께서 하는 말을 들어 보니 마치 예전 동네 이장이 나와서 말장난하는 그런 수준이었다.

일단 취임 연초에는 대기업 프랜들리로 고용율을 2/4 분기까지 용인해 주다가 중소기업이 지금 현재 70% 이상이 직접적인 부도 가시권에 들어오니까 이제 고용 증대를 해서 내수 확대를 꾀하신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고용 확대는 둘째치고 있는 고용도 지키면 다행인 상황이다.

전체 경제 활동 인구 중 32%가 자영업자에 남은 68% 중에서도 89%는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일을 하고 실제로 총 경제 인구 7.3%를 제외하면 지금 현재의 고용+인플레이션+자산 디플레 피폭 효과 라는 걸 직접적인 타격으로 온몸으로 받으면서 견뎌내야 하는 상황에서 고용 창출이라는 소리는 일선 기업 임원들 입장에서는 한심한 말장난으로 밖에 안 들린다.

거기에 연초에는 수출 증대가 지상 과제처럼 얘기하더니 이제 와서는 내수 확대가 최고라고 대통령 본인이 나서서 떠들면 현장 당사자 입장에서서는 황당한 시뮬레이션이다..

실제로 지금 무역 수지 적자 줄인다고 현장에서는 LC 오픈도 아예 안 해준다..

모조리 다 봉쇄당했다... 이런 얘기는 실제로 언론에서는 입도 뻥끗 안 한다...

그냥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다... 이런 식으로 적자를 불인다고 발악을 하면서 어디까지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감당을 해줘야 하는건지 이젠 그 저의가 의심스런 상황이다.

거기에 오늘 떠든 내용 중에 SOC라는 건 솔직히 10이면 10사람들이 전부 다 대운하 사업 재추진이라는건 이제 우리 동네 개 새끼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SOC인지 직접적인 표현을 회피한 이유가 그런 이유 아니냐면서 SOC = 대운하로 알고 있고 또 기정사실화 된 상태다.

더구나 현재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젠 미국과 유럽 수출길이 막혀서 내수로 돌린다고.. 지금 GDP 대비 수출 비중이 거의 50%가 되는 이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 일인가?...

뭔 돈으로 소비해?.... 규제해제 하면 은행에서 지금 박살나기 직전인 곳이 제1금융권에서도 2~3개가 되는데 뭔 돈으로?...

추가 대출을 해 줄까?... 그걸로 소비 하게?...

거기에 자산 디플레이션으로 미래 가처분 소득 확보로 지금 소비가 거의 분기 대비로 -30 ~-40% 이상 대폭 줄어든 이 상황에?...

한 마디로 단순 말장난... 감성에 호소하는 이미지 마케팅... 대본 읽어 가기...

알맹이는 없이 핵심은 이제 수출 ==>> 내수로 돌리자는건데.. 참... 잘도 내수 활성화 되겠구나...

지금 자영업 구조조정 하게 만들어 놓고... 시간적 여유 없이 벼랑 끝으로 내몬 주제에..

비꼬려는게 아니라...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하는 말이야...

뭔 돈으로 내수로 돌려?... 윤전기 돌릴려고?... 기가 막혀서..

이젠 반찬 심으러 가야지..,

이젠 다음 타자는 헤지펀드네... 그나저나 그 영악한 하이에나 같은 애들을 강만수 같은 예전의 골동품들이 감당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군.

지금 딱... 그 포지션으로 먹기 좋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상태인데...

이젠 쌀로 막걸리 만들어 먹고 반찬 심어서 고추에 쌈싸 먹어야지...
이 애들은 가만 보면 무슨 이런 산업 구조 조정이 한 1~2년 안에 공사판에서 공구리 밀듯이 막 되는 건 줄 아나 봐.

가끔 보면 너무 판타스틱해서 하는 말이야..

-늪은이가-

<2008년10월28일>

65. 이젠 막 얘기해야지... 대안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허구헌날 하는 얘기들이 그 잘나빠진 대책이 뭐냐고 따지고 든다.

실질적인 대책이 뭐냐고 물어 보면서 언론에 나온걸 지들도 다 아니까 자꾸 대책 내 놓으라고 떠들어 대는데.

그럼....

그 비싼 연봉 쳐 받고 공무원들은 뭐하러 있는거야???

내가 대가리가 닭대가리라서 그런걸 이해를 못하는건가???

이 나라의 특징은 이런 대책을 나 같은 천민 백성들 보고 내놓으라고 지껄이는 나라고..

세금은 있는 대로 내라면서 대낮에 공무원이 술판 쳐 가서 술 쳐 먹고도 끄떡 없는 나라지.

지들이 불리하면 실체도 없는 좌빨 타령으로 몰아 부치는데다가..

올해는 걸핏하면 89년도에 폐지된 국가 원수 모독제 비스므레 한거 붙여서 범죄자 만들기.

대안 내놓으라고???

"이 씨팔 장난하냐?..... 이 나라 공무원 애들은 쳐 놀고 있냐?..."

"언제는 자기 나라 국민들 몽둥이로 때려 패더니... 이젠 경제 위기라도 다 같이 금내고 단결하자고?..."

"이런 욕시릴 개 꼴깍을 떨고 있네"...

이래서 웃기다는 것이다.....

아니... 일반 천민들보고 대안 내 놓으라면 정부가 뭘 소용이야?... 무정부로 세금 안 내고 살지?...

지금 장난해???... 내가 개념이 안드로메다인지 그럼 대안 뭐냐고 떠드는 놈들이 저능아들인지 난 이제 그것조차 헛갈린다.

기초가 무너진 나라지...

-늙은이가-

대안 같은 소리 쳐 하고 자빠졌네... 그 잘난 대안은 예전 고려적에 주구장창 나와서 지금 이 모양 이꼴라지다.

그 땀 대안 말해봐야 다 부질 없는 짓거리야..

차라리 마트 가서 밀가루 한 포대 사오는게 개인적 차원에서는 각자 살 길 찾는 대안이지.

열어 죽을 범국가적 대안 같은 개 뽕따귀 삶아 먹는 소리 하고 있네..

돈도 쳐 내라..

대안도 내 보라..

애 새끼도 싸질러라..

돈 필요하니까 연금 쳐 내라..

이건 뭐..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원.

<2008년10월28일>

66. 그 놈의 뉴딜... 오래 참았구나.

나도 노무현이나 김대중 별로 안 좋아하지만..

나 살다살다 1년 전에 노무현 보고 전 국토 공사관 만들었다던 놈이 이제와서 1년도 안 지나서 뉴딜 한다고 광역권 나눠서 전 국토 공사관으로 경제 살리겠다는 경우는 보다보다 처음 보네.

서울 시장 시절에는 있는대로 부동산 정책 발목 잡기에 완장 차고 나와서 선동질 하면서 정책 교란질 하더니.

이제 와서 대통령 되고 나니깐 뉴딜????

이걸 보고 삽질한다고 하는거야..

지금 이게 대통령까고 좌빨처럼 보이지?... 뭘 빨갱이 괴뢰 분자 말야..

이놈들은 앞뒤가 안 맞는 기회영합주의자에 불과한 한 마디로 국회의원 뺏지만 단 투기꾼 놈들 데려다가 지금 경제 핸들링 하라고 운전대 손잡이 넘겨 준 거지.

이것만 해도 그래..

대통령이 주식 투자 하고 본인이 펀드 들겠다면서 펀드 들라던 시절이 무슨 10년 전이냐?...

한 3개월도 안 지났는데...

대통령이 주식 사고 펀드를 들기는 들었냐?...

다 개구라지?

그리고 뭘 놈의 재산 헌납 하는데 재단?...

록펠러야?... 아니면 캐네디야?... 지금 장난해?...

외국에서처럼 재단 만들어서 합법적인 재산 상속하려고 재단 만드는

걸 지금 몰라서 말 안 하고 얌전히 있는 줄 아니?...

일반 기업체 사장이나 회장처럼 기업인이라면 또 그냥 넘어 간다고 치지.

이건 뭐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회 환원 한다고 재단 만들어서 저러는 건 내 이 나이 먹도록 늙어서 전세계 그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희괴망측한 것이다.

프랭클린 따라서 라디오 담화도 따라 하더니 이젠 뉴딜이래...

한 명은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흉내 내고....

강만수는 미국 버냉키 흉내 내면서 FRB 의장인줄 개 착각을 하고..

참 나... 웃기지도 않아서.. 원.

-늙은이가-

자꾸 이상한 소리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별 살다살다 희안한 짓거리를 봐서 그러는거야...

망조가 든거지..

<2008년10월28일>

67. 내 그런데 말했건만 참 안타깝군요.

이젠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연기금 주식 투자 물량이 이제는 많아 봐야 1조~2조 남
것이죠... 혹시 또 미친척하고 추가로 더 끌어 오면 안 되냐고 하겠지
만 그건 예산 심의를 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자.. 그럼 이 1조... 2조로 며칠이나 방어가 가능 하겠습니까... 이미 6
개월 단기 수익률이 -500%가 넘어가는 이 마당에.

그렇습니다.. 내일 또 추가 폭락이죠...

설사 내일... 아니 넉넉잡고 3일은 피크로 때려 막는다고 치더라도...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되면 끝입니다..

이미 시장은 왜곡이 될대로 왜곡이 된 상태입니다..

연기금 투입이 반드시 나쁜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 그 어떤 시장을 통
틀어서 이런 비정상적인 개입으로 연기금 단독으로 시장을 리드 하는
곳은 없죠..

오죽하면 블룸버그 아나운서가 비아냥거리고 비웃을 정도겠습니까..
한심한 거죠.

거기에 지금 cds가 700이 넘어 갔습니다... 채권 금리도 어제 내리다
가 부분적으로 다 일제히 오름세..

도대체 언제 한국은행에서 실질적인 은행채 매입이라는 액션을 취할
지 아무도 장담못하는 상황에서 오늘 환율을 막은 것은 진짜 우리 모
두에게 천만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젠 1400원이 거의 고착화 되었다는게 이 상태로 다음달 넘어
갈 경우 안 그래도 지금 기업 구조 조정을 거치고 있는 마당에 일반
중소 기업들의 대대적인 구조 조정으로 가정 경제 파탄이 불보듯 뻔
한게 너무 가슴 아프네요.

30대.. 40대 애 아빠들이 애들 유치원에 삐약삐약 하고 갇난 아기들
분유값이 마트가면 보통 4만원 5만원..

부모 마음이라는게 내가 옷 안 사입어도 애들 옷은 사 줘야 하고.. 내
가 못 먹어도 애들 분유나 과일은 사 먹여 줘야 하는데..

자살한 어느 30대 여성분이 유서에 그리 적었다더군요..

"신발 작아 발 아프다는데 신발 못 사 줘서 미안해.."..

그거 보고 하루 종일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가식적인 말이 아니라 애들이 크면서 발도 커 가는데 딸 아이 신발을
못 바꿔 주니까 딸 아이가 발이 아프다는데 엄마 마음에는 비수를 박
은 것이죠..

지금 6개월치 생활비는 이제 각자 준비 하시면서 대비하고 있으리라
고 봅니다.. 겨울이 닥쳤습니다.. 부디 몸 조심하시고요..

- 늙은이가 -

이 나라는 절대로 선진국이 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노인네 보고
대놓고 미쳤냐고 버젓하게 논쟁에 걸려 있군요..

화가 나기 전에 그 밑바닥 인격을 보니 참 되먹지 않은 그 집 부모님
이 저런 자식을 보고 얼마나 안쓰럽게 생각 하실지 가슴이 아프군요.

사람이라는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저런
저질스런 인격으로는 다른 사람의 신망이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거
죠..

그저 소주나 마시면서 한심한 동네 양아치 3류 인생으로 살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가꾸시고 가족들을 지키시기 바랍
니다... 가만 보니까 여기에 미친 애들 진짜 많군요..

스토커 같은 애들이나 나라 망하기를 바라는 애들부터..

어제 오늘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네요.. 그 상스러움과 밑바닥 인격성을 보면서..

전 저런 부류의 애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격지심이라는게 굉장하죠.. 열등감 비스무레 한 것이.. 그래서 그걸 욕지꺼리로 배설하는 애들인데 문제는 저런 애들이 자기 본분도 잊고 설친다는 것이죠.

일단 할일을 하고 요구하는게 아니라 욕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경멸스런 상종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로 보는 겁니다.. 어찌보면 한심하기도 하죠..

전 여지껏 저런 인간들을 처리하는 제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습니다.. 전 나이 불문하고 저런 부류의 애들을 상대하면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시끄러우니까 꺼져.. 시간 아까우니까."

나이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나이값이라는걸 해야죠... 그에 걸맞지 않는 행동이나 언행을 보이면 가차 없이 찢라 버립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쓰레기들이거든요..

쓰레기는 쓰레기 나름의 처리 방식이라는게 있죠.. 현실 세계에서는 똑같이 대접해 주면 안 됩니다.. 겁대가리를 상실하거든요..

그 나름의 처리방식으로 정리하는거지..

저런 3류가 되지 마시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쓰면서 인생이란 텃밭을 가꿔 나가셔야죠..

전 이만 시청 모드로 들어가야겠습니다..

-늪은이가-

<2008년10월28일>

68.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다..

당분간 오프라인에서 영업에 열중해야지 살해 위협까지 받고 그만 쓰라니.

노인네가 이젠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겠네.

이젠 고구마나 팔면서 개인 고객관리 하는데만 열중해야지..

역시 인터넷은 한계가 있어.

돈 안되는데 솔직히 너무 시간 낭비한 것 같다.

나도 살아야지. 살해 협박까지 당하고 돈 한푼 안 되는 짓 할 필요가 없지.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다.

역시... "침묵은 금이다"라는게 맞는 말이야.. 미국하고 한국은 확실히 틀리긴 틀리네..

한국의 이런 폐쇄적 집단 문화로 협박이나 당할 이유는 없는데 이견 정도가 이미 선을 넘어선 수준이군..

이러니 한계라는게 보이는 것이겠지만..

미자... 기달려...

올 겨울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늙은이가 죽을때는 온전하게 죽어야지 이 나이 먹고 살해 협박에 밖에서는 들어 본적도 없는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카오스가 사라진 거군... 음...

시간은 돈인데 그 정성으로 개인 고객 관리나 할 것을... 괜히 오버했어..

늡어서 잠시 인터넷 문화라는거에 발 좀 담가 본 것 뿐이야. 그리고 이제 그 한계를 분명히 알 것 같군..

끼리끼리 논다고 하지. 역시 그 말이 맞기는 맞나 봐..

이거 하나는 죽기 전에 확인사살 하고 한 수 배우고 간다..

늡을 때 다들 조심들 혀.. 젊어서 몸 막 굴리면 늡어서 관절이 쭈신다는게 고통스러우니까..

몸뚱아리 관리들 잘 하고.. 그저 다 필요 없어.. 몸 아프면 돈이고 나 발이고 힘드니까..

가끔 시골에 있는 엄마한테 전화 좀 넣고.

노인네가 이 나이 먹고 쌍욕 들어가면 시간 투자할 필요는 없잖니... 차라리 미자한테 포트폴리오를 찍어 주고 말지.

내일은 2단지로 가서 영업 준비해야지. 그럼 돈 많이들 벌고.

갑자기 흥미가 반감 되서 이젠 재미없다.. 명절날 오면 이젠 컴퓨터 손주녀석한테나 쥐야지.

그래도 최신행인데 워드나 치다가 인터넷이란걸 하는데 이젠 워드도 350타 정도 나오고 나름 수확도 있었어..^ ^..

나도 이젠 우리 동네 아줌마 단골 고객들 관리 해야지.. 그래도 장사 단골 고객인데 엇그제는 온천 계모임이라고 노인네인데 월 5만원짜리 하나 들었어.

그걸로 온천에나 가서 뜨신데 지지고 와야지.

온천도 잘 골라 다녀... 가짜도 많다니깐..

<2008년10월29일>

69. 소주 빨다가 갑자기 생각 난건데..

블룸버그 보려고 키다가 소주에 빨대 빨면서 갑자기 생각나서 쓰는건데..

여태 살면서 느낀 점은 한국 땅에서는 튀면 잡아 뜯긴다는 거야..

어디서든간에 그건 반드시 명심하면서 그런 점은 주의 하고 살고.

한국 땅에서 살려면 무난해야 해... 어디서건 튀면 적이 많아져.. 그리고 물어뜯기고..

여기는 인터넷이니까 상관없지만 밖에 나가서는 이걸 반드시 명심하면서 살어.. 살다 보니까 이런 집단주의인 나라에서는 튀어 나온 못이라는걸 용납을 안 하는 나라야..

어찌 보면 무서운 거지.

왜 노인네가 침묵은 금이라고 했는지.. 허투로 듣지 말고..

"동일 그룹 내에서 튀면 물어 뜯긴다"는 걸... 이걸 극복하려면 상위 그룹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그 전에 한국식 집단 때거지 문화에서 사는 법은..

침묵은 금이다가 정답이야..

그리고 소주는 맥도널드 표 콜라 빨대가 와파라는거 명심하고.. 꾹짜로 몇개 주기도 하니께..

어쩌면 그런 경제 나부랭이 보다 이런 처세술이 살면서 더 중요한 걸 수도 있는거여..

갑자기 쓰다 보니까 사투리가..

확실히 워드 연습은 제대로 한 것 같군... 음... 이젠 400타도 잘 하면 되겠어..

내일 나가서 사랑해야지...^ ^....

^ ^...도 배운거야... 와 보니 별게 다 있더군... 하여간 요지경이야...

이젠 핸드폰 문자에 도전해야지..

갑자기 흥미가 떨어졌어... 이젠 재미없어서 그만 두기로 했어.. 이 나
이 먹고 살해 험박에 욕까지 먹어 가며 시간 낭비 할 필요도 없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동네 아줌마 상담해 주고 빈대떡에 소주 얻어먹
는게 남는 장사지..

안녕.... 몸뚱아리 젊을 때 잘 간수들 하고... 몸 막 굴리는 애 치고 말
년이 편한 애들 없으니까.

<2008년10월29일>

70. 지금 은행은 완전 개 삽질을 하는구나.

내가 오늘 보다가 기가 막혀서 가기 전이 이 말 한마디만 하는데.

지금 은행이 왜 저 모양인 줄 알어?... 핵심이 ?.

리먼 박살 날 때 그 때 국내 시중 은행에서 파생 쓴거 있지.. 그 규모가 발표 수치에 최소 13배~15배 이상 수준이야..

정부나 은행에서 파생 마이너스 난거 감춘게 이 정도란 거지... 이것도 다 드러난 수치가 아냐..

그래서 예전에 리먼 작살 날 때 그랬지... 최소 파생 쓴게 10배 이상 일꺼라고 그러니 몸 사리라고.

그럴듯한 전문가 의견 어찌고 끝값을 떨겠지만 장부상에서 파생 감추는 회계 양식이라는데 있거든.. 지금 장부상으로 파생 뺄뻑난게 일부 노출이 되서 지금 난리 부르스를 치는거야.

그리고 막판에 무역 수치 10억 흑자 어찌고 끝값떠는건 현장에서 LC 다 틀어막아서 이젠 대기업이 가도 잘 안 해주는 사실상 마비 상태로 막아서 숫자 껴 맞추기 하고 일선기업보고는 밀어내기로 수출 물량 보내라고 한 거고.

그래서 지금 11월 중반에 보내야 할 물량을 20% 이상 뺄어서 밀어내기 하고 있는게 현실이야... 그래서 때려 맞춘 숫자..

외국 애들이나 국내에 있는 애들이 그런거 모를 눈 뜬 장님이라고 생각 하니?.

보다가 하도 웃겨서 말해 주는거야...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가.

그리고 이젠 노인네 좀 그만 들볶아라... 이젠 찾지 마.... 오전 장사 나갔다가 들어와서 빨래 빨려는데 그냥 ‘침묵은 금이다’로 지금은 귀 죽은 듯이 있으면 되는거야..

태풍 지나간 다음에 이젠 재건해야지.. 이런 날이 오지 말기를 진짜

바랬는데 솔직히 이젠 어처구니가 없네.

당장은 다 쉬쉬 하고 있지만 언젠간 터질 일이였다.. 새삼 놀랄 것도 없어.. 다만 눈 가리고 입닫고 하니까 발설이 안 된 것 뿐이지.

속 빈 강정이란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란다.

그래서 냉정한 시각으로 극사실주의에 입각해서 현실 파악하는게 중요하다라고 말한 거야..

이건 살면서 반드시 명심하고..

나도 이젠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지... 이걸로 끝이야.... 또 속지 말라고..

아주 이놈의 나란 끝까지 속여 쳐 먹네..

-늪은이가-

이제 노란 토끼가 시작된거야... 그것만 알고 있으면 이게 뭘 말인지는 내년 꽃 피는 봄이 되면 알꺼야..

지금은 노란 토끼가 시작되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노란 토끼에 대해서 말하면 난 비자 싸그리 다 긁어모아서 외국 나가야 해... 나도 장사는 해야지!!!

그리고 몸조심 하고!!!

<2008년10월30일>

71. IMF 달러 스왑은 곤란하다.

나라 망하기를 바라고 고사 지내는 놈..

경제에 정치색 물들여서 어떻게 해보자는 애들...

다 경계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염병할 주식 어찌고 하는 것도 예전 100년 전에 왜 나라 망했는지 보면 그런 것들도 다 조져야 하는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달러 스왑은 긍정적인 소스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지.

문제는 FRB에 의한 달러 스왑이 아닌 왜 IMF 달러 스왑을 한국에 들이미는지에 대한 그 차이점이 뭔지는 생각해 본적이 없냐?

이런 의심 한 번 안 해 봤으면 그냥 증권사 때려 치고 산에나 가서 농사나 짓든가..

대가리가 의심스러운 수준이니까..

통화 스왑을 하기는 하되... IMF가 아닌 FRB 주관의 통화 스왑이 되도록 정치 로비라도 해서 손을 쓰지 않는 이상..

만약 통화 스왑을 하더라도 앞으로 이 한국 경제라는 건 상당한 영향을 최소 그 후유증으로 5년 이상 겪을 각오는 해야 한다.

당연히 97년처럼 그런 급격한 변화는 안 나오는데... 지금은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란 거지.

일명 저장도 쇼크... 왜 FRB가 아닌 IMF인지 그 핵심을 잘 생각해 보면 답은 너무나 100% 분명한 의도가 보이는 것이다..

이게 양키 놈들이 애들 홀리는 수법이란 거야..

FRB에서 지금 원/달러 스왑 거부한 이유가 지금 환율 1400원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건 핵심적인 이유"들" 중 하나일 뿐이란 거지.

"똑똑히 정신 차리고 잘 보라... 이게 핵심 이니까 이제..."

"두 눈 부릅뜨고 이런 걸 잘 캐치해서 앞으로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알아서 잘 캐치해서 살 생각하란 거야.. 내 말은.."

또 놀아나지 말고..

그리고 그 잘나빠진 주가 들먹거리지 마!!!... 난 주식쟁이도 아니고 환율 : 주가 변동 모델링 하는데 일한 죄라면 죄 밖에는 없는 늑은이니까.

그리고 내가 외국인이면 미쳤다고 여기다가 알려 주냐?.. 나 혼자 다 쳐 해 먹지...

하여간 이놈의 음모론으로 이 나란 앞으로 망할꺼야.

정신세계가 완전 4 차원이네..

-늑은이가-

안 쓴다더니 오늘은 또 왜 썼냐고?..

난 내 풀린 대로 하거든..

흥미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것 뿐이야.. 기분파지...

그걸 여태 못 고쳐서 개피박 쓴게 한이라면 지금 다 늑어빠져서 한이 구나...

염병 이럴 줄 알았으면 나 혼자 다 해 쳐먹었어야 하는건데..

<2008년10월31일>

72. 내일 손자가 컴퓨터를 가지러 온다.

난 늙은이다... 솔직히 이제 별로 살날도 얼마 안 남아서 우리 동네에서 은퇴한 다음에 고구마나 팔면서 동네 반상회나 들락거린다.

11 이라는건 일레븐 클럽이라는 토론 모임이다.. 처음에 동네에서 다 때려치고 고구마 장사 시작할 때 심심해서 남는 시간에 독서 토론 모임이라고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붙여 놓으니 아줌마 몇 명이 전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미심쩍은 눈으로 아줌마 3명이 찾아와서 시작한 모임이었는데 그렇게 시작한 모임이 일레븐 클럽이라서 그런 것 뿐이다. 그러다가 독서 토론 모임이 변질이 되서 이제 주로 동네 아줌마들 재테크나 세무 상담이나 경제 얘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사람이라는건 누구나 사물이나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즉 A라는 사물을 보고 B라는 관점이나 C라는 관점으로 다 달라지듯이 보는 시각이 다 틀린 것이 이런 해석적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다.

다만 한국에서 왜 침묵이 금이어야 하나 하면 한국이라는 획일성 강한 나라에서는 타인과 이타적인 관점을 말하면 말 그대로 동일 그룹에서 또라이 취급 받기 쉽상이다.

그럼... 말해 봐야 손해를 보는데 뭐하러 말해?... 입 닫고 나만 준비해서 살아남으면 되지?

결국 나만 마이너스 아냐?.....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보통 흔히들 하는게 이런 생각들이다..

개중에는 말을 해 주는 사람도 있다... 결론은?...

열이면 열... 이상한 놈 취급을 받는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무조건 침묵은 금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써 그런 뜻이었던 것이다.
사람이라는건 원래부터 간사한 동물이라 여태까지 자기 자신만이 쌓아 온 개념적 틀이나 사고에서 벗어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강한 저

항감을 가진다.. 이런걸 탈 이탈 패턴 양식에 따른 비수용성 혹은 거부감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극복 할 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지만 이런 제약적인 사고의 틀을 깨지 못할 경우에는 가능성의 제약이라는 걸 받게 된다..

외국과 다르게 한국의 이런 사회 구조적 틀이라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현실적 생존 전략으로 보면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침묵=금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다.

사실 여기가 경제 토론방이라지만 경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것이다.

나도 군대를 갔다 와서 2년간 학교를 안 가고 전기 배선 일을 하면서 거의 극우 민족주의자에 가깝게 살았던 적도 있었다... 흔히 예전에 하는 빨갱이 때려잡자 라는 말이 사회에서 대 유행을 하던 그 시절에 나도 한 손 거든 인간이라는데 솔직히 이제 와서 한심하다는 생각마저 드는건 사실이다.

난 원래 극사실주의자다.. 극사실주의의 최대 단점은 바로 여기서 지적인 바와 같이 자칫 이런 개인적인 관점이 없는 타인이 보기에는 공포감이라는 것이 든다는 것이다.

왜냐면 이걸 그 동안 내가 그동안 쌓아 올린 기존 가치관에 자칫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에 백인 전용 가게에 흑인이 들어 와서 밀크셰이크 한 잔 달라고 하는 식의 이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 이전에 감정적으로 원초적인 저항감이 드는게 사실이다.

이런 경우를 그 동안 많이 겪었다.. 특히 7.80년대에 회의를 하다 보면 거의 좋게좋게 끝내자는 식으로 의견을 몰아갈 때 나 같은 극사실주의자 애들이 문제가 있다고 대들고 손 쳐들고 보고서 몇 페이지 어디어디가 문제문제니까 수정해야 한다고 하면 반 이상은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고 나올 때는 더 가관이다.

그렇게 무산시킨 일이 대략 6건 정도 된다.. 이 중에 5건은 전면 수정

했고 1건은 취소 시켰다.

따라서 이러다 보면 의례 파벌이라는게 생긴다..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사내에 파벌 조장 했다는 그 놈의 소리였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2.30명에서 회의하는데 한명이 잘못 지적하면서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보통 힘든게 아니다. 그게 조직 문화라는 것이고 요즘에는 신세대라고 하지만 늙은이 득실거리는 회의장 가서 아니라고 하면 100% 저런 개 싸가지.. 이 소리부터 날라오기 마련이다.

왜냐면 지적하면 밑바닥부터 다시 썰 빠지게 예산 다시 짜고 프로젝트 수정하고 결재 다시 받고... 거기에 또 실패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반드시 희생량이라는게 필요한데 그건 100% 내가 져야한다.

그런걸 다 생각해서 양떼몰이 식으로 몰아가면 거의 수궁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

그래서... 역으로 침묵은 금이라는 것이다..

왜냐면 개인적으로 손해를 보는게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아마 여기서 떠드는걸 밖에 나가서 떠들면 아마 반 미친놈으로 볼 것이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다...

나도 국가가 어찌고 사회가 어찌고 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란 나라는 국가는 존재 하되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 나라다.

집단에 개인이 묻히고.. 애국과 사회에 개인이 묻힌다..

그럼... 과연 나는 누구인가... 대기업에 가려고 하는 이유는 대우가 틀리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대기업에 가면 대우는 둘째치고 일단 거대 조직에 숨기가 좋다는 장점이 있다... 이게 최대 장점이다.. 그래서 역으로 임원이 안 되면 재직 평균 수명도 짧은 이유가 그것이다.

그건 사회나 국가도 마찬가지다..

나 자신의 생존은 내가 지켜야 한다... 캐네디가 말했지... 국가가 뭘 해주기 이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 뭘 해 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라고.

그러나..

그 후에 남는 것은 좌절과 절망이다... 이 나라의 근현대사라는걸 보면 너무나 안 보이는 좌절과 절망의 개인적인 희생을 강요해서 그 눈물을 기반으로 여기까지 온 나라다.. 그렇다고 부의 평등이라는건 이제 는 꿈도 못 꾀다.

이럴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걸 국가가 어찌고 사회 개혁이 어찌고 하기 이전에 나 자신과 가족의 사회적인 최소 안전 보장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극사실주의적인 관점으로써 개인적으로 각자 살 생각을 일단 하는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국가가 우선이 아니라... 국가 이전에 개인과 내 가정이 안 깨져야 그 다음에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이다.

내가 일단 굶주리지 않아야 여유라는게 생겨서 사회 문제에 관심이라는 것이 가는 것이다.

이 나라는 극도의 양면성을 가진 나라다.. 겉과 속이 틀리다.

우리가 흔히 일본인들 보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다.. 그런 가식적인 면을 보자면 우리도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절대 다르지가 않다는걸 곰곰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100% 거짓말이지.

그건 국가적인 차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나라 정책 입안자들이나 정치인들은 말로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집을 사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들은 개인 포트폴리오라는 이름하에 자산 포지션을 바꾼다..

대표적인게 전여옥 씨... 이 아줌마의 경우는 올 클리어... 주식 -->>

예금으로 갈아 탄 건 이제 새로울 사실도 없다.

눈치 칸 애들은 거의 다 조정 했다..

심지어는 대통령 본인이 주식 사라고 펀드를 들꺼라면서 주식 한 주 안 산 나라가 한국이라는 나라의 양면성을 극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들이다..

난 이걸 비난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

잘 생각해 봐라.. 개인적인 차원에서라면 이런 추세 분석상 자기 재산을 지키자고 포트폴리오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갈아 타는건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오히려 칭찬을 해 줘야 할 일이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신분이 지금 뭐냐가 문제라는거지... 바로 정책 조정자와 정치인.. 이 나라는 실질적으로 핸들링 하는 장본인들..

이 사람들이 개인 직권을 이용해서 직간접적인 고급 정보 소스들을 이용해서 혹은 활용해서 빠져 나가는 애들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한테는 정 반대의 것을 강요한다..

이건.. 뭔가 웃긴거 아냐?... 비난을 하자게 아니라 사실 보면 이 정도로 양면적인 두 얼굴의 나라라는 것이지..

그럼 개인적으로는 그럼 알고서 당할 멍청이는 없다...이건 당연한 것이다..

흔히 왜 거시 경제 정책 운용상 극사실주의나 그런게 눈에 가시 같은 것이냐 하면 극사실주의로 대중 다수가 알게 되면 당연히 개인적인 재산 보호 차원에서 방어 전략이라는 것이 나온다..

마치 뻔한 그림인데 가짜를 진품이라고 속이면 싸대기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인것이지.

그래서 거시 경제 정책에서 극사실주의로 다수가 알게 되면 이것이 추세로 연결되서 정부 정책이란 것이 씨알이 먹혀들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여론 통제라는게 필수 불가결해 진다... 이것은 90년대 초반 걸프전에서 미 정부 당국이 임시 언론 통제로 바그다드에 들어가서 실제로 폭격 맞은 사진이나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 검열 비슷한 걸 했다.

그 이유는 그런 사진 한장이 반전 여론 운동의 빌미가 될 수 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이 똑똑해 지면 정부 정책은 역공을 맞게 된다... 기존 이론 경제학이 안 먹혀든다.. 역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개인적인 차원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 미래 자산 가치가 떨어질게 분명한데.. 애국하자고 집을 사고 실물 자산 살 멍청이들이 있을까?..

집이 반드시 그렇다는게 아니라 반대의 경우도 적용이 된다.. 실물 자산 가치가 폭등할게 뻔한데... 현금 들고 있는 놈이 멍청한거 아냐?.

그러면 이 때 100% 나오는 얘기가 이런 매국노 소리였다... 이젠 여기 인터넷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듣는 소리다.

난 원래 인터넷이라는걸 잘 안 본다.. 거의 이기주의자라거나 매국노 어찌고 현실에서도 그런다..

이 나라는 진짜 대단한 애국자들 천지인 나라다.. 그리고 나중에 100% 손해보고 속았다고 후회 한다... 그 다음에 또 까먹는다... 애국심 마케팅의 열풍이 불어 닥치면 그 때 또 양떼 몰이에 따라 휩쓸리며 선동이 된다.

그래서 중립적인 극사실주의에 입각한 개인적 시작이라는걸 가지는 것이 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이것이다..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없으면 사람이라는 건 쉽사리 휩쓸린다.. 대중 선동이라는 것이 무슨 빨간색 정치 논리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이런 경제적인 양떼몰이다..

알면서 애국한다고 손해 볼 미친놈은 없다.. 심지어는 유인촌 장관님도 엔화 투기로 단 1주일 만에 30억 이상 버는 나라가 이 나라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국기 흔들면서... 단순히 정치적인거라면 모르는데 여기에 경제 논리 = 애국주의를 믹싱 시켜서 정부 정책 기조에 반대되는 행동 = 매국노 라는걸로 확대 재생산이라는걸 하게 된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거라고 보는가?... 난 애국 한다고 손해 보는 장사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리고 원래 애국이라는 것의 의미도 애국이란 집단적 다수 이익 보호라는 측면이 강한 일종의 단합체 내의 공동체 의식 구조다.

이런 집단 공동체 내의 집단 이익 보호를 위해 희생(= 애국) 이라는걸 하면 반드시 집단적 차원에서의 보상이라는 것이 그 희생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원래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애국이라는 말의 어원적 뜻인데 한국 이라는 나라에서는 이걸 맹목적인 단체주의 애국주의로 재포장 해서 학교에서 가르치고 주입을 한다.

그 대표적인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나였다.. 다행이 난 그 틀을 깨닫고 빠져 나온 경우지만... 지금도 거의 다수는 이런 단체주의적인 맹목적 애국 교육에 찌들어 지금 어떤 식으로 속으면서 사는지조차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 래. 서.. 각성이란 것과 학습이란 것이 동반 되어 한다는 것이다.. 어떤 정보가 주어 졌을 때 그걸 보고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은 경제 비전공자 하더라도 그 누구라도 학습이라는 형태로 가능한 것이고 ‘내가 무슨..’ 이런 생각을 가진 이와 ‘나도 이제 시작하자..’라는 이는 3년.. 5년 후에 보는 관점적 레벨이라는게 틀려진다는 것이다..

당장 내일 죽을 날짜를 받아 놓지 않은 이상 지금은 그 누구도 돈에 자유로울 수 없고 머니 게임이라는 경제 게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야구장 그라운드 한 폭판에서 야구 게임 룰을 모르면 100% 당하는건 야구나 머니 게임이나 마찬가지고 특히 개인적 차원에서는

솔직히 정부 : 개인의 관점에서 개인이라는건 정부라는 공룡이 보기에
는 비루하기 짝이 없는 존재다.

정부에서는 관련 경제 기관이 20여개가 넘는 부처에서 하루에 수백건의
보고서를 짜고 종합해서 정보 재가공이라는걸로 나온다..

이런데에서 개인이 다윗과 골리앗 게임에서 살아남으려면 추세를 반드시
읽어 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건 난 비전공자니까.

난 가방끈이 짧아서.. 이런 변명을 머니 게임에서 먹혀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동안 모은 돈에 대해서 시간적 노력에 대해 눈 뜨고 강탈당
하는 경우가 흔해 빠졌다..

강도가 현금 가방만 가지고 들고된다고 도둑이고 강탈이 아니다.. 요즘
에는 금융으로 강탈당하고 장 가치 변동으로 강탈당한다.

안 당하려면 철저하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배워야 한다.. 경제라는데
에 가장 큰 거부감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접근성이라는데서 가장 큰
거부감을 느낀다... 흔히 어려울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굳이 보지 말아야
할 손실을 감수하고 이걸 어쩔수 없는 것이야.

하며 혼자 자위하거나 술로 달랜다...

그건 아니지...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떻게 시작해야 한다는건 다들 알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
는다.. 그런후에 썩 빠지게 벌어서 돈은 있는대로 날리고 나중에 피눈
물을 흘린다....

경제 신문을 사서 형광펜으로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이해가 곤란한
건 수시로 밑줄을 긋는다.. 그런 후에 집에 와서 경제 사전이나 인터
넷으로 검색을 해서 살펴본다.. 왜 형광펜이나 하면 사람의 시각이라
는건 자극성이 떨어지는건 무의식적으로 흥미를 잃어버린다.

그래서 연녹색을 추천한다... 그리고 중고책방에 가면 싼 경제 사전도
판다... 개정판도 나왔지만 굳이 새걸 살 필요도 없다.. 그리고 경제 기

본서를 추천하는걸로 하나 사서 읽어 본다..

어떤 것인지는 말을 안한다.. 그 동안 책장사 하냐고 또 떠들어 대기를 수십차례다.

그래서 보는 방법은 한번 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다.. 일단은 제일 쉬운걸로 골라서 초심자들의 경우는 최소 3회 이상 5회 정도를 반복해서 본다..

왜 그런가 하면 어떤 틀의 확립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거나 과외를 해줄수는 없는 것이다.. 독학으로 비전공자나 이해관계가 없는 개개인의 경우에는 제일 쉬운 책부터 차츰 중간 고급 단계로 가야지 처음부터 어려운 책 붙잡고 보면 이 또한 금방 흥미를 급상실 하게 된다..

원래 인간이란 간사한 존재다.. 접근성과 흥미가 떨어지면 쉽사리 움직이거나 할 생각이나 엄두를 못 낸다..

뭐든지 일단 재미라는게 있어야 한다.. 왜 경제라는게 어렵고 접근성이 떨어진 것이냐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가 아니라면 모른척 하는 것이다..

근데 이런 행동이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마치 야구 경기장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도 본인이 자각이라는걸 못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

요즘은.. 첼로 전공자도 경제는 중 전문가는 되는 수준이다... 이게 농담 같은 현실이다.. 한국에서 사는 법이 이런 것이다..

만약 이게 미친 소리처럼 들린다면 이걸 진짜 심각하게 본인 차원에서 생각이란 것을 해 봐야 할 문제다.

그래서 일단 경제 신문이나 잡지 같은 단발성 소스 위주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걸 한가지씩 접하면서 보고 이론적인 기본틀이라는걸 쌓아 가는데 쉬운것부터 심지어는 초딩애들이 보는것부터 시작 하는게 좋다... 이런 식으로 단계를 올려 가면서 상급자 코스로 가는게 보

통이다.

이건 경제를 잘 아는 애들이나 전공자들이라면 웃기는 얘기로 들릴 수 있다.. 한 마디로 가소로운 거지..

하지만 전문가가 처음부터 전문가가 아니었다.... 시간의 누적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레벨이 올라가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원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애널은 도급제 방식으로 밑바닥에서 크는게 보통이다.. 즉 선배 전문 애널 분석가 밑에서 예전 중세 유럽에서 도제 방식으로 최소 3년 이상 배우면서 기본기를 닦아 나간다..

그 후 실무 경력 5년 정도 되면 그제서야 명함을 내미는 수준... 근데 지금은 하도 날라리 같은 애들이 많아서.

하여간 이런 단계를 거친 후에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서 경제 흐름이라는걸 접한 후 + 기본적인 경제 이론 틀 = 추세 분석 이라는걸 각자 개인별로 시작 하게 된다..

이 단계가 초단기로 하면 대략 1년여 정도가 소요된다.. 한 마디로 속성 과정이지.

보통 환율 + 금리 + 유가 변동 등 같은 걸 보는 눈을 키운 후에 관련 도서들을 보고==>> 차트 분석 들어 가 있는 소스들을 접한 이후 ==>> 초장기 흐름 분석 ==>> 단기 분석....의 과정을 거친다..

초심자라고 절대로 쫓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설사 틀리더라도 객관적인 시각적 관점이라는걸 일단 닦은 후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각자 추세 판단이라는걸 캐치 해낸다.

원래 뭐든 추세 분석은 그날그날 단타로 하는게 아니다... 초장기 => 장기 => 단기 => 초단기..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읽어내는게 기본 룰이다.

그래서 병원에 쳐 박혀 있다가 현역에 복귀 하면 제일 먼저하는게 밑에 애들 보고 그 동안 데이터 싸그리 다 가져 오라는 이유가 이런 것

이다.

줄기차게 그것만 본다... 병원에서도 심지어 리모컨질 하는 애들이 보통이다.

물론 이런건 전문가나 좀 아는 애들이 보기에는 웃긴 걸 수도 있다.. 하지만 초심자의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잘 알고 이런식으로 따라 가면서 각자 살길 찾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가서야 이젠 좀 추세를 읽어 낼 줄 알면 주식 부동산 경매 상품 외환 영역으로 범위를 나무에 가지치기 하듯이 뺀어 나가면서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이며 이 와중에 나무 가지별로 플러스 마이너스 득과 실을 따져서 뭐가 최상의 결과 도출인가 하는 최소 자본 최대 이윤 창출의 시나리오 맵이라는 것의 결정판이 나오게 된다.

내일 손주가 컴퓨터를 가지러 온다.. 이젠 토론 모임에 가 봐야 할 때라 그만 써야겠다.. 속도가 타수 400타가 되니까 역시 좋기는 좋군.. 염병..

쫄지 말고 각자 토론 독서 모임이나 하나 만들어서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다녀라..

하기사 만들든지 말든지 개인 자유지만.

그리고.. 미네...미네..미네..미네..미네.. 그만 좀 해라... 이젠 안 지겹냐??? 동네에서 고구마나 파는 늙은이 정체가 도대체 왜 궁금하니???

내가 말 한 핵심은 경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하는 자세적인 면에서 더 중요하다는걸 말했던 것 뿐이었고 나머지는 부록이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각성이라는걸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속지 말고 당하지 말고 살라는 거였고...

2015년 ~ 2017년 사이에 이젠 거대한 흐름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회의 시대라는게 몰려 올 것이다..

항상 이런 시절만이 있는게 아니다..

지금은 낯짝 엮드려서 준비라는걸 하면 되는거야.. 이젠 컴퓨터를 끄고 각자 새로운 개인 로드맵이라는걸 짜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에 찾아올 기회를 캐치해 내라.

그게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야... 물론 난 그 때는 됐겠지만...

다 세상 사는게 그런 거지.. 이젠 좀 그만 들 쑈서... 편하게 눈 좀 감아 보자..

난 그냥 비루한 늙은이야.. 늙은이.. 끝까지 안 믿을래?????

이젠 클럽 가서 회원들 만나고 소주 병 좀 까야겠어... 한 몇일 너무 조용하게 살았어..

그리고 이젠 컴퓨터 전원 내리고 책을 보라.. 책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힘 3부작인가 뭔가 하는거 다큐수집한거 다시 보니까 진짜 훌륭한 내용이더구만..

이런걸 보고 각성이라는걸 하고 세계 경제 흐름이라는걸 읽고 국내 경제를 파악해서 대비라는걸 할 생각을 해야지 허구헌날 이런 거 봐야 말짱 짱이야..

노인네 말이라고 괘시 하지 말고 좀 들어라!!!. 그런거 하나라도 보는게 젊은 애들한테는 백배 낫은 보약이니까.

그리고 나 안 잡아 가니까 걱정하고 오버 좀 하지 마!!.. 최소한 부를 변호사 애들 3~4 명은 넘으니까.

지금 애들 장난 하니???

-늙은이가-

<2008년10월31일>